

2015
ANNUALLY | 제 31 호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하기에...

함께의 힘은

패배를 승리로 이끌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포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듯,

농협, 그 하나의 이름으로

농업인과 국민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의 힘-NH농협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속초시지부



속초문화

SokCho-Culture
Journal



CONTENTS

005 권두시

006 권두회호

008 발간사 _ 박무웅/속초문화원장

009 향토문화학교 수강생 / 속초문화원 회원모집

속초문화원 365

012 효행청소년 시상

013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014 향토문화학교

016 문화원산하 동아리

01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018 속초도리원농악

019 속초 도문농요 보존 전승

020 북청사자놀이 전수

021 강원민속예술축제

022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023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024 꿈꾸는교육복지놀이터

025 시민문화예술학교

026 학교문화예술교육

028 청소년문화예술교육

029 청소년문화전수교육

030 설악제례

031 문화유적답사

24821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570-5) Tel.033)632-1231,639-2439 Fax.033)632-1241

<http://www.sokcho-culture.com> · E-mail : sc2439@kccf.org.kr

펴낸곳 속초문화원 발행인 박무웅 / 편집인 김인섭 / 발행일 2015.12.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 및 강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CONTENTS

사진화보

- 032 장릉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 033 문화체육자원봉사매칭시스템
- 034 문화이모작 '마뎡이 토크'
- 035 속초문화원 동정
- 036 장릉사진공모전

특집1

- 046 속초지역 아리랑 전승현황 /장정룡
- 062 청초호의 정자/정상철

특집2

- 070 설악문화제 50년 / 엄경선
- 094 속초민예총 20년 / 박종헌

기획

- 2015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 102 시민문화예술학교/김은중
- 104 학교로 간 설악문화나눔 친구들/양인옥
- 108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사업/이정무

문화현장

- 110 공공미술은 성립가능한가?/장경석
- 124 마을 없는 '벽화', 주민 없는 '예술'을 극복하는 벽화마을 조성/김인섭

문화예술해적이

- 126 설악신문으로 본 문화예술 해적이

문화상

- 141 속초시 문화상 수상자

문화원 현황

- 142 속초문화원 임직원



속초 문화 시민위원 모집

속초문화원에서는 지역의 향토사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신 시민 여러분을 속초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속초문화 연구 및 자료수집에 동참해주실 분은 속초문화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하며 발굴하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활동분야**
 - 기초 자료조사 : 신문, 생활용품, 사진, 발간물 등 지역문화에 관계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일
 - 향토문화 현지조사 : 민요, 설화, 민속 등 속초의 옛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현지조사 및 연구
 - 시민구술사 : 속초시민의 삶을 듣고, 기록하며 속초시민생활사를 만드는 일
- **응모자격** : '속초 향토문화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 ※ 향토문화학교 : 속초의 문화와 예술, 향토사 자료수집의 연구방법 및 의미, 구술사 방법 등 향토문화 전반에 대한 소개
- **문의 및 응모** : 지원서 작성(속초문화원 방문, 홈페이지 다운)
☎632-1231(팩스 632-1241)

속 초 문 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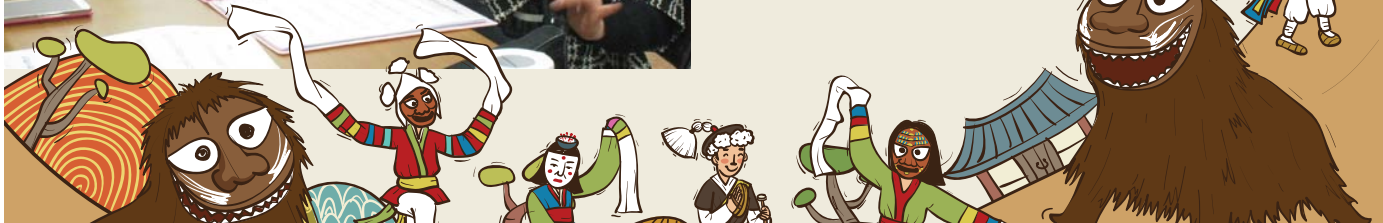
2016 속초북청사자놀음 통소교육생 모집

속초문화원에서는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속초시 실향문화 콘텐츠인 '북청사자놀음'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상 통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북청사자놀음의 신명나는 음악 '통소'를

무료강습하오니, 지역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16년 3월 ~ 12월
- 교육장소 :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 모집인원 : 통소반 00명
- 모집기간 : 상시모집
- 참가비 : 무료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전화문의 후 접수
(속초문화원 632-1231)



척독(吊讀)

채재순

천지만물 어느 하나 명문장 아닌 것 없다고
삼라만상이 기막힌 책이라는 걸
뒤늦게 조금 알게 되었다고

긴 편지보다 밀간 배인 편지가 더 그리워지는 날
읽고나면 그림이 그려진다는
여백이 아름다운 편지 생각에
봄을 놓고, 밤마저 놓은 채
척독을 띄우시는가

자작나무 위 둥게구름 한 조각
하루 칠십오만 번 들락거리는 파도의 출렁거림
저기 수평선 한줄
달빛 스민 창문까지
오롯이 갈무리한

안으로 스며든 꽃차처럼
따스한 물에서 피어나는 첫 꽃봉오리 시간을
마음에 넣고 꼭꼭 씹어보겠네
적막하게

〈채재순〉

등단: 1994년 시문학

-저서: 시집 '그 끝에서 시작되는 길, '나비, 봄 들녘을 날아가다',
'바람의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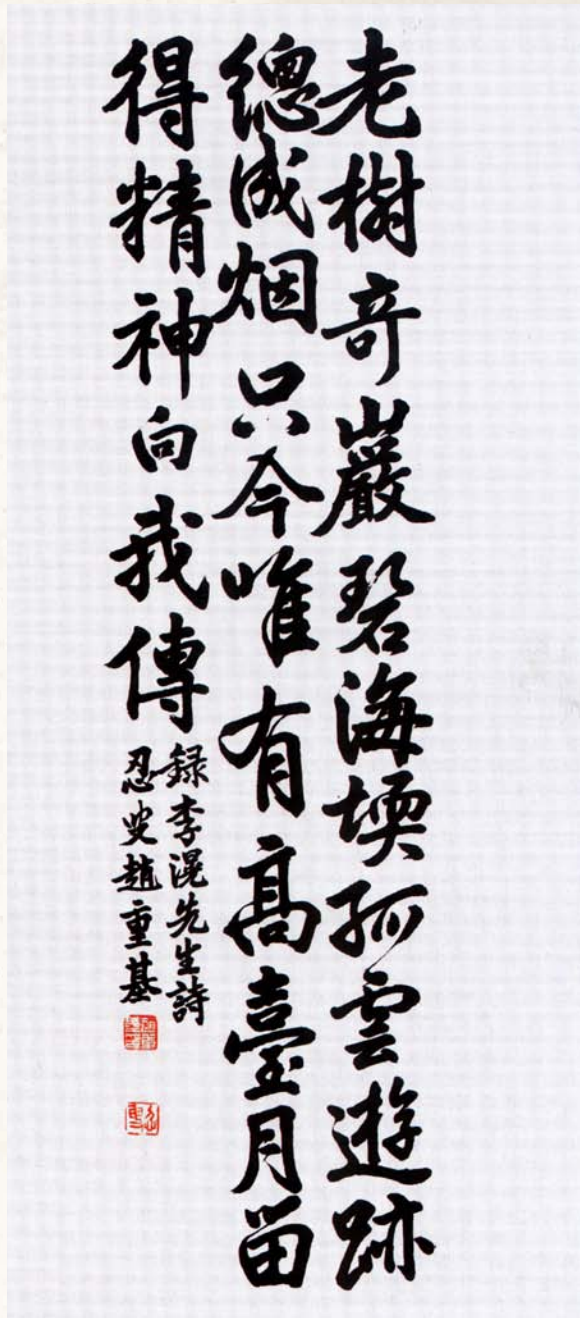
-수상: 2013년도 강원문학 작가상 수상
빈터, 갈뉘, 산까치, 물소리시낭송회 회원으로 활동





忍搜 조중기

- 강원서예대전 특전
- 대한민국아카데미 미술협회 기로회 초대작가
- 속초시 조양동 서예강사
-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한문서예강사



이황선생시 [월영대]

늙은나무 기이한바위 푸른바닷가에 있고
 고은이 놀던 자취 연기처럼 사라졌네
 이젠 오직 높은데에 밝은 달이 길이 남아
 그 정신을 담아가다 네게 전해 주려하네



原齊 최종봉

-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
- 무릉서예대전 입·특선 다수
- 님의침묵 서예대전 다수입상
- 운곡서예문인화대전 입·특선 다수

碧波亭上月高懸蒼
 簞松床穩醉時忽到
 三更喧似市順風來
 泊清州船

錄砂磯李是遠先生稿
 乙未秋原齊崔鍾奉

사기선생시 [옥주기사]

벽파정 정자위에 달 뚜렷이 걸렸는데
 거나하게 취한채로 침상에 잠들었네
 밤은 깊이 삼경인데 와자지꼴 떠들으니
 멀리서 떠오르는 배 대미노라 그럼일세



속초문화원 50년, 속초문화 백년의 힘찬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속초문화원장
박무웅

올해는 속초문화원이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문화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시절인 지난 1965년 지방문화원 조성법과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속초에도 사단법인 속초문화원이 설립됩니다. 그때가 1965년 3월 22일입니다. 그 해 7월 10일 정식으로 속초문화원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속초문화원은 지난해부터 50년 역사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 50년사>의 정리를 통해 지역문화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행정서류와 옛 사진을 보며 그때 그 시절의 문화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가슴 벅찬 시간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속초문화

원의 50년 기록은 올해 말 발간될 <속초문화원 50년사>에 오롯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속초문화원은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그중 새롭게 시작한 <시민문화예술학교>는 호응도가 높아 매년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합니다.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와 예술 교양을 함께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악문화나눔친구들>로 이름을 바꾼 어르신 문화자원봉사단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유치원과 노인복지관 중심의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부터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방과 후 학교 선생님이로 사업을 펼쳤습니다. 어르신들의 열정이 지역의 학생들과 만나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1시군 1문화행사의 하나로 속초사자놀음을 콘텐츠로 만드는 공연작품도 눈여겨볼 사업입니다. 좋은 공연인프라를 갖고 있는 속초가 제대로 된 상설공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초문화원은 그 중심에서 지역의 여러 공연단체와 협력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더 많은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예술인들이 서로 함께하며 협력할 수 있는 마당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든든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제 24기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시기 : 2월

신청방법 : 속초문화원 방문접수

등록비 : 연 3만원(재료비별도)

※문화원 회원은 1만원 할인혜택 및 1강좌 무료 수강 가능(정원미달시)

문의 : TEL 632-1231/ FAX 632-1241/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의 회원이 된다는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매년 발간되는 향토사안내서와 ‘속초문화’ 소식지 등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자료(도서, 음반,DVD,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회비 : 연 4만원

문의 : TEL 632-1231/ FAX 632-1241/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365



- * 효행청소년 시상
- * 정월대보름
- * 향토문화학교
- * 문화원산하 동아리
-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 속초도리원농악
- * 속초 도문농요 보존 전승
- * 북청사자놀이 전수
- * 강원민속예술축제
- *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 *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 * 꿈꾸는교육복지놀이터
- * 시민문화예술학교
- * 학교문화예술교육
- * 청소년문화예술교육
- * 청소년문화전수교육
- * 설악제례
- * 문화유적답사



2015 효행청소년 시상



본원은 매년 관내 16개 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청소년 시상을 진행한다. 품행이 방정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탁월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에 의해 선발. 각 학교 졸업식장에서 ‘효행청소년상’을 시상했다.

본원은 매년 치르는 이상의 시상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금 상기 시킴으로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문화가 지속되길 바라고 있다.



2015 효행청소년상 수상자

번호	학교	학년반	성명	비고
1	속초초등학교	6-2	홍요셉	
2	중앙초등학교	6-1	최유정	
3	영랑초등학교	6-1	노채영	
4	교동초등학교	6-4	남경화	
5	온정초등학교	6-1	이다민	
6	청대초등학교	6-3	염하연	
7	청봉초등학교	6-3	전지현	
8	청호초등학교	6-친절반	노지형	
9	대포초등학교	6-1	이우주	
10	설악초등학교	6-초롱꽃반	추승민	
11	소야초등학교	6-2	이건희	
12	조양초등학교	6-3	이희진	
13	속초중학교	3-5	김준형	
14	설악중학교	3-3	장재혁	
15	속초여자중학교	3-5	김가현	
16	설악여자중학교	3-2	김주아	

제33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

제33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가 3월 5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에서 지역민들의 전통축제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전통재연 및 체험행사, 민속놀이 체험행사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꾸며졌다. 전통민속 재연행사로는 액집태우기와 지신밟기가 진행되었다. 체험행사로는 가훈 써주기, 소원지 쓰기, 부림 깨기, 귀박이 술,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어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을 즐겁게 하였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한화리조트, 속초신협, 속초양양축협 등 금융기관과 기업체가 각각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마당을 진행하며 지역주민과 흥겨운 한마당을 함께했다.

입교식

행사명 : 2015(제33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

- 일시 : 2015. 3. 05. 15:00~19:00
- 장소 : 청초호 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최 : 속초시, 속초문화원
- 주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외 4개 기관 및 단체
- 향유자 : 동별 행사 참가자 및 행사 향유자 약 1,000명
- 내용 : 전통재연 및 체험행사, 동별 민속놀이 경연대회



행 사 종 목		행 사 내 용	주 관
전통 재연	액집태우기	행사장에 액집(달집)을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원성취를 기원	속초시시설 관리공단
	전통문화공연	사물놀이, 민요, 돈돌라리, 속초사자놀음	
	지신밟기	햇불행진, 농악공연 등	
체험 행사	가훈써주기	무료로 가훈 써주기	속초문화원
	전통문화 체험	연만들기, 딱지만들기, 소원지쓰기, 부림깨기, 전통떡메치기 체험, 귀박이술	속초문화원 속초문화원
	민속놀이 체험	널뛰기, 고리던지기, 투호, 버나돌리기	
민속 놀이 경연 대회	제기차기	洞 대항전(토너먼트방식)	한화리조트
	널 뛰 기	洞 대항전(토너먼트방식)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윷 놀 이	洞 대항전(토너먼트방식)	속초신협
	투 호	洞 대항전(토너먼트방식)	속초양양축협

제23기 향토문화학교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는 지역의 전통 있는 평생교육강좌로 올해 23기생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강좌는 3월 10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장구교실, 사물중급, 한지공예, 서예교실, 민요교실, 고전무용반, 노래교실 등 7개 강좌가 11월까지 진행되었고, 11월 25일~27일 3일간 향토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졌다.

입교식

- 일 시 : 2015년 3월 10일 11:00
- 장 소 : 속초시문화원 문화사랑방
- 참가자 : 문화학교 수강생 등 60명
- 주요내용 :
속초문화원 주요사업 안내, 문화학교 현황보고, 강사 소개





문화학교 일정

강좌명	요일	교육시간	교육장소	향유인원	강사
장구교실	월 ~ 목	10:00~12:00	갯마당연습실	7명	임효건
사물종급	월 ~ 목	13:00~15:00	갯마당연습실	16명	
서예교실	화 ~ 금	10:00~12:00	문화사랑방	17명	김동하
노래교실	화 ~ 금	13:00~15:00	문화사랑방	33명	최봉하
민요교실	화 ~ 수	14:30~16:30	갯마당연습실	20명	김현섭
한지공예	수	10:00~12:00	문화사랑방	10명	이진향
고전무용	수 ~ 목	13:00~15:00	문화사랑방	16명	김민희

수료식 및 전시, 발표회

- 일시 : 2015년 11월 25일~27일
- 참가자 : 문화학교 수강생 및 내외빈 등 130명
- 장소 :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 제1전시실
- 내용 : 개전식 : 11월 25일 10:30
 수료식 : 11월 27일 11:00
 전시회 : 11월 27일~29일 / 한지공예, 서예 작품 전시
 발표회 : 11월 27일 10:30 / 노래, 장구



속초문화원 문화예술 동아리

속초문화원은 지역문화예술의 뿌리인 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설악주부풍물단 ‘해울림’과 통소교실은 지역문화인력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다. 사물놀이 동아리는 제20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민요반과 서예반은 다양한 문화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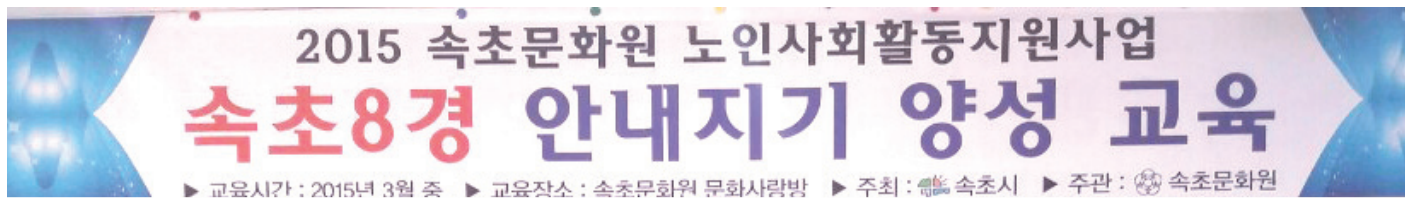


2015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속초8경 안내지기’

만65세 어르신에게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속초 8경 안내지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관광안내교육을 받은 후 속초8경 등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거점에서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지역문화 관광의 첨병역할을 하였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엑스포공원, 속초시립박물관, 학무정 등 5개 관광지에서 관광안내를 하였다.

- 사업명 : 2015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속초8경 안내지기’
- 사업일시 : 2015년 3월 ~ 11월(9개월)
- 해설장소 :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엑스포공원, 속초시립박물관, 학무정
- 참가자 : 24명
- 내용 : 어르신 문화해설사 양성 및 근무



속초 도리원 농악대 운영



지역의 사라져가는 전통무형문화인 속초도리원농악을 전승하고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속초문화원 주부풍물단과 학생풍물 동아리 '뉘누리' 대상 총 46회 전승교육을 하여 농악보전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사전공연, 제50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사전공연, 찾아가는 문화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속초도리원농악 교육일정

교육	회차	기간	대상	강사
심화교육	40회	3월~12월 매주 목요일	주부풍물단 14명	전형준, 정호열
통합교육	6회	4월~10월 월 1회	주부풍물단 14명 뉘누리 20명	

속초도리원농악 교육활동

공연일시	장소	내용	관람객
1회 3월 5일	엑스포공원	-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사전공연	200명
2회 3월 5일	엑스포공원	-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길놀이	500명
3회 9월 21일	예은요양원	- 예은요양원 문화자원봉사	20명
4회 10월 3일	설악산신제단 외	-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사전공연	150명
5회 10월 26일	성암노인복지관	- 성암노인복지관 문화자원봉사	20명



속초도문농요 전승, 공연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관리

속초문화원은 속초유일의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의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5회 공연연습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제50회 설악문화제 초청공연,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초청공연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올해 건립된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위탁운영기관으로 문화원이 선정되어 전수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할 예정이다.



2015 속초도문농요 공연 활동

공연 및 연습일시	장소	내용	관객
1회 10월 10일 15:00	서독약국 앞	• 제50회 설악문화제 초청공연	300명
2회 10월 20일 16:00	도문농요전수관 앞 마당	• 지역문화활동가 대상 공연	50명
3회 10월 24일 15:00	엑스포공원 상징탑과장	•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초청공연	300명
4회 11월 2일 11:00	설악초등학교 운동장	• 설악초등학교 학생 대상 전통문화공연	50명

속초북청 사자놀이 전수 및 공연

지역의 대표 실향민 문화콘텐츠인 속초북청사자놀이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지역예술인, 시민들과 함께 전수교육 및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단은 정월대보름맞이 걸립굿을 시작으로 총 12회 공연을 하였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7회 공연연습을 가졌다.

특히 삼척이사부독도축제와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초청공연은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재미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속초북청사자놀이 공연연습

- 일 시 : 4월~11월 화요일 19:00~21:00 총 17회(개별연습 10회, 통합연습 7회)
- 장 소 : 속초문화원, 속초시박물관
- 참가자 : 북청사자놀이보존회원 40명



속초북청사자놀이 공연(12회)

날짜	행 사 명	행사장소	비고
03. 04	정월대보름맞이 걸립굿 및 길놀이	청호동일대	
03. 05	정월대보름맞이 걸립굿 및 길놀이	속초수산물관광시장	
03. 05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한마당	엑스포공원	
05. 30	삼척이사부축제	삼척이사부축제 특설공연장	
06. 25	속초시립박물관 6.25피난살이 체험행사	속초시박물관	
7월~8월	속초시립박물관 "아간개장"과 "고향의 밤 콘서트"	속초시박물관	4회
09. 20	함남도민 한마당 큰잔치	엑스포 운동장	
10. 09	설악문화제	설악문화제 행사장	
10. 22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엑스포공원	

제26회 강원민속 예술축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영월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속초 사자놀음으로 참가하였다.

지난 예술축제에 이어 세 번째 참가한 속초 사자놀음보존회는 실향민 문화의 특성을 살린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계자 및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주동진 회원(꺼쇠역)은 연기상(강원도지사상)을 수상하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속초 사자놀음 공연연습

- 행사명 : 제26회 강원민속예술축전
- 일 시 : 2015. 9. 10~11
- 장 소 : 영월군 공설운동장
- 참가자 : 공연단 48명, 공연지원 4명



2015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사업

‘실향민문화전파단 돈돌리요’

지역의 사라져가는 실향민문화인 돈돌라리와 함경도민요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역어르신들과 함께 실향민문화공연단을 만들어 다양한 교육과 공연활동을 하였다. 기초반, 심화반 이원화 된 교육을 통해 공연단 인적구성을 높였고, 총 9회 관내 행사 초청공연, 문화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의 재미와 우수성을 알렸다.

사업명 : 어르신문화활동가양성사업 ‘실향민문화 전파단 ‘돈돌리요’

사업기간 : 2015년 5월~11월

교육활동

구분	회차	대상	교육내용
기초반	23회	신규교육생 20명	• 공연단원 육성을 위한 함경도 민요와 무용 교육 및 함경도 문화공유
심화반	26회	공연단 15명	• 공연 연습 및 새로운 공연콘텐츠 개발 • 함경도 문화를 콘텐츠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공연일시		내용	비고
1회	6월 25일	- 속초시립박물관 6.25 실향민 체험행사 초청공연	100명
2회	7월 24일	- 속초시립박물관 야간개장 초청공연	200명
3회	7월 31일	- 속초시립박물관 야간개장 초청공연	200명
4회	8월 1일	- 속초시립박물관 야간개장 초청공연	200명
5회	9월 20일	- 함남도민 한마당 큰잔치 초청공연	500명
6회	9월 21일	- 예은요양원 어르신 대상 문화자원봉사	30명
7회	10월 23일	-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초청공연	300명
8회	10월 26일	- 성암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문화자원봉사	30명
9회	10월 31일	- 속초민예총 주관 등대축제 초청공연	100명



속초문화원 문화자원봉사단 ‘설악문화나눔친구들’은 올해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후원으로 봉사단원 25명은 11월까지 지역축제, 아동센터, 학교 등 총 120여회 찾아가는 문화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풀묶음강사파견사업’, ‘꿈꾸는 교육복지 놀이터’ 등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호평을 받았다.

2015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설악문화나눔친구들’

사업명 :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활동사업 ‘설악문화나눔친구들’

교육기간 : 2015년 4월~11월

교육내용

구분	회차	대상	교육내용
자체 워크숍	14회	봉사단 25명	· 봉사활동 내용 및 진행방향 공유 · 문화예술 봉사기술 습득

봉사활동 분야 및 내용(2015년 3월~11월)

· 활동분야

- 전통문화 : 공연 및 체험(사물놀이, 민요, 고전무용), 전통민속놀이
- 동화구연 : 동화책 읽기, 소품활용 동화구연, 동화 속 캐릭터 만들기
- 지역 축제 및 행사 지원
- 기타활동 : 노래와 율동, 종이접기, 북아트, 간단한 공예품 만들기, 문화체험활동 진행



봉사횟수 : 153회

구분	대상	비고
학교	속초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소야초등학교, 동광중학교	주 1회
지역아동센터	다솜아동센터	주 2회
어린이집	착한어린이집, 밤비니어린이집	월 1회
노인복지관	성암노인복지관, 예은요양원, 속초시노인복지관, 평강요양원	월 1회
관내기관	속초시건강가족지원센터	
지역행사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미당, 설악문화제	
기타	오뚜기마라톤대회, 문화회관 대강당 공연봉사, 신흥사배 야구대회, 장릉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2015 꿈꾸는 교육 복지 놀이터

꿈꾸는 교육복지놀이터사업은 지역학생들의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과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문화자원봉사자들이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 전통문화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함께 하였다. 문화원 소속 어르신봉사단 '설악문화나눔친구들' 회원 6명이 속초·소야·교동초등학교 등 3개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찾아 공기놀이, 봉숭아 물들이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하였다.



사업명 : 꿈꾸는 교육복지놀이터
활동기간 : 2015년 5월~11월
활동대상

학교	활동가	활동 회차	비고
속초초등학교	3명	24회	
교동초등학교	3명	24회	
소야초등학교	3명	24회	



2015 시민문화 예술학교

속초문화원은 지역민 대상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시민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을 8월~9월 간 실시하였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 30명을 모집하여 ‘속초의 오래된 미래를 찾아’, ‘속초, 예술가와 함께하다’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지역에서 어떤 예술인들이 활동하는지도 알아보고 마을탐방을 통해 마을 중심의 교육을 병행하였다.

내년부터는 속초학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인 문화예술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수료자 중 지원자에게 문화매개자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사업명 : 2015 시민문화예술학교

일시 : 2015. 8. 18(화) ~ 9. 17(목) / 14:00-18:00 (5회)

장소 : 속초도농농요전수관 외

참가자 : 강사 6명, 속초시민(교육생) 30명



2015 학교문화예술 교육 '국악이랑 놀자'

속초문화원은 초등학교 대상 전통문화교육사업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2008년부터 주관하였다. 본 사업은 '북청사자놀이', '속초도리원농악', '속초도문농요' 등의 지역 문화자원과 국악 관현악 같은 다양한 국악 장르를 관내 6개 초등학교 및 중등풍물동아리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다채로운 공연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의 문화활동을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하여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 하였다.

국악심화교육

교육기간 : 2015. 3 ~ 12

내 용



학교명	담당교사	강좌명	지도 강사	인원	교육내용	비고
청호초등학교	김도연 황서구	북청사자놀이	김척익	30	통합교육	
			임희영		통소	
			정은영		클레이	
			신우근			
속초초등학교	홍금표	취타대	최재학	31	취타대 편성과 용고, 나각, 나발 교육	
			임희영		태평소 및 전체 진행	
청봉초등학교	전미옥	창극	김현섭	23	민요, 연희	
은정초등학교	정승희 이병구	도리원농악	임효건	37	도리원 농악 전반(가락), 소고 및 상모	
			박준영			
설악초등학교	서영선	속초도문농요	김부영	37	도문농요 및 농사놀이	
			유인혜			
			강금옥			
			허영희			
대포초등학교	김영지	국악관현악	박치영	51	국악관현악 편성 및 악기교육	
			권진주			
동아리활동		사물놀이	정호열	20	사물놀이	

제5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학생부 최우수상 수상

일시/장소 : 2015년 6월 7일 / 양양문화원

참가 학교 : 설악초등학교 속초도문농요

2015 속초양양 어울림 음악축제

일시/장소 : 2015년 10월 14일/속초문화회관 대강당

참가 학교 : 속초초등학교 취타대, 대포초등학교 국악관현악, 청봉초등학교 창극



2015 설악초등학교 꿈자람 발표회

일 시 : 2015. 11. 26 19:00 / 설악초등학교 설악관

대 상 : 설악초등학교 전교생 및 설악초등학교 속초도문농요

대포초등학교 국악 관현악 정기공연

일시/장소 : 2015년 11월 30일 /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참가 학교 : 대포초등학교 국악관현악

네트워크 활동

대상 :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학교 담당자 외

내용 : 본 사업의 발전과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 진행

회차 : 3회



청소년문화 예술교육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은 여름방학동안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청소년들의 인문학 소양을 쉽게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초·중·고등학생대상 2개 청소년문화강좌와 중·고등학생대상 문화캠프 등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문화강좌는 초등 1~3학년 대상 '영화야 놀자'와 초등 4~6학년 대상 '밥이 되는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여 창의성과 사회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인문학아카데미 캠프는 세 가지 인문학 강좌와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청소년 향유 문화프로그램의 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향유인원	진행강사	비고
여름방학문화강좌 '영화야 놀자'	7월28일~8월6일 13:30~16:00	문화사랑방	29명	2명	
여름방학문화강좌 '밥이되는 인문학 콘서트'	7월28일~8월6일 13:30~16:30		21명	5명	
청소년방학문화예술캠프 '청소년인문학아카데미'	7월28일~30일	속초도문 농요전수관	24명	7명	



청소년문화 전수교육

청소년문화전수교육사업은 지역 청소년들이 속초의 역사와 문화, 문화재 등의 향토사 교육을 통해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문화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하는 프로그램. 위스타트 속초마을, 속초시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학생들과 속초여자중학교, 설악여자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속초 지명이야기, 근현대사의 슬픔이 배어 있는 아바이 마을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郷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원은 향토사연구소위원, 문화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계층 대상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계획이다.

향유기관	향유인원	진행강사	회차	비고
속초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명	2명	20회	
위스타트 속초마을	30명	2명	30회	
속초여자중학교	60명	1명	11회	
설악여자중학교	60명	4명	12회	



2015 제50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설악제례는 설악문화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며, 속초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10월 3일 설악산신제(설악산 소공원)와 영신제(엑스포공원 제례당)를, 10일 송신제(엑스포공원 제례당)를 진행하여 다시금 전통 제례문화의 보전과 전승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5 설악제례 일정

제례명	일시	시간	장소
설악산신제	10월 3일	10:00~11:00	설악산소공원
영신(산신합동)제	10월 3일	16:00~17:00	엑스포공원 제례당
송신(산신합동)제	10월 11일	16:00~17:00	엑스포공원 제례당



2015 문화유적답사

속초문화원 문화가족들의 문화정체성을 일깨우고 문화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관외지역 문화유적답사를 올해 두 차례 진행하였다.

1차 답사는 4월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평화누리공원 일대를, 2차 답사는 12월 2일~4일 제주도 일대를 탐방하였다.



2015 문화유적답사

회차	일시	장소	참가인원
1차	4월 29일	경기도 파주 일대	40명
2차	12월 2일~4일	제주도 일대	40명



장릉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속초문화원은 장릉 속 오래된 앨범속에 간직한 사진을 찾아 우리지역의 생활사와 변화모습을 알아보고자 2010년부터 3년 간 장릉사진공모전을 진행하여 350여점의 사진을 접수받았다. 올해는 접수된 사진 중 수상작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장릉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문화회관 제1전시실, 속초시립박물관, 설악문화제 행사장 등에서 진행하여 지역사회 및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행사명 : 2015 장릉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행사내용

일시	장소	비고
5월 7일~11일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	
5월 12일 ~ 6월 28일	속초시립박물관	
10월 9일 ~ 10일	설악문화제 행사장	
11월 6일	평창문화예술회관	



문화이모작- 도문밥상 마당이 토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강원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15 문화이모작’에 선정된 ‘도문밥상 마당이 토크’는 상도문마을에서 주민들과 문화마을을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는 설악초등학교 학생들과 속초도문농요, 떡 만들기, 짚신공예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진행. 과정과정을 아카이빙한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안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했다.

사업명 : 문화이모작-도문밥상 마당이 토크

사업기간 : 2015. 10 ~ 12

활동내용



일 정		일 시	장 소
1회	학교 협의	10.02(금) 10:30~12:30	설악초등학교
2회	마을 회의	10.14(수) 18:00~21:00	도문농요전수관
3회	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 보물 만들기(떡만들기)	10.23(금) 09:00~11:00	상도문 영농조합법인
4회	도문농요 전수관 및 마을자원 산책(새참)	10.23(금) 11:00~13:00	도문농요전수관
5회	도문농요 공연(과정 설명) 및 소리 배워보기	11.02(월) 11:00~12:20	설악초등학교
6회	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 보물 만들기(짚신공예)	11.18(수) 14:00~15:40	설악초등학교
7회	평가회 및 홍보영상 시사회	12.01(월) 17:00~21:00	도문농요전수관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박무웅 속초문화원장

박무웅 속초문화원장은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한 공으로 11월 30일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윤광훈 이사

윤광훈이사가 3월 20일 속초시변영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정기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추대된 윤광훈 회장은 3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윤숙자 이사

11월 6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원문화대축전에서 윤숙자이사가 문화원발전 부분 유공자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장창근 회원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한 제11회 어촌·어항·어장 사진공모전에서 장창근 회원의 '미역줍기'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상복 이사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희망을 전해온 나눔과 희망의 주인공을 선정하는 행정자치부 2015 국민추천포상에 김상복이사(속초연탄은행 대표)가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은중 사무과장

2015 문화이모작 '도문밥상 마당이 토크' 사업을 진행한 김은중 사무과장은 전통예술자원을 활용을 통한 세대 간 소통을 촉진했다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제4회 장릉사진 공모전!!

- 사진 속 추억이 속초의 역사입니다.

속초문화원은 문화원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제4회 장릉사진공모전을 실시하였다.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02점의 사진을 접수받았다. 작품 대부분이 속초시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공감하는 작품이었다는 평이다. 속초문화원은 그 동안 진행한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속초시민 생활사를 구축하고, 올해에 호평을 받은 장릉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memorial picture
competition



금상_작품명:순국 5열사 묘 이장 참관

출품인:이춘복

촬영일:1961년

사진설명 및 선정이유

출품인이 1961년 속초중학교 3학년 때 사진으로 영랑호반에 안장되었던 5용사 묘를 유원지 개발로 보광사 옆 언덕에 이장한 참배식 사진이다. 이날은 속초중학교 학생과 속초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참관하였다고 한다. 유골을 전달하는 학생은 당시 학생회장 이었던 김승한, 키 작은 학생은 1학년생이었다.

5용사 묘는 후에 보광사에 안치되었고, 사진 속 장소는 아파트 공사중이다. 이 사진은 출품인의 속초중학교 제11회 앨범에서 복사한 사진이다. 원본 사진이 없는 점이 아쉽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기록가치가 뛰어나고, 출품인이 이 사진 외에도 약 30여점을 출품하며 1960~70년대 당시의 잃어버린 풍경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였기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5용사 묘의 기록

1951년 7월부터 개성과 판문점에서는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전선에서는 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전선에서의 전투와 동시에, 후방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비들이 잔악한 살상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산속에 근거를 둔 공비들의 활동은 1950년 말에서 1951년 봄에 걸친 강력한 토벌로 그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에 북한은 금강정치학원을 설치하여 공비를 양성하여 1952년부터 수백 명의 공비를 남파시켰다. 속초지역에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비들이 밤이면 마을까지 내려와 양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1952년 10월 영랑호 부근에서 5용사가 공비들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5용사는 이북에서 인민군에 의해 부모형제가 살해되고 재산을 수탈당한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공비를 격멸하기 위하여 영랑호 근처에 이르러 공비들과 접전하여 20여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납치됐던 양민들을 구하였다.

곧 이어 포위 공격해 오는 대부대의 공비들을 맞아 혈전을 감행하여 40여 명의 공비를 사살하는 전과와 함께 그들도 영랑호반에 잠들었다. 5용사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김덕범(함경북도) 지창하(함경북도) 이기구(함경남도)

김병선(평안북도) 김화수(평안남도)

속초 주민들은 5용사의 무덤을 영랑호 동남쪽, 보광사 남쪽 언덕에 만들었다. 그 후 이를 기리기 위해 1961년 8월 15일 순국 5용사 추모비를 세웠다. 비문에는 '1952년 10월 22일 영랑호반에서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반공 전선에 목숨을 바친 다섯 용사가 여기에 잠들었으니, 그 충의야말로 천추에 빛나리'라고 적혀있다. 속초시민들은 매년 10월에 5용사의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반공정신을 추모하였고 별초는 속초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당했었다. 1981년 4월 5일 유골을 화장하여 보광사에 봉안하였다. <속초시사 中>



은상_ 작품명: 쫓겨행사를 마치고
출품인: 석기동
촬영일: 1950년대 초반

사진설명 및 선정이유

영랑초등학교 학생들이 쫓겨대회 행사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모습의 사진이다. 사진 속 거리는 현재 동현 아파트 앞 7번 국도 옆 길로 멀리 야산 옆에 속초등대가 있다. 사진 속 넓은 도로는 현재는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이 되었다. 지금은 보기 힘든 일본풍 이층 주택의 모습과 오른편 도랑, 작은 다리의 모습이 이채롭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왼편 주택 중 한 채는 아직도 그 골격이 남아 있다고 한다. 앞으로 영랑동 일대 마을 조사를 통해 영랑시장과 과거의 건물, 그곳에서 살았던 이들의 구슬을 기록하며 보충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은상_ 작품명:속초해수욕장에서

출품인:김일태

촬영일:1971년

사진설명 및 선정이유

1971년 8월의 어느 여름. 당시 부월리 바닷가에 이종사촌들이랑 함께 해수욕을 즐기던 중 한컷 찍은 모습이다. 멀리 외옹치가 보이는 이 사진에서 현재 속초해수욕장의 좁은 모래사장을 비교하면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당시 어린이들에게 수영복은 사치였을 것이다. 저렇게 고추를 드러내놓고 한나절 놀아도 해는 왜그리 빨리 지는지 몰랐다고 한다. 출품인은 장릉사진공모전 출품을 위해 장릉 속 깊이 묻어 두었던 추억을 꺼낸 후 이제는 자주 만나기 힘든 이종사촌들을 떠올렸다고 한다. 상금이 나오면 속초에 살지 않는 사촌들에게 앵미리 한박스씩 선물을 하겠다고 한다. 장릉사진공모전이 개인의 삶에 작은 파문을 던지며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힐링의 순간임을 증명하는 순간이다. 심사위원들은 출품인의 또 다른 작품인 '외설악초등학교' 교정 사진의 의미도 큰 만큼 출품인에게 은상을 수여하기로 한 후, 장릉사진공모전의 성격에 맞는 이 작품을 대표작품으로 선정하였다.



동상_ 작품명:속초시 반공 퍼레이드 경연대회

출품인:최미자

촬영일:1968년 3월 21일

사진설명 및 선정이유

출품인이 속초여고 2학년 때 참가했던 가장행렬 모습 중 속초여고에서 출발할 당시의 모습이다. 당시 가장행렬은 속초시 주최로 개최되었는데 주제가 ‘반공’이었다고 한다. 속초여고는 괴뢰군에게 고통받는 북한주민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전체 1등을 했다고 한다. 사진 속 괴뢰군 복장은 군복을 빌려서 학생들이 직접 코스프레 하듯이 만들었다고 한다. 속초시 주최의 이 행사에는 속초여고와 속고 등 학생들은 물론 일반 시민도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출품인의 이 사진 외에도 당시 시내를 질주하는 거리 퍼레이드 사진도 시대의 풍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동상_ 작품명: 영금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출품인: 김용갑

촬영일: 1970년

사진설명 및 선정이유

사진기 앞에 선 학생들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근육을 자랑하는 친구들, 매섭게 사진기를 노려보는 친구들, 햇살에 눈이 따가운지 실눈을 뜨며 못마땅한 듯 바라보는 친구들. 속초 바닷가에 살던 지금의 50대 이상은 이런 사진 하나쯤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사진이 없더라도 동네친구들과 떡을 감던 그 시절의 추억이 선명히 인화될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영금정 바위 위에 있는 솔단지에 웃음을 보냈다. 어설플 솜씨로 섭죽을 끓여먹으며 종일 바닷가에서 놀던 기억 때문이다.



가작 _ 고인선 (죽마고우)



가작 _ 김일태 (추억의 교정)



가작 _ 김종규 (속초중학교 제1회 졸업기념 사진)



가작 _ 남인영 (설악산에서)



가작 __ 석기동(영랑공립초등학교 제 1회 졸업기념)



가작 __ 최미자(보광사에서 보트대여)

특집 1

속초지역 아리랑 전승현황
| 장정룡

청초호의 정자
| 정상철



속초지역 아리랑 의 전승맥락과 특 성분석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

1. 머리말

아리랑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민요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인에게 ‘쌀’과 같은 아리랑은 그 전승이 다양하고 지역성으로 반영하여 다채로운데, 속초지역에서도 당연히 아리랑이 전승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속초 도문메나리농요는 2007년에 강원도무형문화재 20호(보유자 오순석)로 지정되었다. 이것은 속초 도문동 지역의 전승농업노동요인 메나리의 특징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¹⁾

전형적인 노동요인 메나리 농요와 함께 유희요인 아리랑은 속초지역에도 그 전승이 확인되고 있으며,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당에 아리랑의 속초전승에 대한 본격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80년 전인 1935년 일제강점기에 채록된 민요집에는 ‘설악

1) 강원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2013년도 종합업무계획』, 2013. 101쪽, 속초도문농요 제20호 (2007.2.23.) 보유단체:속초도문농요보존회(2008.3.21.), 보유자:오순석(남.40.1.12), 교육조교:오명현(남.43.3.16), 최도수(남.43.2.8), 전수장학생:이상욱, 오영자, 박원규, 김환기, 허영희, 김동연

산' '의상대' 등의 가사가 등장하고 있으며, 괴나리봇짐을 지고 중국 북간도로 떠났던 설악권 주민들의 한스런 노래에서도 아리랑이 불러졌다.

그동안 간헐적인 조사에서 속초에서 불린 아리랑 자료가 수집된바 있으나 그 양은 많은 편이 아니다. 현재까지 구전하는 정선아리랑은 4,993수이고 음반에 수록된 가사도 510수에 달한다.²⁾ 속초지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은 '동해안아리랑' 또는 '설악권아리랑'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본고는 필자가 수집채록한 아리랑의 속초지역 전승현황과 가사의 향토적 토착성과 문예미를 살펴보고자 한다.³⁾

2 아리랑의 속초전승과 가사의 향토성

동해바다와 산촌을 끼고 있는 속초지역의 어로요나 도문메나리 농요 등과 함께 속초아리랑의 전승이 확인된다.⁴⁾ 김지연은 일찍이 아리랑의 기원과 종류 21종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양양아리랑이 포함되어 있다.⁵⁾ 따라서 당시 양양에 속했던 고성과 속초지역 아리랑의 존재가 확인된 셈이다. 또한 29종으로 분류한 아리랑에도 강원도아리랑, 고성아리랑, 정선아리랑, 춘천아리랑, 정선아리랑 등 강원지역 아리랑 4종이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강원도아리랑 또는 동해안아리랑 민요군으로서 고성아리랑의 전승양상과 향토적 위상은 일찍부터 확고했음이 증명된다

우리민족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민요 아리랑은 오래전부터 방방곡곡에 전파되는 행적에서 그 시대, 그곳 인민들의 기질과 애호, 민요적 전통, 생활풍속 등의 차별에 따라 지방적 특색을 띠어 많은 변종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수집되고 정리된 주요한 전통적 아리랑의 변종들을 헤아려보면 아래와 같다. 강원도아리랑, 원산아리랑, 밀양아리랑, 영일아리랑, 하동아리랑, 정읍아리랑, 공주아리랑, 안주아리랑, 배양아리랑, 남원아리랑, 청주아리랑, 량강도아리랑, 고성아리랑, 평안아리랑, 긴아리랑, 정선아리랑, 세산아리랑, 서울아리랑, 구례아리랑, 진도아리랑, 경상도아리랑, 곡산아리랑, 순창아리랑, 창녕아리랑, 춘천아리랑, 서도아리랑, 단천아리랑, 영천아리랑, 삼아리랑⁶⁾

민요 아리랑은 오랜 세월 우리 인민들의 사랑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는 과정에 지방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종들이 생겨났으며 전국적으로 하나의 민요군을 이루었다. 아리랑은 평안도의 <서도아리랑>, 강원도의 <강원도아리랑> <고성아리랑>, 함경도의 <함경도아리랑> <단천아리랑>, 경상도의 <밀양아리랑>, 경기도의 <긴아리랑>, 전라도의 <진도아리랑> 그밖에 <영천아리랑> <정선아리랑> <삼아리랑> 등 적지 않은 변종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내용에는 거의 모두가 사랑의 감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버리고간 님에 대한 애정과 원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⁷⁾

2) 진용선 편, 『정선아리랑 가사사전』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4

3) 본고는 필자의 원고 「속초아리랑 전승가사 현황과 내용분석」(속초민예총세미나 자료, 2014.6.14.)를 수정 보완하였다.

4) 장정룡, 「속초시 도문메나리농요의 전승」 『속초문화』 제22호, 속초문화원, 2006. 72~133쪽

5) 金志淵, 「朝鮮民謠아리랑」 『朝鮮』 152호, 1930년 6월호 40쪽 참조,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宣明文化社, 1974, 378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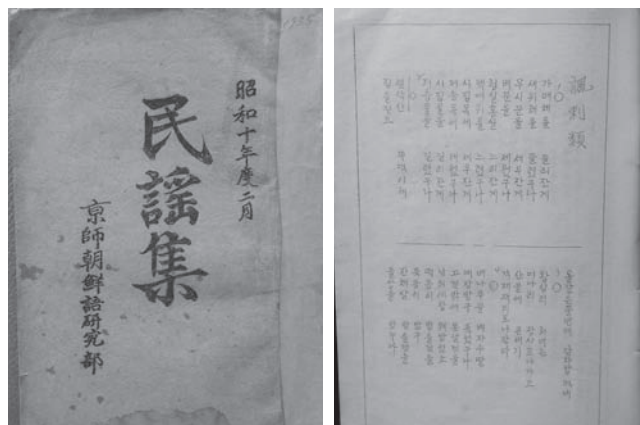
6) 조성일, 『민요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983, 166~167쪽

7)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예술교육출판사, 1992, 191쪽

강원도 북쪽은 함경도민요가 불리워졌고 서쪽으로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요들이 불리워졌으며 남쪽으로는 경기도와 경상도의 민요들이 불리워졌다. 바로 이러한 지대적 특성으로 하여 이 고장의 민요들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시원스럽고 흥취나는 민요들이 많다. 그런가하면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통천아리랑> <고성아리랑> 등을 비롯하여 아리랑이 가장 많은 지대의 하나이다. 그리고 <회양날니리>와 같은 춤곡에 가사를 달아 부르기도 한다. 더욱이 강원도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안고 있는 지대이므로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광객들이 그칠 새 없이 찾아오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각 지방의 각이한 민요들이 불리워졌던 탓으로 노래의 빈곤을 모르던 곳이다. …<강원도아리랑> 과 <고성아리랑>, <정선아리랑>과 <통천아리랑>을 비롯하여 아리랑이 많은 강원도는 민요가 많은 지방이다.⁸⁾

조선민요를 지역과 지방별로 대별해보면 크게 다섯 개 지역 즉 서도민요, 동해안민요, 중부민요, 남도민요, 북방민요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지방적 특색이 민요의 음조, 양상, 선율적 색깔에 확연히 반영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민요아리랑도 전국적으로 매 도 마다에서 창조되고 지역적으로 크게 서도아리랑, 중부아리랑, 남도아리랑, 함경도와 강원도 아리랑, 영남아리랑으로 나누어지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지역민요의 음조와 양상, 향토서정민요로서의 특색을 가지게 된다. …아리랑은 지방, 지역별로 창조 전승되면서 제각기 자기고장의 이름을 달아 명명되어 온 것만큼 생활내용과 풍토·문물·인정 등에서 향토적 색채가 농후하고 이채롭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 안주·송림·곡산 등 <서도아리랑>이 특색 있는가 하면 단천·온천·어랑을 위시로 하는 <함경도아리랑>, 원산·고성·양양을 포괄하는 <강원도아리랑>, 중부지방의 <서울아리랑>을 비롯한 <경기도아리랑>, 영남지방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밀양·창녕·문경아리랑과 남도지방을 포괄하는 영일·진도·남원·순창·영천 등 수많은 아리랑이 향토정서적 색채가 뚜렷하다.⁹⁾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같이 누구나 고생 끝에 낙이 와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힘들게 오른 산의 정상에 집을 지었고, 농사는 풍년이 되었건만 감자밥을 면하지 못하는 민중들의 삶이 지난함을 풍자한 것으



8) 최창호, 『민요따라 삼천리』 평양출판사, 1995, 288-293쪽

9) 최창호, 『조선민요의 세계(하)』, 평양출판사, 2002, 163쪽2) 진용선 편, 『정선아리랑 가사사전』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4

로 파악된다. 이러한 아리랑의 풍자적 양상은 경관 좋은 ‘설악산’을 가사로 인용한 점이 독특하다. 또한 강원도의 상징인 ‘감자밥’이 등장한 것도 이 민요가 강원도와 속초지역을 배경으로 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민요를 속초아리랑의 전승적 범주에 넣어도 무방하다.

설악산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산으로서 전설이나 기행문, 회화, 사진 등 여러 측면에서 자원화가 가능하다.¹⁰⁾ 설악산 아리랑가사도 실향민 문화와 함께 속초지역 전통문화자원화가 가능할 것이다.¹¹⁾ 속초 지역에서는 속초아리랑보존회(회장 김부영)가 결성되었으며, (사)민예총 속초지부를 중심으로 설악산 아리랑 음반이 제작되어 배포되고 각종 행사에서 설악산아리랑이 불리고 있다.¹²⁾

1. 설악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올같은 풍년에 감자밥먹네
2. 공수레공수거러 빈손빈몸 왔다가 천만년을 살줄알고 고생고생 살았더니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냉겨주게(후렴 이하 생략)
3. 등잔불 밑에다 술한상 놓구서 단둘이 앉아서 합반주 합시다
4. 한잔먹고 두잔먹고 또 한잔먹고 목마르고 갈증나는데 또한잔 먹세
5. 노르래 놀아라 젊어만 놀아라 늙어야지면은 아이구야 못놀겠구나
6. 간데여 쪽쪽이 정들어나놓고 이별이야 찾아서 나는 못살겠구나
7. 물결은 출러렁 뱃머리 울러렁 그대당신은 어디루갈려고 이배에 올랐나
8. 줄듯말듯 안주는저처녀 총각심정을 아느냐 삼오십오 열다섯에 모발이 덜컹쉬거러
9. 늘민령 서둘기 헤루하 돈만같다면 우리네 친구를 못살퀴주나
10. 우리나라 부모가야 나를야 곱게길러서 어드메다가 줄때가 없어서 이곳에 찻나
11. 백발보고 웃지마소 덧없이 가는세월 년들아니 늙을소냐 난들아니 늙을소냐
12. 만반지수를 차려놓고 빌어보면 아니올까 초로같은 우리인생 일장춘몽 꿈이로구나
13. 설악산 산매미가 금전이라면 삼천만 우리동포가 먹구씨구 남네
14. 노랑저고리 자진고름에 눈물이 달달골고요 니탓이나내탓이나 중신애비탓이라
15. 물안골 고개다 좁쌀을 뿌렸더니 소쩍새가 다파먹고 조잇대만 간들간들
16. 삼팔령 이남은 왜 갈라놓고 보고싶은 부모자식을 못보고사나

[빠른박]

1. 아리랑여 고개는야 열두나고개지 우리님야 만나는 고개는 한고개도 없네
2. 아들딸여 날나고야 산제불공을 말고 날같은야 여자들야 팔세를마라
3. 여기오신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고 집집마다 하시는 일이 소원성취하소서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냉겨주게

10) 장정룡,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고찰」 『속초문화』 제24호, 속초문화원, 2008 72-91쪽
장정룡,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고찰」 『속초문화』 제25호, 속초문화원, 2009. 57-76쪽
장정룡, 「설악산 영문 기행일기와 설악동인계 고찰」 『속초문화』 제29호, 속초문화원, 2013. 60-81쪽4) 장정룡, 「속초시 도문메나리농요의 전승」 『속초문화』 제22호, 속초문화원, 2006. 72-133쪽

11) 장정룡, 「속초전통문화의 관광자원 방향과 전략」 『속초문화』 제21호, 속초문화원, 2005. 58-83쪽
장정룡, 「실향민문화의 콘텐츠화」 『속초문화』 제23호, 속초문화원, 2007. 57-76쪽
장정룡, 「속초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발전방안」 『속초문화』 제26호, 속초문화원, 2010. 94-125쪽

12) 장정룡, 「속초아리랑의 전승적 특징과 이해」 속초아리랑 음반자료집, (사)민예총 속초지부, 2015년



속초아리랑의 실존은 속초지역에 거주하는 차중용, 박계량, 김순녀, 최월선 씨 등이며 모두 70세 이상 고령의 여성들이 2002년에 가창한 60수의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이를 보면 속초아리랑이 민간가창자들에 의해서 불려진 것은 최소 80년 이상으로 비교적 오래되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사실상 속초아리랑은 강원도 아리랑자료집에도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¹⁵⁾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고성촌, 조양촌(조선양양촌), 강원촌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고성아리랑, 양양팔경가 등이 전승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1935년 발간한 경성사범학교 민요집에 설악산과 양양 의상대가 나타나고, 양양과 고성아리랑은 1980년대 조사자료와 중국 조선족 민요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1950년대까지 양양군에 일부가 속했다.¹⁶⁾

[자료1] 설악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올같은 풍년에 감자밥 먹네
 (1930년, 경성사범학교 조선어연구부, 민요집)

[자료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아리랑 고개자축을 날넘게주게(후렴)
 당사실로 멧힌거는 바늘로나 풀지요
 요내속 멧힌 거는 뭐로 푸나요

[자료3] 남포야 등잔아 불밝히라 버렸던 낭군님 다시보자
 일구야 월심에 환하던 얼굴이 본 것이 화근이요

15) 박敏一, 『江原道 아리랑』 춘천문화원, 1993
 진용선, 『강원도의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02
 16)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146쪽

- [자료4] 등잔불 밑에다 술한상 놓구서
단들이 앉아서 합환주 합시다
- [자료5] 산천초목이여 불붙은거는 만인간이나 꺼주지
요내 속에야 불붙은거는 어느 누가 꺼주나
- [자료6] 삼팔령 이남은 왜갈라나 놓구
보고싶은야 부모자식은 못보고 사나
- [자료7] 무정한 산천초목아 말 물어보세
임이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무덤이나 되나
- [자료8] 아들딸을 못놓고야 산제불공을야 말고
날같은야 여자들야 괘세를 마라
- [자료9] 아리랑 고개는야 열두나 고개지
우리님야 만내는 고개는 한고개도 없네
- [자료10] 산이나여 높아야지 골골이나 짚지
조꼬만야 여자속이나 얼마나 깊너
- [자료11] 우리나라여 부모가야 나를야 곱게 길러서
어디메다가 줄데가 없어서 이곳에 찼나
- [자료12] 참나무여 즈내기여 쓰러진 곳에
우리집야 삼동세가나 나물캐러가세
- [자료13] 갈철인지 봄철인지야 나는야 몰랐더니
뒷동산에야 진달래꽃이나 나를 알귀주네
- [자료14] 시집살이여 못하면 고리짜질만 하였지
줄담배 아니먹고 나는 못살겠네
- [자료15] 우리나라여 부모가 와다시를야 기를제
업어등등 안어등등 나를길러 찼다네
- [자료16] 간데여 쪽쪽에 정들여나 놓고
이별이야 찾아서 나는 못살겠구나

[자료17] 고향은야 정꿍어 타향이나야 되고야
타향은야 정들어 내고향이 되는구나

[자료18] 이십살여 안쪽에 본가장을 잃고서
십오야 지등을 나가야안고 도느냐

[자료19] 산두여 높어야 골이나야 깊지
죄꼬만 열다섯 니가야 얼마나 깊느냐

[자료20] 우리어머니여 울아버지가 내나를 기를제
진자리 마른자리 다골러 키웠네

[자료21] 하던내여 살림살이를 어느내 누게다 믿고서
소방산 대틀에 누워서 가느냐

[자료22] 철러덩철러덩철러덩닭 몸보신할려고 먹었더니
시어머니야 잔소리 사대나 절골이 녹는구나

[자료23] 산천이여 파룻파룻야 가신던님이
백설이야 휘날려도 왜아니야 오느냐
(차중용, 여.85, 속초시 노학동 노리, 2002.7.20., 장정룡 조사)

[자료24]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후렴)
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앞동산야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준다

[자료25] 강물은 돌고돌아 바다로 가련만
요내몸은 돌고돌아 어디로가나

[자료26] 억수장마할라는가 저산밑 검은구름이 다모여든다
아리랑 고개고개로 또넘어간다

[자료27] 산천어 초목은 봄마중 젊어만지는데
우리야 인생은 한번 젊어지질 못하네

[자료28]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우리님이 가시던 곳이라 뒤돌아보았네

- [자료29] 노르래 놀아러 젊어만 놀어라
늙어지면은 아이구야 못놀겠구나
- [자료30] 산에는 산신령 까마귀는야 깍깍짚고
우리님 병세는 아구야 짚어가는구나
- [자료31] 청천하늘에 아구야 잔별도 많고
요내야 가삼에는 왜요리 수심도 많느냐
- [자료32] 청천강수 흐르는물은 범사정으로 돌고
평양에 기생은 한양으로만 돈다
- [자료33] 석탄백탄 타는거는 삼천만 동포가 알건만
요내가슴 타는건 한푼의 님도 모른다
- [자료34] 산간에 초목은야 구시월 단풍에만 늙고
우리같은 여자몸은 살림살이에 늙노라
- [자료35] 스스레 북망이 아구야 뭐그래좋아
꽃같은 날버리구 아구야 돈벌러갔느냐
- [자료36] 돈그리워 죽은것은 은행소 복판에 묻고요
임그리워 죽은것은 신작로 복판에 묻어라
- [자료37] 산이나 고와서 아구야 뒤돌아보았너
임같은 골싱에 뒤돌아보았네
- [자료38] 치매폭에 싸인거는 양골년이고
치매꼬리 싸인거는 먹구야놀자는 경매주다
- [자료39] 천길에 만길에 똑떨어져 살어도
병든님 떨어져 아구야 못살겠구나
- [자료40] 늘민령 서둘기가 어루화 돈같으면
어느네 친구를 내가나 못살귀주겠나

[자료41] 물각은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
요내몸은 어찌하여 임자가 없나

[자료42] 눈이올라나 비가 올라나
저산밑에 검은구름이 다모여드네

[자료43] 산이야 높구야 골이나 깊지
여자야 속이야 얼마나 깊으겠너

[자료44] 산이나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임과 싶어 혹시래 뒤돌아보았네

[자료45]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매주라

[자료46] 뒷산은 푸를청자요 앞산은 봄춘자라
굽이굽이 내천자요 가지가지는 봄빛이라
(박계량, 여.80, 속초시 도문동, 2002.5.26., 장정룡 조사)

[자료47] 물안골 고개다 좁씨를 뿌렸더니
쏘쩍새가 다파먹고 조잇대만 간들간들

[자료48] 늘민령 큰서둘기 돈만 같으면은
술한 건달들 다 잘사귄터인데

[자료49] 노랑저고리 앞섶에 기화자도장 찍구여
니탓이나 내탓이나 중매재이 탓이로다

[자료50] 간다온다 간다더니 왜왔나
이왕지사 왔거든 발치잡이나 자고가게

[자료51] 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
조끄만 여자속이야 뭐그리 깊은소나

[자료52] 갈길이 멀어서 택시를 탔더니
되지못한 운전수가 연애만 하잔다

[자료53] 일본동경이 뭐그리 좋아서

꽃같은 날버리고 연락서 타느냐

[자료54] 난물이 들었네 난물이 들었네
이산저산 도라지꽃에 난물이 들었네

[자료55] 기사머리 가려거든 혼자나 가지요
아까운 청춘을 왜데려가느냐

[자료56] 와다시나 실가라 타래가 났구야
울어야만 마수노키대 샘이야 났구요

[자료57] 간다고 못간다고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장 대합실이 한강소가 되었네

[자료58] 울넘어 담너머 끝베는 총각아
눈치가 있거들랑 외반어 먹어라

[자료59] 나는야 언제나 남가가 되어서
진세로 양복에다 네꾸다이 매보나
(김순녀, 여.70, 속초시 도문동, 2002.7.13., 장정룡 조사)

[자료60]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뱀계주소(후렴)
만첩산중에 호랑나비는 말그물이 원수요
우리야 시체청년은 보복대가 원수라

[자료61] 임자당신은 어데로 갈라고 신발단장하오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최월선, 여.77, 속초시 영랑동, 2002.7.4. 장정룡 조사)

속초 설악산과 양양 의상대를 배경으로 불린 1935년에 채록된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전체 아리랑이 1920년대 나운규의 편곡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 비해서 그 존재조차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로 속초 설악산, 양양 의상대를 노랫말로 사용한 아리랑과 함께 일제강점기인 1930~40년대 중국 북간도로 이주한 강원도 고성출신들이 부른 고성아리랑과 강원도 아리랑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지금도 불리고 있음을 밝혀냈다.¹⁷⁾ 또한 신민요로 불린 양양팔경가도 중국 조선족 사회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전승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볼 수 있다.¹⁸⁾ 지금도 중국 조선족

17) 장정룡, 『중국고성촌 이주사연구』 고성군, 2013, 김병학 채록편저, 『재소 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1,2, 도서출판 화남, 2007

집거지구에는 강원촌, 춘양촌, 고성촌, 양양촌 등 강원지역명을 딴 마을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악권아리랑’의 전파론적 추적도 향후 수행할 연구과제라 하겠다.¹⁹⁾

참고로 명산 설악산을 주제로 한 1950년대에 무암 박일호 씨가 작사한 ‘설악산노래’와 설악산기행 시조가 창작된바 있다.²⁰⁾ 신민요와 시조로 불린 설악산 노래처럼 속초아리랑도 지속적인 가사창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²¹⁾ 정선과 평창아리랑의 가사집이나 가사사전 등이 좋은 예가 된다.²²⁾

[설악산노래] 박일호 작사



〈속초아리랑 보존회 공연모습〉

설악산 보고지고 천리를 찾았더니,
푸른산 붉은잎이 옥류끼고 미소짓네
어즈버 세상풍류 다버리고 너와함께 살리라

설악산봉 높은구름 이내마음 실어다가
한양성중 지날적에 우리님을 만나거든

18) 장정룡, 『중국 길림성 양양촌의 이주생활사』 양양문화원, 2012

19) 장정룡 외, 『재중강원인 생활사 조사연구-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강원발전연구원, 2006

20) 이 노래는 1950~60년대 불린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어렸을 때 박일호 씨를 만난 기억이 어렵듯이 난다. 설악산 노래를 즐겨 불렀으며 설악산을 사랑하며 설악에 살았던 분이다. 이 노래는 당시에 만든 설악산 기념 펜넬트에 적힌 내용이다(속초시립박물관소장). 이외에도 대중가요로도 여러 편이 불렸다. 참고로 김부자와 하춘화가 1975년에 부른 설악산노래를 소개한다.〈관동팔경 설악산〉(1975, 김부자 노래) 설악산 푸른봉은 구름헤쳐 솟아있고, 비단같은 폭포수는 하늘까지 이어졌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나 좋을시고, 관동팔경 어드멘고 설악산이 예아닌가. 귀면암 가을단풍 석양같이 붉게 타며, 후세떠난 비선대에 선녀들이 춤을추고,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나 좋을시고, 관동팔경 어드멘고 설악산이 예아닌가, 울산바위 소금강은 천하명산 자랑하고, 신흥사 종소리는 국태민안 빌고비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나 좋을시고, 관동팔경 어드멘고 설악산이 예아닌가, 〈설악산메아리〉(1975.6월, 김형인 작사, 하춘화 고훈산 노래, 지구레코드사) 흰구름덮힌 설악산으로 그대와, 손잡고 휘파람 불면서 하이킹가자, 진달래 철쭉꽃 우리를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레이호, 산메아리 들려온다 사랑노래 들린다. 시원한 폭포수가 노래를 합창하면, 오색의 무지개핀다 그대와 손을 잡고, 설악산 찾아가는 즐거운 청춘하이킹, 형제봉으로 마등령으로 즐거운 하이킹, 콧노래도 흥겹게 설악산 가자, 에델바이스가 우리들을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레이호, 산새들이 노래한다 흰구름이 떠있다, 금강산 찾아가다 설악산 봉우리된 전설의 울산바위로, 발걸음 가벼웁게 비선대 찾아가는 즐거운 하이킹”

21) 『정선아리랑창작가사집』 2013년 정선아리랑전수관 가사짓기교실, 정선군, 2013

22) 장정룡, 이한길, 『평창아리랑가사집』 평창군, 2005, 진용선 편, 『정선아리랑가사사전』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4

연분홍 치마폭에 그린마음 안겨주오

술보다 담배보다 어여쁜 아가씨가
아무리 좋다한들 대자연의 설악만은 못하더라
설악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땀방울에 씨앗이라고 말해주세요

[鳳頂菴別曲]²³⁾

雪嶽(지금 설악산)이 아니라 벼락이요
求景이 아니라 苦境이요
鳳頂이 아니라 難頂이라
[설악산 기행시조]²⁴⁾

일컫한 설악산을 와서 반가운데
세속이 범람하니 참아보기 괴로워라
언제나 본연 그대로 마주보고 싶구나(설악산)

넓은 바위 깨끗한 물소리치며 흐르는데
그 옛날 노던 신선 지금은 간곳없고
깨끗한 물 넓은 바위 맑은 바람뿐이로다(비선대)

용이 살든 푸른 못물 용이 오른 세찬폭포
이 장관 무어두고 구름타고 어델갔나
설악산 기이한 풍경만 용의 조화로 남아있네(비룡폭)



23) 金昌祿, 「嶺東地方의 民謠考察」 『文湖』 創刊號,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0, 96쪽 “李朝時代 鄭澈이가 역적이 난다고 해서 인제군 북면에 있는 봉정암에 穴을 지르러 왔다가,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靈靈이 일어남에 정철이 중얼대고 血을 지르지 못한 채 돌아갔다 한다.”

24) 崇山 지음, 『圓光』 제60호, 원불교교단기관지, 1968년 7월

3. 아리랑의 속초전승과 특징분석

속초아리랑의 가장형태는 나물 캐면서 메나리조로 부르는가 하면, 어랑타령에 맞추어 흥겹게 모임에서 부르기도 한다. 속초지역 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며, 일본어나 일본지명이 등장하는 것에서 일제강점기에도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속초아리랑의 특징은 노랫말 즉 가사의 변별성을 찾을 수 있다. 속초의 지명이 등장하는 노랫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이다. 이외에도 늘민령, 물안골, 삼팔령 등 지명이 등장한다. 둘째는 자연에 의탁하여 자신의 심정과 생활상, 정한 등을 토로한 내용이 많다. 이것은 산과 계곡 등 설악산을 끼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노병사, 나물캐는 여성들의 삶 등에 대한 정서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설악산과 같은 명산승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이채로운 민요의 면모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뜻은 일찍이 강조되었다.²⁵⁾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전설의 鄉이요, 신비의 鄉이요, 시의 鄉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오는, 굴지의 東邊의 雄道라고 볼 것이다. 즉 本道는 내외의 금강산을 비롯하여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奇絶莊嚴하면서도 淸遠幽深한 기상을 드러내고 있는 명산승지가 도처에 벌여져 그 아름다운 자태아말로 海內外 列邦에서도 그 짝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신비경역을 배경으로…여기에 따르는 사적, 민요 및 향가와 시가문학의 자취가 외부세계에 그 빛을 발휘시키고저 하는 면에서 현존 민요를 더욱 연구발전시킴으로써 이채로운 면모를 나타낼 것이라고 본다.

속초아리랑 가사 가운데, “산천초목이여 불붙은 거는 만인간이나 꺼주지/요내 속에야 불붙은 거는 어느 누가 꺼주나”라는 내용이 있다. 속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을 산천초목에 붙은 불에 비유하고, 이를 아리랑에 의탁해서 한탄의 감정을 노출한 것이다. “산간에 초목은야 구시월 단풍에만 늙고/우리같은 여자몸은 살림살이에 늙노라”고 하여 산천에 빚대어 단풍처럼 살림살이에 늙어가는 자신의 노쇠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청천하늘에 아구야 켜별도 많고/요내야 가삼에는 왜요리 수심도 많느냐”고 하늘에 빚대어 수심많은 자신을 표출하였고 “참나물여 즈내기여 쓰러진 곳에/우리집야 삼동세가나 나물캐러가세”고 ‘참나물’ ‘즈내기’라는 설악계곡 산나물이 등장한다.

세 번째는 사랑과 정한에 얽힌 가사들이 많다. 사랑은 영원불변의 이야기이다. 속초아리랑도 마찬가지이다.²⁶⁾ 속초아리랑에서는 “무정한 산천초목아 말 물어보세/임이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무덤이나 되나”고 그리움의 정한을 죽음과 연관지어 나타냈다. “돈그리워 죽은것은 은행소 복판에 묻고요/임그리워 죽은것은 신작로 복판에 묻어라”고 하여 돈과 임을 동가적(同價的) 위상에 놓고 있다. 가난과 그리움은 숨길수록 안타깝게 더 드러난다.²⁷⁾ 아리랑시원설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리오”라는 ‘알리오 어원설’이 존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²⁸⁾

네 번째는 정선아리랑의 일정한 영향을 받은 가사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아리랑의 권역에서 정선지

25) 金昌祿, 『嶺東地方의 民謠考察』 『文湖』 創刊號,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0, 88쪽

26) 김한나, 『아리랑 가사에 나타난 이성문제』 강릉원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에서는 ‘사랑고백과 이성교제, 이별 및 그리움, 성 인식과 표현’ 등으로 이성문제를 다루었다.

27) 박춘명, 『아리랑의 연원과 민족적 정서』 『조선문학』 12집, 2001, 71쪽 “여러 가지 아리랑의 발생설을 종합하여 보면 불우한 사회적 처지, 서글픈 생활감정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리랑고개는 어디까지나 생활체험과 민족적 정서를 반영한 가상적인 고개이다”

28) 김연갑, 『아리랑시원설연구』 명상, 2006, 16쪽

29) 『旌善의 鄉史』 정선군, 1981, 82쪽 “산천이 고와서 되돌아 봤나/임자당신이 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봤지”

역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선아리랑 대표가사와 같이 “눈이올라나 비가 올라나/저산밑에 검은구름이 다모여드네”라고 부르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계주게/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앞동산야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준다” 고 하였다. 또한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보았나/우리님이 가시던 곳이래 뒤돌아보았네”라고 했듯이 이들 노랫말도 정선아리랑에 자주 등장한다. 산천은 정선이나 설악권 산천이 노래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같은 개념화로 차용한 것이다.²⁹⁾

다섯째, 속초아리랑은 강원도 아리랑가운데, 설악권아리랑, 동해안유역권아리랑에 해당한다.³⁰⁾ 특히 자진아라리가 많이 불리고 있으며 바다를 접하고 있어 해안을 따라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북강원과의 관계도 주목된다.³¹⁾ 속초아리랑은 넓은 범주에서 슬프고 애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음조인 계면조(界面調)로 불리는 강원도 민요권역에 속하며³²⁾ 동시에 속초아리랑은 시김새가 강조되는 정선아리랑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³³⁾ 아리랑과 메나리는 속초지역에 전승된 중요한 전통민요로 평가받을 수 있다.



30) 강원지역 아리랑권역 중에서 동해안유역권은 강릉·고성·동해·삼척·속초·양양 등 6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총 937수가 수집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 아리랑 전체 3,516수에서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속초지역은 51수로 비교적 적다. 유명희, 「아라리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55쪽 참조

31) 유명희, 「아라리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119쪽

32) 박춘식, 「강원도 민요의 조식과 음조적 특성」, 『조선예술』, 문학예술출판사, 2009, 78쪽 “강원도 민요는 그 대부분이 ‘라계면조와 ‘미’계면조에 기초하고 있어 다른 지방의 민요들에 비하여 전반적 음악형상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처량한 정서적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강원민요에는 장식적 굴림음조를 많이 쓰고 있다.”

33) ‘시김새’는 선율을 이루는 굴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임무를 띤 장식음 또는 음길이 [時價] 가 짧은 잔가락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선율선(旋律線)이나 절주(節奏 : 리듬)의 자연스런 연결이나 유연한 흐름을 위하여 또는 화려함과 멋스러움을 위하여 어느 음에 부여되는 표현기능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식음(飾音)새, 또는 시금새로도 부른다.

4. 맺음말

속초는 필자가 태어난 곳이다. 부친은 한국전쟁 때 월남한 피난민이었다. 이른바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디아스포라의 행적을 통해서 속초가 피난민의 고향이 되었다. 이곳의 많은 주민들은 고향을 잃은 실향민으로서 남북이산가족만남이라는 어쩌다가 이뤄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자족해야 한다. 실향민들에게 속초의 삶은 곧 아리랑고개와 같은 간난신고의 현재상이었다. 속초아리랑이 아바이마을이라는 국내 최대의 난민촌인 청호동을 왕래하는 깃배처럼 희망으로 불렸으면 한다.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한국의 아리랑이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정선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아리랑의 속초지역 전승자료는 강원동해안권역에 속하는 아라리계통으로 보고 있으며 필자에 의해 수집 정리된 가사는 60여수에 해당한다.

본고는 61수를 대상으로 속초아리랑의 전승맥락과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속초에 전승되는 아리랑은 향토지리적 특성을 띤 것과 자연과 생활, 애정과 정한 등의 서정성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는데 강원도아리랑의 영향이 나타난다. 근래 속초지역에서는 ‘속초아리랑보존회’가 결성되고 다양한 아리랑의 전승작업과 공연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는 이른바 ‘속초아리랑’이 한국아리랑의 큰 범주에서 또 동해안아리랑의 특징으로 존재함을 확인케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미 속초농업노동요인 도문메나리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전수회관이 건립되는 등 활발한 전수를 펼치고 있는바, 속초아리랑의 무형문화재적 가치 또한 높다고 평가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부터 80년 전인 1935년 일제강점기하에서도 속초 설악산, 양양 의상대 등을 배경한 ‘설악권아리랑’이 밝혀졌다. 또한 1930~40년대 일제의 수탈을 피하여 멀리 중국 북간도로 이주한 강원도 출신들이 부른 고성아리랑도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1930년대부터 속초·고성·양양 등 이른바 설악권에서 아리랑이 실존했음은 확인된다.

우리나라 아리랑권역 가운데 이른바 영월·평창·정선의 아리랑을 ‘영평정아리랑’이라고 획정했듯이, 이른바 ‘설악권아리랑’의 실체를 강조하고자 한다. ‘강원동해안아리랑’이라는 기존의 개념과 더불어 실상이 부합한 ‘설악권아리랑’이라는 이름은 한국아리랑의 새로운 권역설정이라고 하겠다. 속초아리랑의 향토적 지명이나 토착적 생활상을 바탕으로 전승소리의 가창활동을 지속화하고 새로운 노랫말의 발굴을 통해서 설악권아리랑이 지역민의 사랑받는 향토민요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설악산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함께 설악인의 인문자원인 아리랑의 무형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金素雲, 諺文口傳民謠集, 東京第一書房, 1933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7
 方鍾鉉, 金思燁, 崔常壽, 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宣明文化社, 1974
 김연갑, 아리랑의 역사적 고찰, 도서출판 야실사, 1981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 정선의 향사, 정선군, 1981
- 서영화·최준 수집정리, 민요곡집, 룡녕인민출판사, 1982
-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 집문당, 1986
- 장정룡, 속초의 민속, 속초문화원, 1987
- 張正龍,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研究, 集文堂, 1988
- 박민일, 한국아리랑문학연구, 강원대출판부, 1989
-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 박민일, 강원도 아리랑, 춘천문화원, 1993
- 한국민요대전 강원도민요해설집, MBC문화방송, 1996
- KBS춘천총국, 강원도의 전래소리 -다큐멘터리 3부작, 1998
- 강원의 민요 1, 강원도, 2001
- 옛 시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속초문화원, 2001
- 진용선, 중국조선족의 아리랑, 수문출판사, 2001
-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 박민일, 아리랑정신사, 강원대출판부, 2002
- 진용선, 강원도의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02
- 장정룡·이한길, 속초의 민요, 속초문화원, 2003
- 유명희, 아라리연구, 한림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 장정룡·이한길, 평창아라리가사집, 평창군, 2005
- 김연갑, 아리랑 시원설 연구, 도서출판 명상, 2006
- 장정룡외, 재중강원인생활사조사연구-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 강원발전연구원, 2006
- 강등학,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 김병학 채록편저, 재소 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1,2, 도서출판 화남, 2007
- 장정룡, 중국 길림성 양양촌의 이주생활사, 양양문화원, 2012
- 장정룡, 중국 고성촌 이주사연구, 고성군, 2013
- 진용선 편, 정선아리랑 가사사전, 정선군·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4
-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2015년 종합업무계획, 강원도, 2015



청초호(靑草湖)의 정자

- 침산정(浸山亭)과 청초정(靑草亭) -

정상철(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건물을 짓고, 시와 노래를 읊으며 인생을 즐겼다. 그 ‘건물’이란 것을 통상 “정자(亭子)”라 일컫는데, 산수가 수려한 곳에 사방인 트인 벽이 없는 집을 지어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한 건축물로 낮은 마루로 형성된 것이 많다. 이규보의 사륜정기(四輪亭記)에 따르면, 일찍부터 정자는 손님을 접대하고 학문을 토론하며 풍류가 벌어지는 공간이다.¹⁾ 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성군 청간정의 원경>

“관동8경(關東八景)”의 경우도 주로 정자가 설치된 곳이다. 대관령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관동’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²⁾ 그 명승지들은 관동지방의 수많은 경승지 중에서 특히 예로부터 손꼽혀 온 경승지로, 고성의 청간정(淸

澗亭), 강릉의 경포대(鏡浦臺), 고성의 삼일포(三日浦), 삼척의 죽서루(竹西樓), 양양의 낙산사(洛山寺), 울진의 망양정(望洋亭), 통천의 총석정(叢石亭), 평해(平海)의 월송정(越松亭)이 그것이며, 월송정 대신 흠곡(翫谷)의 시중대(侍中臺)를 넣는 경우도 있다. 종래 강원에 속했던 망양정과 월송정은 현재 경북에 편입되었고, 또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지역에 속해있다.

“관동팔경”은 예로부터 칭송되어 온 명승지인 만큼 이곳을 노래한 시가와 이곳에 얽힌 전설들이 많은데, 특히 조선 선조(宣祖) 때에 정철(鄭澈)이 관동팔경과 금강산 일대의 산수미(山水美)를 읊은 《관동별곡》이 유명하고, 또 신라시대에 영랑(永郎)·술랑(述郎)·남석랑(南石郎)·안상랑(安祥郎)이 삼일포와 월송정에서 놀았다는 전설도 널리 알려져 있다.³⁾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관동별곡이 유행하던 시기에 선비들이 정자에서 유희를 즐기며 시를 쓰는 것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양양도호부 관내에도 많은 정자들이 있었다. 관란정(觀蘭亭), 영월루(詠月樓), 강선정(降仙亭) 등의 정자에서 이 지역으로 유람 온 많은 선비들이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며 수많은 시문(詩文)을 남겼다.

우리지역에는 어떠한 정자들이 있었을까? 각종 기록과 전설에 의하면, 도문면과 소천면 지금의 속초 관내에는 영금정(靈琴亭), 영랑정(永郎亭), 침산정(浸山亭), 청초정(靑草亭)이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도문동에 매곡 오윤환 선생이 사비를 건립한 학무정(鶴舞亭)이 있다. 1960년대에 조도(鳥島)에 “용초정(龍草亭)”이 생겼었는데, 당시 강원도지사 이용의 ‘용’자와 속초의 ‘초’자를 따서 이름지었다고 한다.

“영금정(靈琴亭)”은 속초시 동명동에 위치한 곳으로 정자가 있던 것이 아니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야금을 타는 소리와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금정에 “비선대(秘仙臺)”라는 넓은 바위가 있어 바위위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앉아있을 수 있다고 한다. “비선정(秘仙亭)”이라고도 하며, “화험정(火驗亭)”이라고도 한다. “비선대(秘仙臺)”라는 명칭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이름으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내려와 목욕을 하면서 신비한 곡조를 들으며 즐기는 곳이라는 전설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영랑정(永郎亭)은 말 그대로 영랑호에 위치한 정자로 설립시키는 모르지만⁴⁾ 현재 영랑호 범바위 바로 밑 동쪽에 위치해 있어 현재 복원해 놓은 상태이다.

침산정(浸山亭)과 청초정(靑草亭)은 청초호(靑草湖) 주변에 있었던 정자로 영랑호(永郎湖)와 더불어 청초호는 수많은 유람객들이 칭송한 시문(詩文)의 대상이자, 유희(遊戱)의 대상이기도 했다. 수많은 역사를 가진 청초호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쓰기로 하고 침산정과 청초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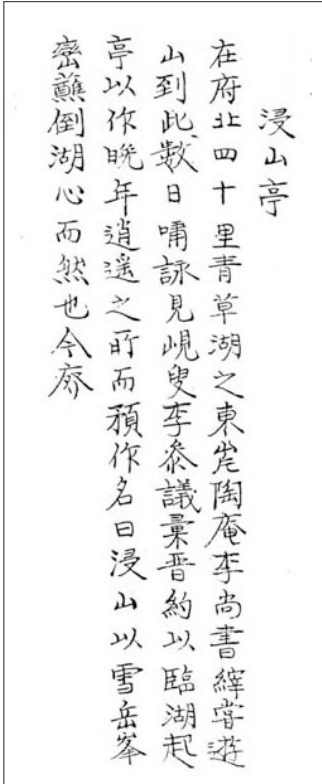
1) 출처 : 네이버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 용어사전)

2) 조선초 경기도지역을 “관내도”라 일컬었고, 강원도는 관내도의 동쪽이라 하여 “관동”이라 불리어졌다고도 한다.

3) 두산백과

4) 영랑정의 설립 또는 존재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임.

1. 침산정(浸山亭)



<사진 2 현산지>

침산정(浸山亭)은 조선중기에 청초호 동안(東岸)에 건립된 정자로 『현산지(峴山誌)』에 의하면, 상서(尙書)를 역임한 도암(陶菴) 이재(李穡⁵⁾)가 이곳을 유람했을 때 청초호의 경치에 감동받아 수일동안 기거하다가 양양도호부 출신으로 참의(參議)⁶⁾를 역임한 평창이씨 이휘진(李彙晉⁷⁾)을 만나서 이곳에 정자를 지어줄 것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설악의 봉우리가 호수에 잠긴다하여 “침산정(浸山亭)”으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

양양 현산지가 발간된 시기에 기록을 보면 ‘금폐(今廢)’라 되어있으니 현산지가 발간된 시기에는 이미 침산정 또한 폐허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현산지의 발간시기를 알 수 없어 아쉬울 뿐이다. 사실 침산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자를 짓기로 약속만 했다던지, 정말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그나마 침산정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현산지의 기록대로 이재선생과 이휘진 선생이 만난 시기를 추정해 보는데, 이재선생이 1723년에 설악산을 유람했다는 기록이 있다.⁸⁾ 이재의 나이 43살 때이다. 보통 전국을 유람할 정도면 적어도 관직에 올라 어느 정도 연륜을 갖춘 때로 40~60세라도 생각된다.

이재와 이휘진은 모두 1680년생으로 나이가 같다. 이재는 정2품 관인 이조판서, 대제학 등을 역임했으며, 이휘진은 정3품 관직인 동부승지, 정4품 관직인 장령을 역임하였다. 이휘진은 음악에 일가견이 있다하여 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의 낭청(郎廳)으로 발탁될 정도로⁹⁾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5) 1680(숙종 6)~1746(영조 2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菴)·한천(寒泉). 유겸(有謙)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숙(숙)이고, 아버지는 진사 만창(晩昌)이며, 어머니는 민유중(閔維重)의 딸이다.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6)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소속된 정3품 당상관직. 판서·참판·참의순
 7) 1680(숙종 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중진(仲進). 천규(天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찬원(贊元)이고, 아버지는 경화(景華)이며, 어머니는 최주명(崔柱溟)의 딸이다.
 8) 한국고전종합DB
 9)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이휘진이 정계에서 물러나 고향에 있을 때인 1723년 도암 이재가 설악산에 놀러와 이휘진과 함께 청초호를 유람하다가 침산정을 지을 것을 약속한 같다. 아니 지었을지도 모른다.

이도현¹⁰⁾의 계촌선생문집¹¹⁾에는 ‘청초호’라는 시가 남아있는데

巖石奇怪、東有小峯半入湖心、其上有古亭基蓋

‘청초호에 암석이 기괴한데 동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의 반이 호수에 잠겨있으며, 그 위에 오래된 정자가 있던 곳’이라 하였다. 침산정이 청초호 동안(東岸)에 위치해 있다는 『현산지』의 기록과 계촌문집의 기록이 같은 것으로 보아 침산정의 존재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도현이 양양지역에 왔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기록에 없지만 관동지역을 유람하면서 쓴 관동잡영(關東雜詠)으로 보아 관동잡영을 저술할 때 이 지역을 유람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도현은 그의 아들 이응원(李應元)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폐사의 원통함을 밝혀 달라고 상소를 올렸는데, 1776년(정조 즉위년)에 이 일을 계기로 함께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고, 유족들은 유배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죽은 해인 1776년에 위의 기록을 남겼다면 침산정은 1723년경에 건립되어 1776년 이전에 폐허가 된 것이 된다. 아니면 40세 정도인 1766년 정도에 위 기록을 남겼다면 침산정은 1723년경에 건립되어 1766년 이전에 폐허가 된 것이 된다. 짧게 잡으면 43년, 길게 잡아봐야 53년의 역사를 가진 침산정이 된다. 무슨 이유로 침산정이 폐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었기에 이 지역 주민들조차 침산정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10) 1726년(영조 2)~1776년(영조 52). 조선 후기 성리학자. 자는 치문(禘文)이고, 호는 계촌(溪村)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온녕군(溫寧君) 이정(李昞)의 후손이다. 늙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의 아들 이응원(李應元)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폐사의 원통함을 밝혀 달라고 상소를 올렸다. 1776년(정조 즉위년)에 이 일을 계기로 함께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고, 유족들은 유배되었다.

11) 靑草湖[襄州北三十里,有大湖.人稱其周三十里地誌,以此爲永郎湖.巖石奇怪,東有小峯半入湖心,其上有古亭基蓋,亦永郎仙徒,遊賞之地,是湖爲嶺東諸湖之最大者,故取巴陵靑草湖之名,以名之然巴陵之湖,回數百里,則此固不能及矣. - 출처 : 계촌선생문집 (溪村先生文集)

2. 청초정(靑草亭)

『속초시지』에 의하면 청초호 주변에 청초정(靑草亭)이 있었다는 기록만 전할뿐 사료부족으로 건립시
기나 존재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설악산의 그림자가 청초호에 비치면 나그네는 청초호 인근마을에 잠자리를 정한다’라는 옛 선비들의
시구가 전해온다면서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도 관동8경에 “양양의 낙산사”가 들어갈 것이 아니
라 청초호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기록으로 보아 청초호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¹²⁾

일제강점기시절 제작된 『면세일반』에는 청초호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청초정(靑草亭)을 두어 전국의
시인묵객들이 계절에 따라 왕래하고 정자에 올라와 술잔을 기울이며 물가에서 시를 읊었다면서 청초정
이 많은 유랑자들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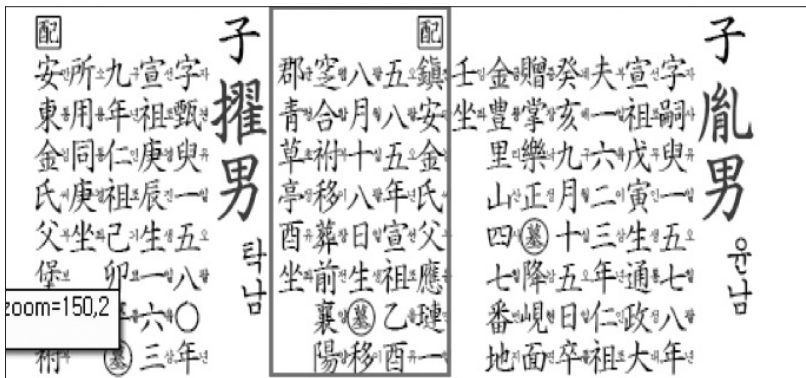
그렇다면 청초정은 언제 건립되어서 도문면과 소천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유람한 수많은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을까? 다행히도 청초정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각종 사료와 문헌들이 남아있어 다
행이다.

청초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근거로는 『양와집』¹³⁾에 실려 있는 <동유록(東遊錄)>으로 ‘청초호수 서남
쪽에 청초정이 있고, 동북쪽에는 비선정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湖之西南有靑草亭。東北有飛仙亭

비선정(飛仙亭)은 현재의 속초시 동명동의 ‘영금정(靈琴亭)’을 가리키는데, ‘비선대’라고도 한다. 그런
데 한자가 틀리게 기록되어 있다. 영금정을 일컫는 비선대는 ‘비선대(秘仙臺)’이고, 설악산에 위치한 비
선대는 ‘비선대(飛仙臺)’이다. 위의 기록이 현재의 영금정을 가리키는 이유는 청초호를 기준으로 비선대
가 동북방향에 있으며 설악산의 비선대는 남서쪽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기록으로 돌아가 청초정이 있는 서남쪽은 현재의 ‘석봉도자기미술관’에서 ‘엑스포타워’부근이
된다. <동유록>의 저자인 이세구(李世龜)는 인조시대 사람으로 1646년 태어나 1700년에 사망하였다.
동유록은 이세구가 45세 때인 1691년에 관동지방을 유람하면서 쓴 유람기행문인데, 청초정은 1691년
당시 존재했었다고 봐야한다.



<강릉김씨 대동보 中>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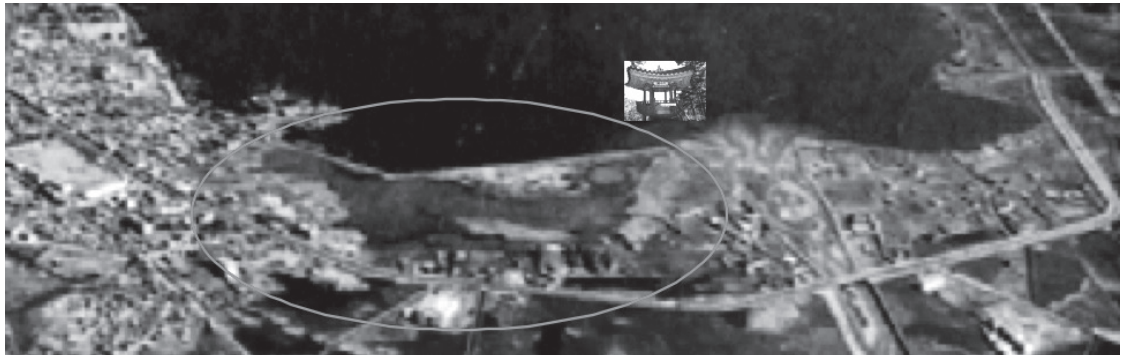
다음은 2차 사료지만 『강릉김씨 대동보』에는 29세 통정대부 김윤남(金允男)의 처(妻)인 진안김씨 부인의 묘에 대해 양양군 청초정 앞에 있던 것을 이장하여 남편과 합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씨부인의 기일(忌日)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남편 김윤남이 1623년에 돌아가셨으므로 김씨 부인의 묘는 1623년 이전에 청초정 근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즉 청초정은 1623년 이전에 위용을 떨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유록>보다 68년이 앞선 기록이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학자·정치가인 오윤겸(吳允謙, 1559년 ~ 1636년)¹⁵⁾의 시문집인 『추탄집(秋灘集)』¹⁶⁾에도 청초정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 청간정(淸澗亭)이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는데, 아마도 인근의 청간정과 혼동하여 잘못 지어진 제목인 것 같다.

靑草亭中盡意遊。永郎湖畔更遲留。

오윤겸은 1611년에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분이다. 오윤겸이 영랑호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는 설화가 있는 만큼 청초호를 유람하며 청초정에 대한 시를 남겼다면 청초정의 존재는 1611년 이전으로 <동유록>의 기록보다 80년이 앞서게 된다.

지금은 청초호가 개발되어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없지만, 1960년대 촬영된 속초항공사진(동근원 부분)을 보면 청초호의 서남쪽에 일자형의 언덕 또는 산이 존재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산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내려오다가 다시 동남방향으로 구부러진 언덕을 이루는데 이 언덕의 끝(정자사진의 밑부분)쪽에 청초정이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정자는 절벽 위나 언덕위에 설치되어 주위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진 4 청초호의 서남쪽(1967년 항공촬영)>¹⁷⁾

12) 1989. 5. 29일자 경향신문 13면

13)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인 이세구(李世龜)의 시문집, 開十二, 雜著[上] 又穿過蘆葦逕, 湖之西南有靑草亭, 東北有飛仙亭

14) 강릉김씨 서울중친회 인터넷 족보 <http://www.kangkim.or.kr/>

15) 조선 중기의 문신. 이조, 형조, 예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했으며, 특히, 북인의 등용문제로 서인이 노서, 소서로 분열될 때 노서의 영수가 되어 남인, 북인의 고른 등용을 주장, 민심의 수습을 꾀하였다.

16) 1692년(숙종 18)에 손자 도일(道一)이 대제학으로 있으면서 간행하였다 淸澗亭 二首 (청간정 이수)

靑草亭中盡意遊, 永郎湖畔更遲留。日暮始尋淸澗路, 笙歌移入海棠洲。淸歌長笛月黃昏, 徙倚朱欄酒半。休道海涯遊宦苦, 客行隨處盡君恩。

淸歌長笛月黃昏, 徙倚朱欄酒半。休道海涯遊宦苦, 客行隨處盡君恩。

17) 출처 : 속초시지

이상의 각종 문헌과 사료를 종합해 볼 때 침산정(浸山亭)은 1723년경에 건립되어 1766년 또는 1776년 경에 사라졌으며, 청초정(靑草亭)은 대략 1600년경에 존재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금 더 올라간다면 정자문화의 꽃을 피웠던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이 유행하던 시기인 1580년대 후반에 청초정에서 각종 시문과 음악이 울려 퍼졌을지도 모른다.

그 옛날 청초호에서는 양양도호부 부사가 새로이 부임하게 되면 소천면 주민들이 청초호에 횃불을 띄어 부사의 부임을 축하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논피호 불꽃놀이”라고 한다. 한자어로 낙화유(落火遊)라고도 하는데, 1908년경 최종락 양양군수 부임당시 소천면 주민들이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놀이를 하다가 여러 명이 호수에 빠져죽어 그만두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이 앉아서 낙화유를 즐기던 곳이 침산정과 청초정이-그 당시에는 정자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있었던 곳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그 끝은 좋게 끝나지 않았지만, 청초호는 유희를 사랑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이었던 곳이었다.

석양이 질 무렵 청초호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설악산의 모습이 청초호반에 잠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속초관내 정자의 위치>

특집2

설악문화제 50년

| 엄경선

속초민예총 20년

| 박종현



설악문화제 50년을 짚어보다

엄경선(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지난 10월 50회를 맞은 설악문화제 행사가 막을 내렸다. 반세기 즉 50년을 지내왔다는 것만으로도 향토문화축제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시로 승격한 속초시로서는 그로부터 3년 후에 시작된 설악문화제의 역사가 바로 속초시의 역사이며, 속초시민의 역사이기도 하다.

속초의 대표 향토문화축제인 설악문화제 50년의 역사를 다시 훑어 보면서 우리는 이 축제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할지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의 자료들과 신문기사 등을 종합하여 설악문화제가 걸어온 50년의 시간을 더듬어 보자.

1. 설악문화제는 어떻게 태동했나?

“설악산은 푸른 동해와 신라의 고적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관동팔경을 비롯한 많은 명승을 아울러 지닌 우리나라 으뜸가는 관광지로서 널리 알려진 고장이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산자원은 우리나라 제2의 어항인 속초시는 관광도시와 수산업도시를 겸함으로서 어느곳보다 가장 발전이 촉망되고 있다. 또한 수많은 동포를 잃었던 6.25 동란시 이곳 설악산이 격전지가 되어 많은 젊은 녀들의 피가 흐르고 또 숨저간 곳이다.

이번 이고장에서는 처음인 종합문화제를 개최하게 됨은 낙후된 고장의 문화발전에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들 이름모를 녀들의 명복을 빌며 관광지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세상에 알리고져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다.”¹⁾

제1회 설악제 행사요강에 나온 취지문이다. 이 취지문에서 설악제는 처음 낙후된 고장의 문화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종합문화제의 성격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울러 이름모를 녀들의 명복을 빌며 관광지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세상에 알리려는 취지를 표명했다. 좀 더 요약하면 문화예술 축제와 관광이벤트, 제례의 세가지 요소를 모두 언급했다.

첫 설악제 행사는 주최는 예총강원도지부, 주관은 예총속초시지부, 협찬은 설악산악회와 한국일보사가 맡았다. 주최는 예총강원도지부이지만, 실제 문화예술 행사를 비롯한 주요 행사는 예총속초시지부, 산악행사는 설악산악회에서 주관하였다. 행사 경비는 도비 10만원과 약간의 찬조금으로 조성되었다.

당시 예총속초시지부는 설악산 개발과 홍보에 앞장 서 왔던 사진작가 최구현씨(1920~2012)가 지부장을 맡고 있었다. 최구현씨는 이달영 등과 함께 설악산 개발의 주역으로 1957년 설악산에 들어가 비경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작해 관계 당국과 전국 관련단체에 무료로 배포하며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호소했다. 최구현씨는 체육인 이달영씨와 함께 교통부를 찾아가 설악산 관광호텔 건립을 위해 특별예산을 요청하는 등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당시 속초읍에서 경영하는 설악여관 한 곳만 있던 설악산에 1959년 7월 10일 규모의 설악산 관광호텔이 완공되었다. 이렇듯 설악산 개발과 홍보에 힘을 쏟은 최구현씨는 예총속초시지부장을 맡으면서 설악산 홍보를 위해 설악제를 개최하는데 앞장섰다.

제1회 설악제 행사는 1966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속초시 설악동과 설악산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9월 30일 저녁 8시에 속초시 설악동 광장에서 열린 전야제를 시작으로 설악산 사진공모전, 사진촬영대회, 미협회원전, 미술실기대회, 취주악(브라스밴드,吹奏樂)경연대회, 음악및무용의밤, 동시백일장, 관광영화의밤, 등산대회, 카니발, 이름모를 자유의 용사비 제사(祭事), 종합시상식 모두 13개의 행사가 진행됐다.

13개의 행사 중 특별히 설악산사진공모전과 촬영대회, 등산대회는 참가 세부요강이 별도로 제시된 만큼 중요한 행사로 예정되었다.

사진공모전은 설악산을 대상으로 한 산악관광사진을 그해 9월 25일까지 한국사진협회와 예총속초시지부에 출품토록 했으며, 입선작품을 설악제 기간인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신흥사 보제루에 전시하기로 했다.

촬영대회는 10월 1일 오전 10시 신흥사 일대에서 미모의 여인 등 다수의 모델을 참가토록 했으며, 촬

1) “설악에 핀 솜다리꽃 인생, 이기섭” (2009, 속초문화원) 299p

영사진은 속초 시내에서 전시하고 시상하기로 했다.

별도의 요강은 없지만 주목할 행사로 제례행사가 있다. 등산대회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10월 3일 오후 3시 설악동 정고평에 있는 ‘이름모를 자유의 용사비’에서 제례를 치루기로 했다.

설악제의 중요 행사의 하나인 등산대회는 이기섭 박사가 회장을 맡고 있던 설악산악회가 주관하여 진행했다. 1966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일정으로 10월 1일 오후 2시 인제 용대리 외가평에서 출발하여 백담사에서 1박을 하고, 대청봉에서 2박을 하고 설악동으로 내려와 오후 3시 정고평에서 제례를 지내고, 저녁 7시 카니발에 참여하고 해산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대학교산악반과 지방산악회, 일반 사회인사를 대상으로 1조 4명으로 편성하고 예충속초시지부와 설악산악회에서 참가신청 접수를 받았다. 특히 참가 산악회는 가능하면 카니발에 필요한 간단한 오락기구(가면 등)를 지참해 올 것을 요청했다.



<1966년 제1회 설악제 등산대회에 참가한 이기섭 설악산악회장과 일행. (고 이기섭박사 유품 사진)>

예정대로라면 10월 3일 등산대회를 끝내고 저녁 7시 카니발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날 내린 폭우로 참가자들이 산에서 고립되는 바람에 정상적인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설악제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등산대회 중 발생한 조난사고 때문이었다. 1966년 10월 4일자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서는 설악제 등산대회 조난사고가 사회면에 크게 보도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설악제의 존재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당초 2박3일의 일정으로 예정된 등산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산악회원 2백68명이 참가했는데, 마지막 날인 3일 새벽부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3일 밤 10시까지 112명이 불어난 물을 건너 신흥사로 내려왔지만, 나머지 1백50여명은 천불동계곡과 비선대 근처 이호담에서 고립되었다. 천불동계곡에 가

습까지 물이 차올라 서울산악회 오아무개 씨가 급류에 휩쓸려 1백미터를 표류하다가 구출되기도 했다. 결국 다음날 고립되었던 참가자들 모두 안전하게 신흥사로 내려왔다.

고립된 산악회원들의 구조요청에 속초시는 설악산 비선여관에 구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인근 육군부대와 속초경찰서, 지방민 등 50여명이 헬기와 긴급구호약품을 들고 구조에 나서기도 했다.

제1회 설악제에는 등산대회에 268명이 참가했으며, 사진공모전에 29점이 응모되었고, 동시백일장에 56명, 취주악경연대회에 2팀, 촬영대회 40명, 미술실기대회 200명 등 모두 600명이 참가했다.

2. 전국 산악인의 제전으로 우뚝 서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향토문화축제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자료를 검토해보면 진주의 개천예술제가 가장 시대적으로 앞선다. 경남 진주의 개천예술제는 1949년 정부 수립 1주년을 기념하고 지역 향토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제1회 영남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해마다 10월 3일 열리고 있다.

인천과 밀양의 문화제, 경주의 서라벌예술제 등이 설악제 개최 이전부터 지역문화축제로 개최되고 있었으며, 강릉의 단오제와 남원의 춘향제도 전통민속축제로 개최되고 있었다. 강원도의 대표 향토축제 중 하나인 영월의 단종제는 설악제보다 한해 늦은 1967년 봄부터 시작되었다.

설악제는 강릉의 단오제 다음으로 유서가 깊은 강원도의 향토문화축제로도 의의가 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산악인들이 참여하는 최초의 산악축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제1회 설악제 등산대회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산악회 2백6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후 등산대회는 회를 거듭하면서 참가자가 늘어나 수천명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산악축제로 자리 잡았다. 제주도의 할라산 철쭉제는 설악제보다 한 해 늦은 1967년 시작되었다.

설악산은 산악인들의 메카와도 같은 곳이다. 1960년대 많은 산악인들이 설악산을 찾기 시작하면서 조난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1969년 2월 14일 대청봉과 죽음의 계곡에서 해외원정을 위해 동계훈련을 하던 한국산악회 소속 이희성 대장을 비롯해 10명의 대원(10동지)이 눈사태로 조난을 당했다. 우리나라 산악계에 충격을 던져준 이 사고는 한편으로 험난한 지형과 악천후로 유명한 설악산의 존재감을 많은 산악인들에게 새겨준 사건이기도 했다. 지금 노루목 모델단지 뒤 언덕에는 10동지의 묘와 1968년 조난당한 요텔산악회 엄홍석과 신현주, 같은 산악회 동료로 1973년 토왕성폭포 빙벽 등반 중에 조난당한 송준호 씨의 묘가 함께 있다.

1993년 11월 설악산 소공원에는 설악산 계곡에서 숨겨간 산악인들을 추모하는 ‘산악인의 문’과 ‘산악인의 영원한 불꽃’이 조성되어 국내 산악인들에게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해마다 설악제에서 조난당해 숨겨간 산악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악제 초기부터 정고평 이름모를 자유용사사의 비에서 추모제례를 올렸으며, 1993년 소공원에 산악인의 문이 조성되고 나서는 이곳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설악제는 감동과 추억, 아픔을 함께 안고 있는 국내 산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산악인의 제전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제2회 설악제에는 우리나라 대표 산악단체인 대한산악연맹과 한국산악회를 비롯해 서울산악회, 예코클럽 등 전국 유명산악회가 후원단체로 이름을 함께 올렸다.



<1971년 제6회 설악제 거리행진 (고 이기섭박사 유품 사진)>

전국의 산악회들이 모여 산악회 깃발을 앞세우고 등산복 차림으로 속초시내를 행진했으며, 등산대회가 끝나면 그해의 남녀 산악왕을 선발했다. 산악왕선발은 제23회 설악제까지 계속 진행됐다. 1972년 정부가 난립하는 지역축제를 정비한다고 설악제를 폐지했지만, 그해 순수 민간행사로 등산대회만 개최할 수 있었던 것도 설악제가 산악인들의 제전이였기에 가능했다.

1978년 10월 19일자 동아일보 3면 칼러페이지 전체에 설악제 특집기사가 실렸다. 하늘에서 찍은 대청봉 정상의 단풍과 전야제의 캠프파이어, 등산대회 모습을 함께 실었다.

“산악인의 제전 설악제, 올해 제 13회는 14일부터 열렸다. 단골 산사람들과 3만 관광객이 몰려 장관을 이루었다. 노루목고개에서 있는 캠프파이어는 그 하이라이트. “雪嶽을 못잊어 다시 찾아왔다”는 설악인들은 여기 저기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하룻밤을 보낸다. 훈련 도중 「에베레스트」 정복의 꿈을 이곳에 묻고 고이 잠든 13명 젊음의 영혼도 달래면서.

「굽이쳐 흰띠두른 능선길따라 / 달빛에 걸아가던 계곡의 여운을 / 내 어이 잊으리 꿈같은 산행을 / 잘잊거라 설악아 다시 오리니」

누구의 입에선가 흘러나온 흥얼거림, 우렁찬 합창이 돼 찬바람을 가르다.

어느새 날이 샌다. 이른새벽, 산사람들은 동해의 햇살을 받으며 등산길에 오른다. 목적지는 대청봉(1,708m)을 넘어 오색으로 빠지는 쪽과 마등령(1,327m)을 거쳐 백담사에 이르는 두 코스. 8시간의 강행군이다.

대청봉에서부터 시작, 중허리까지 단풍이 곱게 물든 오솔길, 골짜기 물이 몹시 차고 맑다. 자일에 의지, 깎아세운 절벽도 탄다. 연방 비지땀이 흐른다.”

기사 속에 나오는 노래 가사는 산악인 고 이정훈씨(2014년 작고)가 1969년에 지은 ‘설악가’로 많은 산악인들이 설악산 등산의 추억을 생각하며 불렀던 노래로 유명하다. 설악동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며 산악인들이 함께 설악가를 부르던 설악제가 바로 산악인들이 함께 하는 국내 최고의 ‘산악문화제’였다.

1973년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설악산 접근 교통이 수월해지면서 설악산은 본격적인 국민관광지로 부상하면서 탐방객이 급증했다.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나 산악인만이 아니라 설악산이 유명관광지라서 찾아오는 관광객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설악제 등산대회 참가자도 함께 늘어났다. 그래서 설악제가 열리는 10월 단풍철 연휴 하루 설악산 입장객이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능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설악산 탐방객 급증은 설악제에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었다. 등산대회는 그 개최시기인 단풍철에 탐방객이 몰리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1980년대 들어 언론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부각되어 보도되었다.

제17회 설악제가 열린 1982년 10월 9일에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최대의 인파인 5만 명이 몰렸는데, 설악산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오색에서 대청봉을 거쳐 설악동으로 넘어오는 등산객 1천2백여명이 길이 밀려 산에서 노숙하는 ‘레저비상사태’²⁾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음해인 제18회 때도 등산객 5천여명이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밤 10시까지도 내려오지 못해 공무원과 경찰 등이 하산길을 유도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예전에는 설악제 홍보에 앞장서던 언론들이 태도가 달라졌다. 설악제 기간에 등산을 하더라도 등산대회 코스를 피해 다른 코스를 택하라고 권하거나 설악제처럼 어느 한 곳이 좋다하면 기를 쓰고 찾아가는 폐단을 지양해야한다고 보도했다.

1979년에는 소비절약과 자연보호를 이유로 강원도가 요구하자 설악제를 긴급하게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1991년 5월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서는 국립공원 축제행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설악제를 설악산이 아닌 속초공설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개최하고 등산대회 규모를 축소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설악제 등산대회는 이전보다 참가자가 줄어들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국립공원의 행사 축소 방침에 따라 더욱 위축되었다. 그 과정에서 1989년 24회 때는 그동안 등산대회를 주관하던 설악산악회가 더 이상 말지 못하게 되었고 산악왕 선발도 폐지되었다. 1990년 25회 설악제부터 지역에서 새롭게 결성된 설악산악연맹에서 등산대회를 주관하게 되어 설악제 등산대회의 부활을 위해 애를 써 왔다.

그러나 예전같이 전국의 산악인이 다 모이는 명성을 찾지 못했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영금지와 축제행사 축소 등 점점 강해지는 규제와 함께 산악문화의 변화도 이러한 침체에 일조를 했다. 이미 설악산의 주요 등산로는 많이 알려져 산악인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코스가 되지 못했다. 더구나 설악제 등산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쉽게 단풍 산행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등산문화 자체도 다양화되고 개별화되었다. 전국의 등산코스도 많아지고 산악회도 많아지고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설악산이 지닌 상징성은 점점 떨어졌다.

설악문화제에서도 등산대회의 비중은 점점 낮아졌다. 제30회 때 축제 명칭이 ‘설악제’에서 ‘설악문화제’로 바뀌며 문화제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는 과정에서 초대 설악제부터 등산대회를 주관했고 민간주도의 설악제위원장도 지낸 고 이기섭씨를 중심으로 산악인들의 반발이 있었다.

2) 동아일보 1982년 10월 15일자 보도

2008년(제43회), 2010년(제45회), 2012년(제47회) 설악문화제 때는 국립공원 비지정탐방로인 달마봉 코스에서 등반대회를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등산대회 참가자가 1천명 이상 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2013년(제48회)부터 달마봉코스를 불허하면서 다른 코스로 등산대회를 진행해야만 했다.

2014년 제49회 때는 코스불허로 등산대회 자체가 취소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25회 때부터 등산대회를 주관해오던 설악산악연맹이 이에 반발해 별도로 ‘설악제 제모습찾기 등산대회 및 산악인 추모제’를 진행했다.

이와는 별도로 보다 전문적인 산악인들이 참여하는 ‘공룡능선 하늘길 걷기’를 2011년(제46회)부터 3차례 진행했으나 참가팀들이 많지 않아 결국 폐지되었다.

설악제 시작과 함께 하며, 한때는 전국 산악인의 제전으로 불린 설악산 등산대회는 여전히 설악문화제의 핵심이면서도 어떻게 활성화시켜낼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3. 속초 시민의 축제로 자리잡은 설악문화제

설악문화제는 50년을 지내오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축제내용이 몇 차례 바뀌었다. 당초 설악산 홍보를 위한 예술제와 등산대회에서 출발한 설악제는 처음에는 민간단체가 나서서 행사를 주관했으나 1968년 3회 때부터는 정식으로 설악제위원회가 조직되어 위원장직을 속초시장이 맡았다. 조직구성으로 보면 민간에서 행정으로 주체가 바뀐 것이다.

설악제가 회를 거듭하면서 설악산악회가 계속 주관을 맡은 등산대회는 변동이 없었지만, 당초 설악제의 주축을 이루던 문화예술 행사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렸다. 대신 산악인들이 속초시내를 가로질러 시가행진을 했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와 어민들이 참여하는 풍어제 행사가 추가되었다. 이때 북청사자놀이 시연회도 열렸다. 결국 제7회 설악제 때 설악제가 폐지되면서 등산대회만 살아남았고, 다음해 속초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설악제위원회가 부활하지만 예산을 지원받던 문화예술행사는 전면 중단되었으며, 예총속초지부는 별도의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어민들을 비롯한 속초시민의 참여로 설악제는 시민참여축제로 바뀌었다. 시민화합의 장도 없고 속초의 대표적인 산업인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긍지를 살려줄 이벤트도 없는 상황에서 설악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설악제를 처음 만들었던 예총속초시지부의 의도와는 달라져 문화예술축제로서의 지향은 거의 나아진 것이 없었다.

문화예술계가 설악제를 만들었음에도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향토문화예술축제에 대한 행정과 학계, 언론계의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1960~70년대 언론에 보도된 비판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이 傳來하고 있는 향토문화의 재생, 부활, 여기에 중점을 두지않은 모든 문화예술제는 학예회적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³⁾

3) 동아일보 1963년 4월 15일자 5면 “지방예술제에 제언한다” (이헌구)

“축제무드를 내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문화제가 좀 더 아카데미적이고 향토문화재 발굴 보존에도 관심을 더 기울여야할 것 같다.”⁴⁾

“대부분 지방문화제는 각 지방 고유의 전통예술이나 민속놀이를 재현하고 향토애를 높인다는 고유의 의미가 퇴색하고 행사 위주로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⁵⁾

향토문화축제의 취지를 특색있는 전통민속의 복원과 계승에 초점을 맞추는 견해는 행정에도 반영되어 난립하는 향토문화축제를 규제하는 근거가 되었다. 결국 1979년에는 아예 설악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가 향토축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강요했다. 축제와 문화예술은 소비적인 문화로 생산적이지 못하는 인식도 바탕에 깔려 있으며, 자연스러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소비성 문화로 폄하하고 고급예술을 지향하라고 비판하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통민속 발굴과 계승을 고집하는 편협함을 강요했다.

향토축제에서 전통민속의 발굴도 큰 의미가 있지만, 정작 지역주민의 삶과 유리되어 박물관에 전시될 민속만을 고집하는 것이 축제의 생명력을 살려낼 수 있는지도 짚어볼 일이다. 백일장과 시화전, 음악회, 작품발표회 등이 타지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한 지역에 같이 사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행사인가?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 문화를 반영한 향토축제로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는 아직도 소중하다. 시민들이 나서는 자발적인 창작활동이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싶다.

현대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나오는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부정하는 시각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지역향토축제 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아직도 이러한 시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체육대회와 풍어제 행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문화예술 행사는 비록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체육대회와 풍어제 행사를 통해 설악제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다만 놀고 즐기는 것도 경쟁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한 시대라 일반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행정이 추동한 관변단체가 중심이 되어 동대항 경연으로 치러진다는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할만하다. 체육경기도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나중에는 과열 양상을 빚어 주민간의 충돌까지도 빚기도 했다. 지금 설악문화제에도 이러한 관 주도 동원의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다.

1975년 제10회 설악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민들이 참여하는 풍어대회를 개최하였다. 설악제 전야제에 20여척의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이 속초 앞바다에 나가 집어등을 켜 대낮같이 흰하게 속초 바닷가를 밝히며 퍼레이드를 벌였다. 어민들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기원제(용왕제, 풍어기원제)를 지내고 전마선(중선 또는 뗏마라고 함) 10척이 출전하여 청초호 10km를 주파하는 전마선경기를 진행했다. 속초의 11개 어촌계에서 참가하여 명태낚시 미끼꿰기, 그물집기, 오징어할복대회를 진행했다. 이를 보려고 속초수협 어관장에 정박한 배 위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다. 신문에는 당시 인구 7만명인 속초에서 어민 2만명이 참가했다고 보도됐다. 11개 어촌계가 경합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 어촌계마다 시합에 열을 올렸으며, 어민증산왕과 효부상도 시상했다. 지금은 해마다 5월 속초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가 별도로 개최되지만, 1970년대 설악제는 동해안 최고의 수산도시인 속초의 어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

4) 경향신문 1969년 10월 4일자 5면 “만개하는 향토문화행사 이대로 좋은기”

5) 경향신문 1976년 5월 26일 5면 “참똥 퇴색 ... 향토문화제”

합과 결의를 다지는 큰 행사였다.

어민들의 풍어대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실시된 체육행사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1970년 제5회 설악제 때 공설운동장에서 초등학교 대항 체육대회가 열렸고, 1973년 제8회 때는 테니스와 궁도대회가 열렸다. 이후에는 사이클대회와 육상과 축구경기도 함께 개최되었다. 결정적으로 1984년 제19회 설악제 때 속초시민의 날(10월 2일) 행사와 통합하면서 본격적인 시민체육대회가 함께 개최되었다. 무장경기와 육상, 축구, 테니스, 사이클, 그네, 줄다리기, 씨름, 바다낚시 등의 종목이 치러졌다. 설악제 초기에 전국 산악인들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이 진행되어 크게 주목을 받았으나 설악제가 시민참여축제로 바뀌면서 개막식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리행진으로 바뀌었다.

4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노력

1979년 강원도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최되지 못한 설악제는 다음해인 1980년에도 등산대회를 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다음해인 1981년 지방문화제 육성 정책에 따라 5백만 원의 특별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설악제는 지역향토축제로서의 자기 모습을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설악제의 제례행사를 체계화했으며, 민속문화 발돋움 통해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잔치를 만든 것이다.

이 무렵 속초 민속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장정룡 교수는 산신제 성격을 지닌 설악제의 역사적 기원을 삼국사기 문헌의 기록을 들어 이미 신라 때부터 설악제가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악제는 산신제와 용왕제, 성황제 등 제전(祭典)행사를 활성화하여 속초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결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설악제 초창기에는 조난 산악인의 위령제를 지내다가 1970년대에는 산신제와 풍어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1년 처음으로 실향민들의 슬픔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망향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개별적인 제전행사는 제20회 설악제에서 설악대제로 체계화되었다.

설악제의 제례행사인 설악대제는 이후 산신제와 용왕제, 성황제, 위패봉송, 삼신합동제, 조전제, 송신제, 동해별신굿마당 등으로 거행되었으며, 대청봉이나 권금성에서 성화를 채화해 봉송하는 행사도 치러졌다. 2015년 50주년 행사때는 그동안 거행하지 않던 권금성 성화 채화를 재현했다.

1980년대 전국적인 민속발돋움의 흐름에 설악제도 함께 했다. 1984년 제19회 설악제에서는 7개동이 참가하여 민속가장행렬대회를 개최했으며, 다음해인 1985년 제20회 설악제에서는 북청사자놀음과 강강수월래를 포함한 민속경연단이 시가행진에 참여했으며, 설악제 주행사장인 공설운동장에서 13개 동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1987년 제22회 설악제 때부터 민간주도 행사로 바뀌었다. 그동안 속초시장이 맡아오던 설악제위원회를 민간주도로 바꾸기 위해 김용구 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원진을 개편했다. 아울러 2년 후인 1989년 제24회 설악제 때는 문화원장이 아닌 민간인사로 이기섭씨를 설악제위원장을 선출해 문화원과도 완전히 구분되는 순수 민간조직으로 발전했다.

1990년대 들어 설악제는 또다른 큰 변화를 보여줬다. 1995년 제30회 때 설악제를 설악문화제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그해 설악문화제연구단을 구성하여 1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다음해인 1996년 설악문

화제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설악문화제연구단은 설악문화제를 전통민속제전을 주로 하고 체육대회와 동대항 경쟁을 지양할 것, 개최장소를 관객과 출연팀이 분리되는 공설운동장에서 벗어날 것, 설악대제를 통일염원제로 승화시킬 것, 축제의 주제를 산악과 해양, 토착문화로 구분하고 실향민 문화를 부각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1996년 제31회 설악문화제는 주행사장을 공설운동장에서 동명동 매립지로 이전해서 개최했다. 이때 동대항 체육대회는 폐지되었다. 아울러 설악제를 설악대제와 설악산악제전, 통일염원대전, 설악예술축전, 해양문화제전, 향토민속축전, 거리문화축전으로 구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망향제 등이 개최되기도 했지만 이 무렵부터 통일염원대전을 개최함으로써 실향민 문화가 설악문화제의 대표 주제로 부각되었다.

이 무렵 설악문화제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다. 1997년 제32회 설악문화제에서는 오징어 형상으로 만든 오징어등이 시내에 내걸렸으며, 통일염원의 밤 행사, 설악가요대축제가 개최되기도 했다. 2001년 제36회 축제에서는 갯배끌기대회와 설악가요제가 선보였다.

2000년에는 주 행사장을 동명항매립지에서 새롭게 조성되어 1999년 국제관광엑스포를 치룬 청초호 유원지 엑스포광장으로 이전했다.

2005년 제40회 설악문화제는 실제로 민간이 주최하는 축제로 개최되었다. 그해 6월 28일 임시총회에서 그동안 시에서 맡았던 설악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해 속초문화원에서 맡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제40회 설악문화제는 시 행정부서가 아니라 지역 민간단체에서 설악문화제의 모든 행사를 주관해 진행했다. 제3회 때 처음 위원회가 구성되어 속초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속초시가 주관하던 축제가 40회에 이르러 조직 구성과 행사 주관까지 모두 민간 자율로 운영하기로 이르렀다.

속초문화원에서 사무국을 맡은 이후, 2006년 4월 설악문화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설악문화제에 새로운 활력이 넘쳤다. 이 토론회의 제안을 근거로 2006년 제41회 설악문화제부터 ‘설악산악제’와 ‘실향민축제’, ‘해양문화제’ 3개 부문으로 통폐합해 축제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부각시켰다.

이때 청룡호, 황룡호 두 대의 갯배를 엑스포광장 청초호변에 띄워 전국갯배끌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갯배끌기대회는 2008년까지 3년째 진행되었으나 2010년 설악문화제 주 행사장을 설악로테오거리로 옮긴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속초의 특색있는 축제이벤트로 자리잡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제41회 설악문화제에서는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널뛰기와 그네, 투호, 씨름 등 민속경기는 정월대보름행사 때 개최키로 하고 폐지했다. 대신 흔들바위 굴리기, 울산바위 힘겨루기, 논피호불꽃놀이, 청룡황룡 겨루기 등 속초의 설화와 역사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굴해 지역내 기업체나 동호회, 사회단체, 관광객이 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북청사자탈만들기와 염색, 도자기체험 등 체험부스를 새롭게 신설했다.

무엇보다 축제 기간 중에 유치한 외지 풍물난장에 대해 지역상권의 반발이 심했는데, 처음으로 지역주민과 상권에서 풍물난장 부스를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 풍물난장부스는 다음해인 2007년 제42회에는 외지 풍물난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50개의 풍물장터를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분양했다.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와 함께 열린 2007년 제42회 설악문화제에서는 속초의 역사를 재현하는 거리카니발이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2008년 제43회 설악문화제에서는 울산바위 힘겨루기, 전통떡메치기, 오징어할복경기 등 6개 종목의 행사를 동대항으로 치루는 ‘시민한마당’이 신설되었다.

2005년 6월 사무국을 민간에서 맡으면서 설악문화제는 행사도 다양해지고 일반시민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반면 설악산악제와 해양민속제, 실향민축제 3개 부문 중에서 해양관련 축제는 어업인들

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2010년 이후 주행사장을 설악로 데오거리로 옮기면서 이러한 기대는 좀 더 멀어져 큰 아쉬움을 남겼다.

2009년 제44회 설악문화제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뼈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당시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행사를 취소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행안부의 방침이 변경되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속초시의회 추경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오랜 역사를 지닌 설악문화제가 제례만 개최하고 개최되지 못하고 수난을 겪었다.

설악문화제 50회를 지내오면서 1972년 제7회 때는 정부의 설악제 폐지 결정에 따라 순수 민간행사로 등산대회만 치렀으며, 1979년 제14회는 강원도가 소비절약 및 자연훼손 방지를 이유로 취소할 것을 요구해 개최를 하지 못했다. 2002년 제37회 설악문화제는 태풍 루사의 피해로 제례만 일부 지내고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다. 그리고 2009년 제44회가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과 예산미확보로 개최되지 못했다. 50년 동안 행사가 전면 취소된 것은 제14회, 37회, 44회 세 차례에 불과하다.

2009년 한해를 건너 뚫 설악문화제는 2010년 제45회를 맞으면서 또 다른 큰 변화를 시도했다. 축제 주행사장을 엑스포광장에서 속초시내인 설악로데오거리로 이전했으며, 테마별로 3주간 행사로 분리 개최하는 시도를 했다. 10월 첫주는 청초호유원지에서 속초시민한마당을, 10월 2주는 설악산에서 설악제 행사를, 10월 3주는 설악로데오거리에서 거리축제를 ‘차없는 거리’ 환경시민축제와 책축제, 실향민문화 체험행사 등과 함께 진행했다.

속초시내 거리를 이틀간 차량통행을 막고 거리퍼레이드를 진행한 축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다만 3주간에 걸친 축제 진행은 많은 무리가 있어 다음해인 2011년 제46회부터는 산악페스티벌과 거리페스티벌로 개최 시기를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

속초시내를 축제장으로 만든 거리페스티벌은 해외초청 민속경연단도 함께 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사회단체, 8개 동주민이 나서서 화려한 거리퍼레이드를 보여주면서 많은 시민들이 축제장에 나와 함께 했다. 이 기간 중인 2012년과 2013년 설악문화제가 강원도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산악페스티벌과 거리페스티벌의 분리 개최, 설악로데오거리의 거리퍼레이드 활성화로 요약되는 지금의 설악문화제는 축제 기간 중 시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주행사장을 설악로데오거리로 옮긴 이후에도 설악문화제는 핵심 테마가 없다는 평가는 여전하며, 그동안 세워놓은 산악과 실향, 해양민속문화 테마도 희석되고 말았다.

설악문화제 태동의 근간이 되는 산악행사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지정탐방로인 달마봉코스의 개방을 국립공원 측에 요구하지만 여의치 않다. 2014년 제49회에서는 달마봉 미개방에 따라 등산대회 자체가 취소되면서 이를 주관했던 설악산악연맹이 반발했다.

한편 설악문화제위원회는 2009년 3월 사무국을 문화원에서 독립시켜 별도로 운영했으며, 2011년 12월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로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2013년 4월에는 법인의 명칭을 ‘속초축제위원회’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름의 변경은 향후 속초축제위원회가 설악문화제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속초축제 전반에 관여하는 조직으로서의 전망을 분명히 했다. 지금 위원회는 설악문화제만이 아니라 해맞이축제 등도 기획하는 등 그 활동의 범위를 점차 넓혀 가고 있다.

50년을 지내온 설악문화제, 거리의 풍경도 달라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달라졌지만 속초의 문화와 예술을 함께 공유해온 속초시민의 자랑스런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개성이 넘치는 속초시민의 끼가 발산되는 속초 대표축제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을 기대한다.

설악문화제 50년 略史

- 제1회 설악제 (1966년 10월 1~3일)
 - 주최 : 예충강원도지부
 - 주관 : 예충속초시지부
 - 협찬 : 설악산악회, 한국일보사
 - 주요행사 : 전야제, 설악산 사진공모전, 사진촬영대회, 미협회원전, 미술실기대회, 취주악(브라스밴드, 吹奏樂)경연대회, 음악및무용의밤, 동시백일장, 관광영화의밤, 등산대회, 카니발, 이름모를 자유의 용사비 제사(祭事), 종합시상식 총 13개 행사
 - 등산대회 : 외가평-백담사(야영)-대청봉(야영)-정고평-제레-카니발 예정 (2박3일)
10월 3일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 참가자 1백여명 고립되어 다음날 하산.

- 제2회 설악제 (1967년 10월 7~9일)
 - 산신제, 풍어제 등 제례, 햇불시가행진 등에 시민 참여, 북청사자놀이 시연, 축구 씨름 등 10종목의 체육경기 개최
 - 등산대회 : 백담사(야영)-영시암-오세암(야영)-마등령-금강문-유선대-금강굴-비선대-정고평-신-
 - 홍사 코스, 6백여명 참가. 대한산악연맹과 한국산악회, 서울산악회, 에코클럽 등 전국의 산악회 후원에 포함.
 - 박정희 대통령 8일 하오 가족과 함께 강원도 속초로 향발. 속초, 강릉 등을 돌아보고 설악제에 참석. 9일 하오 늦게 귀경

- 제3회 설악제 (1968년 10월 9~11일)
 - 설악제위원회 조직. 위원장에 속초시장. 등산대회는 설악산악회 주관.
 - 박경원 도지사를 비롯한 문화계 학계 언론계 인사 초청.
 - 풍어제, 햇불행진, 미술대회, 음악회, 각종 체육행사, 등산대회, 산악왕 선발.
 - 등산대회 : 신흥사-정고평(무명용사 위령제 후 야영)-양폭-가야동(야영)-소청-중청-독주폭-남설악(오색)코스. 시가행진 : 등산 전에 속초시청 광장에 집결하여 속초중학교까지 시가행진.

- 제4회 설악제 (1969년 10월 3~5일)
 - 등산대회, 민속무용발표, 무명용사 및 산악조난자 위령제, 산악왕 선발 - 등산대회 : 정고평 (야영)-비선대-천불동계곡-대청봉-봉정암(야영)-오세암-마등령-신흥사 2박3일 일정. 전국에서 1천5백여명 산악인 참가.
 - 시가행진 : 3일 오후 3시 1천여명의 알피니스트 참가 개막. 속초시청 앞 광장에 집합. 각 산악반의 깃발을 앞세우고 시가행진. 오후 5시 노루목고개에 도착. 설악산 조난자 10명의 한국산악회 회원 명복을 빌고 정고평에서 야영 시작.
문화예술행사 대폭 축소, 풍어제 누락, 산악행사 주축으로 진행되어 예술인들 불만 표출

- 제5회 설악제 (1970년 10월 1~4일)
 - 등산대회, 민속무용 발표, 산악 조난자 위령제, 산악왕 선발, 북청사자놀이 재연, 신흥사부도시식, 시민등산대회(비선대 구간)
 - 전야제(1일 오후 7시, 불꽃놀이) 산신제 (2일 새벽), 신흥사 부도시식(2일), 초등학교 대항 체육대회(3일, 공설운동장), 북청사자놀이 및 종합예술제(4일) 개최.
 - 시가행진 : 10월 1일 시청광장에서 속초중학교까지 시가행진. 2천여명 참가. 버스 편으로 노루목고개에 도착. 설악산 조난자 위령제를 지내고 정고평에서 캠핑 시작. 산악왕 선발.
 - 등산대회 : 신흥사-양폭-희운각-대청-화채봉-잣나무골-소토왕-설악동 코스와 설악동-권금성-잣나무골-소토왕-설악동 코스, 두 개 코스로 진행.

- 제6회 설악제 (1971년 10월 8~10일)
 - 신흥사 참여하여 보살계 대법회와 부도제 봉행 등 개최, 등산대회, 설악산 위산제, 무명용사 및 산악 조난자 위령제, 산악왕 선발.
 - 등산대회 : 설악동-양폭-희운각-오세암(1박)-마등령-설악문-유선대-금강굴-비선대-설악동 코스(1박 2일). 산악왕 선발. 전국 93개 산악회 참가로 역대 최고 기록. 1천여명 참가.

- 1972년 정부의 지시로 설악제 폐지 결정
 - 1972년 3월 15일 정부의 지역축제 축소 폐지 방침에 따라 설악제 폐지기로 결정. 강원도에서는 단오제와 율곡제, 단종제만 존속기로 함. 설악제는 전통문화제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행사기금 조성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결정하고 등반행사만 매년 개최하기로 함.

- 제7회 설악제 (1972년 10월 7~9일)
 - 순수 민간행사로 진행된 등산대회 외 다른 행사는 모두 폐지. 설악산등반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설악산악회 주최로 등반대회 진행.
 - 등산대회 : 남설악(오색)-설악폭포-대청-중청-소청-희운각-양폭-비선대-설악동 코스, 3천여명 참가.

- 제8회 설악제 (1973년 10월 6~9일)
 - 설악제 부활(설악제위원장 엄대현 속초시장), 예산 지원 받던 문화예술행사 전면중단.
 - 등산대회 :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 속초시 설악동, 인제군 용대리, 양양군 오색리 등 지정 4개 코스로 대청봉으로 올라 9일 설악동으로 하산. 6일 오후 5시 자유용사비가 있는 정고평에 모여 위산제와 전야제 거행. 5천여명 참가(일본 등 해외등산가 30여명 포함)
 - 10월 6일 오후 7시 정고평에서 개막식 거행. 정일권 국회의장 치사. 산악조난자 위령제와 산악왕 선발.
 - 10월 24일 설악제 시민테니스대회 개최, 10월 20일부터 2박3일간 제1회 남녀궁도대회 개최. 3백여명 출전.
 - * 예총속초시지부가 주최하는 속초종합예술제가 설악제와 별도로 1973년 10월 20일 개최 (시낭송, 성악 및 기악, 무용 등 공연)

- 제9회 설악제 (1974년 10월 3~4일)
 - 등산대회 : 3일 오후 6시 양양군 서면 오색리광장 3천여명 전야제 개최, 카니발 마치고 야영. 4일 새벽 오색약수터에서 양양군수 주재로 입산식 거행. 한국산악회 등 83개 산악회 참가. 오색-대청봉-소청-희운각-양폭-비선대-정고평(위산제)-설악동 하산(23km)

- 예술제 : 4일 설악동 관광촌에서 예총속초시지부 주최 예술제 개최
 - 등산대회 시상 : 산악왕 선발, 대청상, 공로상, 다수참가상, 장거리상, 최연소자상, 초고령자상 시상.
- 제10회 설악제 (1975년 10월 17~19일)
 - 공설운동장과 설악동 일대에서 행사 개최
 - 어민참여 풍어대회 처음 개최 : 용왕제, 종선경기, 명태낚시 미끼 꿰기, 오징어할복대회, 종선경기는 전마선을 타고 청초호 내 2km를 주파하는 경기로 10척 출전.
 - 개막식 정일권 국회의장, 박종성지사, 미국 하원의원과 이은상 한국산악회장,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사장 등 다수 참석.
 - 문화예술행사 축소 개최
 - 새마을위안잔치, 궁도대회, 전국테니스대회, 사이클대회 등 개최.
 - 등산대회 : 3개코스로 2일간 진행. 남녀등산왕 선발. A코스(오색-설악동) B코스(백담사-마등령-설악동) C코스(설악동-화채봉-하산). 5천여명 참가. 남녀등산왕 선발과 최고령상 시상.
 -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설악제 기간 중 설악동에 10만 인파, 36개 숙박업소 만실.
- 제11회 설악제 (1976년 10월 8~10일)
 - 등산대회 : 8일 오색에서 전국 3백여개 산악회와 관광객 1만여명 참가하여 전야제. 9일 오색약수터에서 양양군수 주관으로 입산식을 하고 출발, 대청봉과 천불동계곡을 거쳐 설악동으로 하산. 천불동계곡은 너무 등산인파가 몰려 빨리 하산하기조차 힘들 정도.
 - 산악왕, 산악여왕, 대청상, 중청상, 소청상, 설악왕 선발.
 - 설악제 기념 시민사이클대회 (속초시청-양양 20km)
 - 풍어제 11일 속초어협 어관장 용천제(龍天祭) 거행, 11개 어촌계 선수들이 제망경기, 명태낚시 미끼 꿰기 경기, 오징어할복경기, 전마선 경기, 줄다리기 경연, 북청사자놀이 시연.
 - 설악산에는 5만4천여명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 서울 어린이대공원 5만명보다 더 많이 몰림.
- 제12회 설악제 (1977년 10월 1~3일)
 - 향토문화제로 규모 확대
 - 풍어제를 겸한 어민경연대회, 전국바다낚시대회, 음악회, 운동경기, 궁도대회, 산신제, 등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 등산대회 : 10월 1일 오전 6시 정고평에서 개막식 거행. 황금연휴로 전국 300여개 산악회 1천2백여명, 단풍관광객 2만여명 대회 참가. 10월 2일 양양오색-대청-양폭-정고평(A코스), 백담-오세암-마등령-비선대-정고평(B코스) 두 코스로 등산대회 진행. 시간제 보행경기.
 - 설악대상과 산악왕, 산악여왕, 대청상, 중청상, 소청상, 원거리참가상, 최고령상, 다수참가상 수상. 풍어제 행사로 용왕제, 전마선경기, 제망대회, 명태낚시 미끼끼기, 오징어 배따기, 어민증산왕 선발, 효부상 시상, 북청사자놀이 진행.
 - 체육대회로 전국 궁도대회, 속초~설악산 20km 구간 왕복 사이클 경기, 전국테니스대회 등 개최.
 - 설악제 행사 동안 속초시내와 설악동 일대 통금 해제, 속초 설악동간 밤 12시까지 차량 계속 운행. 설악동 일대는 단풍객과 수학여행 학생들로 숙박시설 부족. 속초시내 1백31개 여관과 설악산 40개 여관 10월 15일까지 예약 완료. 민박도 바가지요금 기승.

- 제13회 설악제 (1978년 10월 14-16일)
 - 14일 오전 5시 설악동 정고평 이름모를 용사의 비 앞에서 산신제. 저녁 7시 속초공설운동장 전야제, 노루목단지에서 산악인 제전 캠프파이어 개최.
 - 등산대회 : 15일 아침 7시부터 설악동 3개 코스로 등반 시작. 설악동-양폭-대청봉-오색약수(A코스), 설악동-마등령-오세암-백담사(B코스), 설악동-권금성-화채봉-양폭-설악동(C코스)로 진행. 전국 80여개팀 산악회원 3천여명, 일반등산객 등 5만여명.
 - 남녀 산악왕 선발 및 설악산보호 산악인, 원거리 참가상, 숙녀상 시상.
 - 풍어제 : 전야제 20척의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켜고 해상퍼레이드, 풍어대회로 풍어기원제를 지내고, 전마선경주, 오징어배따기경연, 그물잡기경연, 명태잡이경연 등 11개 어촌계 참가 경연, 2만여명 어민 참가.
 - 바다낚시대회, 사이클 도로경기(속초~38선 왕복 80km)와 트랙경기, 테니스대회.
- 제14회 설악제 미개최 (1979년)
 - 설악제추진위원회는 1979년 10월 7일~9일 속초시와 공동으로 개최 예정. 10월 2일 긴급 회합 취소 결정. 등반대회를 비롯해 8개 종목의 축제를 벌이기로 하고 안내장까지 배부. 강원도가 소비절약 및 자연훼손 방지를 이유로 중단 요구 받아들여 취소 결정.
 - 1979년 11월 19일 오전 1시 정고평에서 설악산 산악 조난사고와 산불 방지를 기원하는 산신제만 조성운 시장 집전으로 개최.
- 제15회 설악제 (1980년 10월 3~5일)
 - 예년에 비해 간소하게 개최. 한시백일장, 산신제, 등산대회
 - 10월 3일 시청광장에서 산악인 모여 자연보호와 정화 결의대회 개최. 시청을 출발해 설악동B지구까지 시가행진.
 - 등산대회 : 4일 오전 권금성 출발, 화채봉, 양폭, 설악동 B지구 주차장 코스로 산행. 등산왕과 등산여왕 선발.
- 제16회 설악제 (1981년 10월 10~11일)
 - 정부의 지방문화제 육성 정책에 따라 5백만원 특별예산 지원
 - 전야제, 산신제, 망향제, 풍어제, 가장행렬, 등산대회, 바다낚시대회, 동대항체육대회(축구, 육상, 무장경기 등), 민속놀이(씨름, 그네 등)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 남녀 산악왕 선발
- 제17회 설악제 (1982년 10월 9~10일)
 - 등산대회, 산신제, 풍어제, 망향제, 가장행렬, 그네, 씨름, 노래자랑, 낚시대회, 사진촬영대회, 체육대회(무장경기,육상,축구,테니스,사이클)
 - 8일 전야제 행사로 속초 설악산간 등불행진.
 - 등산대회 7백여명, 속초항 바다낚시대회 5백여명 참가.
 - 연휴 설악산에 5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려.
 - 연휴기간 설악산에 10만 인파 몰려. 하산길 막혀 1천2백여명 산에서 노숙하는 사태 발생.
- 제18회 설악제 (1983년 9월 30~10월2일)

- 산신제(설악산), 망향제(수복탑), 한시백일장, 국악공연, 궁도대회, 등산대회, 전국바다릴წყ시대회, 풍어제, 산악왕 및 산악여왕 선발대회
- 등산대회 :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오색-대청봉-천불동-설악동코스(17km)
10월 1일 연휴 첫날 4만7천명, 2일 5만6천여명 등 10만여명 몰려.
 - 오색에서 대청봉, 천불동, 설악동 등산로 5천여명 갑자기 내린 소나기 밤 10시까지 내려오지 못해 속초시와 경찰에서 3백여명이 나와 밤늦도록 하산길 안내.
- 제19회 설악제(1984년 10월 1~3일)
 - 등산대회, 민속가장행렬경연대회(속초중학교, 7개동), 학생백일장, 산신제(설악산), 망향제(수복탑), 시민위안잔치(김삿꾹 악단, 작곡가 길옥윤씨 등 연예인 출연), 체육대회(육상, 배구, 축구, 사이클), 민속경기(줄다리기, 그네뛰기, 씨름 등)
 - 속초시민의날(10월 2일) 행사와 통합 개최
(1983년 제1회 시민의 날 행사 11월 17일부터 3일간 공설운동장에서 개최)⁸⁾
 - 제20회 설악제(1985년 10월 1~3일)
 - 9월 30일 수복탑 앞에서 전야제. 어선 20여척의 어선 집어등 밝히고 해상퍼레이드, 선박불꽃놀이와 청사초롱 시가행진, 폭죽놀이 진행.
 - 10월 1일 설악대제, 공설운동장 13개동 민속놀이 한마당 경연. 속초중학교에서 수복탑을 거쳐 공설운동장까지 시가행진(북청사자놀이, 여학생 강강술래 등)
 - 10월 2일과 3일 체육대회와 시민위안잔치, 등산대회 등 진행. 연극공연, 학생백일장, 서예 박공예 수석전시, 사진전시 부대행사 진행.
 - 등산대회 : 등산왕와 등산여왕 선발 시상. 대청상, 중청상, 소청상, 장려상 수상. 서울남산산악회 20여년 동안 참여로 최다 참가상 수상.
 - 제21회 설악제(1986년 9월 13~17일)
 - 86아시안게임 성화 봉송을 맞이하여 축제를 예년보다 앞당겨 개최.
 - 제22회 설악제(1987년 10월 1~3일)
 - 1987년 8월 20일 설악제위원회 정기총회에서 22회 설악제부터 민간주도로 추진키로 결정, 김용구 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원진 개편.
 - 1988년 3월 2일 제22회 설악제 백서 발간(145쪽)
 - 제23회 설악제(1988년 9월 10~12일)
 - 서울올림픽(1988년 9월 17일~10월 2일)을 맞아 앞당겨 개최.
 - 전야제(9일), 민속경연, 농악시연, 마당놀이, 굿마당 등 32개 종목 개최.
 - 제24회 설악제(1989년 10월 10~13일)
 - 주최 설악제추진위원회 주관 속초시청 전야제, 산신제, 설악대제, 제1회 속초시민문화상 시상식(개막식), 제1회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민속

8) 시정50년사(2013, 속초시) 하권 176p

경기, 체육경기, 백일장, 사생대회, 사진전, 서예전, 미술전, 연극공연.

- 설악산악회 주관하던 등산대회 설악제위원회에서 직접 주관, 산악왕 선발 폐지
- 이기섭 설악제위원장 (27회까지 주관)

• 제25회 설악제 (1990년 10월 11~13일)

- 설악산악연맹 창립되어 등산대회 주관.
- 총 39개 종목 행사. 설악대제, 제례행사, 불꽃놀이 등 전야제, 민속시연과 헬기축하비행 등 공개행사, 등반행사, 한시백일장 등 예술행사, 씨름 등 민속경기, 축구 등 체육행사. 시가행진
- 개회식에서 제2회 시민문화상 시상식 개최.
- 제2회 설악산단풍아가씨 선발대회(문화회관, 2회로 종료), 시립합창단 창단 발표회

• 제26회 설악제 (1991년 10월 1~3일)

- 1991년 5월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서 환경훼손을 이유로 국립공원 내 축제 행사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 설악제도 등산대회 규모를 축소하고 속초공설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기로.
- 9월 30일 설악대제 (산신제, 영신제), 전야제, 제등행렬과 시가행진, 불꽃놀이.
- 등산대회 1일 오후 4시 설악동소공원 원로산악인 및 설악산 조난자 추모식,
- 성화채화 실시.
민속놀이와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개최
- 등산대회 : 매년 개최하지만 참여자가 많지 않음.
해상 불꽃놀이 과소비 풍조 퇴치 이유로 취소 등 예년에 비해 축소.

• 제27회 설악제(1992년 10월 1~4일)

- 설악대제, 불꽃놀이,
- 10월 1일 개막식 동별 가장행렬, 시가행진(속초초교-공설운동장), 제4회 속초시민문화상 수상
공개행사: 초등생 매스게임, 농악시연, 북청사자놀이, 농악대경연
- 10월 2일 낮 12시 권금성 칠선녀 태양열로 성화 채화, 설악동 설악제 임원들이 봉송.
- 등산대회 : 산악왕 선발.
- 문화행사 : 꽃꽂이전, 분재전시회, 주부가요열창, 연극공연 등.
- 민속행사 : 줄다리기, 그네타기, 널뛰기, 민속족구, 궁도대회
- 체육행사 : 배구, 족구, 육상, 게이트볼 시범경기
- 설악제위원회 북한 어린이축구단 초청 10월 친선경기계획 추진 결의(금강군내인민학교 축구단). 중앙부처와 협의하기로 7명의 추진위 구성했으나 불발.

• 제28회 설악제 (1993년 10월 1~3일)

- 시승격 30주년 기념
- 산신제와 전야제, 설악대제, 가장행렬, 시가행진, 공설운동장 개회식. 제5회 시민문화상 시상. 씨름, 줄다리기, 민속족구 등 민속행사와 축구, 배구 등 체육대회. 시민현장탐 건립기공식. 연극제와 국악 공연, 전시회, 주부노래자랑 등 모두 37개 종목 행사.

• 제29회 설악제 (1994년 10월 7~9일)

- 개막식 속초공설운동장에서 개최.
 - 제례행사 : 산신제와 설악대제
 - 해상불꽃놀이, 제등행렬, 시가행진, 공개행사, 산악행사, 각종 공연, 민속행사, 체육행사, 시민노래자랑, 꽃꽂이전 등 35개 종목 개최.
- 제30회 설악문화제 (1995년 10월 9~11일)
 - 설악제를 설악문화제로 이름 변경.
 - 개막식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시가행진. 체육대회(배구 등), 시립합창단 발표회.
 - 10월 7일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 설악문화제연구단 운영 (1995년~1996년)
 - 1995년 8월 30일 총회에서 '설악문화제연구단'(단장 최용문)을 구성하고 20명의 연구위원 선임. 축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
 - 1996년 상반기까지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마련해 설악문화제위원회에 제의
 - ① 전통민속제전을 주간으로 하고 체육대회를 지양한다.
 - ② 연출자와 관객이 혼연되는 한마당을 위해 종전의 공설운동장을 지양한다.
 - ③ 대제를 통일염원제로 승화시킨다.
 - ④ 각 동태향경쟁을 지양한다.
 - ⑤ 산악, 해양, 토착문화로 크게 구분하고 여기에 실향민문화를 부각시킨다.
- 제31회 설악문화제 (1996년 10월 4~6일)
 - 설악문화제 연구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행사장을 공설운동장에서 동명항 향만매립지로 이전 개최.
 - 설악대제, 설악산악제전, 통일염원제전, 설악예술축전, 해양문화제전, 향토민속축전, 거리문화축전으로 개최.
 - 거리퍼레이드, 퀴즈게임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통일염원제전 '실향민의 밤' 행사, 해양문화제전 '잃어버린소리(어요)를 찾아' 공연.
 - 북한 무장간첩 소통작전이 장기화되면서 설악산 대부분 입산금지 지역으로 묶여 산악행사 일부 축소.
- 제32회 설악문화제 (1997년 10월 2~4일)
 - 행사장 : 동명항 향만매립지, 속초도심과 설악산
 - 10월 2일 설악동 소공원 산신제, 오후 3시 대포동 수협어판장 용왕제, 성황제, 삼신탄동제, 동해별신굿마당 등 제례의식.
 - 10월 2일 오후 6시 속초시 도로변에 내걸린 오징어등 점화, 제등행렬과 시가행진(교동 학생체육관-동명항) 오후 7시 동명항, 설악동 소공원 불꽃놀이. 동명항 통일염원의 밤 행사, 문화회관 대강당 가을콘서트 개최.
 - 10월 3일 오전 시내 가장행렬, 동명항 주행사장 개회식
 - 설악제례, 산악제전, 통일염원의 밤, 설악예술축전, 해양문화제전, 향토민속축전, 거리문화축전, 놀이문화축전
 - 설악가요대축제 개최
- 제33회 설악문화제 (1998년 10월 1~3일)
 - 청소년가요제, '98설악재즈페스티벌 개최. 시가행진.

- 산악인추모제(설악산악연맹 주최), 씨름대회, 시민가요제,
- 제34회 설악문화제 (1999년 10월 1~3일)
 - 동명항 매립지, 종합경기장, 설악산 일원
 -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 기간에 열림.
 - 축하공연, 노인교양대학 발표회, 전마선대회, 오징어할복대회, 줄다리기, 한마당놀이
- 제35회 설악문화제 (2000년 9월 30일 ~ 10월 2일)
 - 청초호유원지 엑스포광장, 설악산, 공설운동장, 문화회관 개최 8개 부문 44개 종목 행사 개최.
 - 설악문화제를 순수문화축제로 정착시키고 전통문화예술과 지역을 대표하는 산악, 해양, 실향민문화를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
 - 개막 첫날 설악산 권금성 봉화대에서 성화채화를 시작으로 산악인추모행사, 산악인 한마음잔치, 산악장비 전시회, 제례행사, 통일염원제전, 놀이문화축전 개최.
 -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한마당잔치.
 - 가을콘서트 합창과 솔로의 밤, 창작 관현악곡 ‘청산’발표 공연(세종국악관현악단), 갯마당 공연
- 제36회 설악문화제 (2001년 10월 12~14일)
 - 청초호유원지내 상설이벤트장(엑스포광장)과 설악산 일대
 - 산악·해양·실향민 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문화축제
 - 제례, 통일염원제전, 설악산악제전, 해양문화제전, 설악예술축전, 거리문화축전, 향토민속축전, 놀이문화축전 8개 부문 64종 행사 개최.
 - 향토민속 행사로 도리원농악, 마상무예 시연, 투호, 궁도대회
 - 통일염원의 밤, 범선 노젓기, 오징어 할복, 갯배 끌기대회 등 지역 정체성이 담겨진 향토문화축제로 발전.
 - 갯배끌기대회, 제1회 설악가요제 선보여.
- 제37회 설악문화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로 전면취소
 - 11월 2일 태풍 루사 희생자 합동위령제와 삼신험동제를 속초시와 속초문화원 주최로 수복기념탑에서 개최.
- 제38회 설악문화제 (2003년 10월 2~5일)
 - 시승격 40주년 기념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과 설악산일원
 - 기본방향 : 민족통일 분위기 조성, 전통문화예술 발굴, 향토문화의 축제화, 시민·관광객이 참여하는 체험형축제
 - 산악과 해양, 실향민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 10월 2일 권금성 봉화대에서의 통일대제, 통일염원법회, 제등행렬
 - 10월 3일 백두산소년예술단 초청공연, 초청가수 공연
 - 10월 4일 갯배끌기와 산악인 한마음 잔치
 - 10월 5일 바다낚시대회와 통일염원 전국등산대회 진행.
 - 문화예술행사 : 설악가요제, 거리시화전, 서예백일장,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

- 제39회 설악문화제 (2004년 10월 15~17일)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과 설악산일원
 - 제례행사(통일대제, 산신제, 용왕제, 삼신합동제, 조전제, 송신제), 설악산악제전(산악인 추모행사, 산악인 한마음큰잔치, 통일염원 전국등산대회),
 - 15일, 권금성 봉화대에서 통일대제로 시작. 17일 훈춘시예술단 초청공연 폐막.

- 2005년 6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사무국 업무 속초문화원 이양.

- 제40회 설악문화제 (2005년 10월 14-16일)
 - 40주년 설악문화제 민간주도로 진행(지역 민간단체에서 행사 주관 진행)
 - 설악산과 청초호유원지내 상설이벤트장.
 - 투호대회 등 동별 자체행사 마련해 주민참여율 높였고 해외 자매도시간의 문화공연 등 볼거리 제공. 도문메나리농요 시연, 한지공예, 전통통과의례상차림 전시, 8도음식 시식회 코너 처음 신설로 인기.
 - 제례 : 통일대제(권금성 봉화대), 산신제(설악산소공원), 용왕제(설악해맞이공원), 위패봉송, 삼신합동제(설악산신, 동해용왕신, 조양동 성황신), 망향제(수복기념탑), 조전제, 송신제, 제례굿(산신맞이굿, 동해안별신굿 등).
 - 통일염원제전 : 제등행렬, 통일염원의 밤(평양민족예술단 공연, 개회식, 초청가수와 합창단 공연, 불꽃놀이), 갯배끌기대회, 8도음식시식, 통일풍선나눠주기.
 - 설악산악제전 : 산악인추모제, 단풍등산축제(오색-대청봉-희운각-천불동계곡-소공원-아영장), 산악인한마음큰잔치(설악산야영장).
 - 해양문화제전 : 범선경기, 로프던지기, 든대질놀이, 오징어할복경기, 어선무료승선체험.
 - 설악예술축전 : 거리시화전, 설악가요제 왕중왕전, 설악아동화거리축제, 설악서예백일장, 속초사진협회전, 훈춘촬영가협회 사진전, 도자기체험교실, 훈춘시 해당화예술단 초청공연, 분재전시회, 꽃꽂이전시회, 제8회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꽃누루미체험 및 전시, 디지털 가족사진 무료촬영, 전통국악인 초청공연, 전통오색한지공예 전시 및 체험.
 - 청소년문화축전 :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 한마당(21개교 참가), 강원도청소년 댄싱경연대회,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 향토민속축전 : 마상무예시연, 도문메나리농요시연, 그네, 널뛰기, 씨름, 궁도대회, 건오징어와 과일야채공예 전시회, 불꽃놀이, 판줄공연, 시민강좌발표회, 게이트볼대회, 자통놀이, 줄다리기, 투호, 전통떡메치기, 전통통과의례 상차림.

- 2006년 4월 20일 설악문화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주제발표 : ‘설악문화제 이미지 측정을 통한 관광마케팅’(최임규 동우대 교수), ‘설악문화제 민속학적 고찰’(장정룡 강릉대 교수), ‘설악문화제 발전방안’(소대영 경동대 교수), ‘설악문화제 주제와 비전’(조성진 강원대 주임교수).
 - 토론회 진행

- 2006년 4월 28일 설악문화제 운영위원회
 - 토론회 제안을 근거로 설악문화제 주제를 ‘설악산 지역전통 민속문화’, ‘실향민 문화’, ‘해양문화제전’, ‘청소년놀이문화축전’ 등에서, ‘설악산예술제’, ‘실향민문화제’, ‘해양문화제’ 등 3가지로 변경키

로 결정.

- 제41회 설악문화제 (2006년 10월 12~16일)
 - 청초호유원지와 설악산 외에 중앙시장, 외옹치해수욕장으로 행사장 확대.
 - 설악산악제, 실향민축제, 해양문화제 3개 부문으로 통합. 축제의 정체성과 차별화 부각.
 - 전국갯배끌기대회 개최. 청룡, 황룡호 두 대의 갯배를 청초호에 띄워 관광체험시설로 사용.
 - 널뛰기, 그네, 투호, 씨름 등은 정월대보름행사로 개최기로 하고 폐지.
 - 신설 프로그램 : 전국갯배끌기와 울산바위 힘겨루기(줄다리기), 흔들바위 굴리기, 청룡황룡 겨루기, 논피호불꽃놀이. 외옹치 바다낚시대회.
 - 전시체험 부스 신설 : 탈만들기, 염색, 도자기체험, 6.25 음식 회상전 등 체험행사 인기
 - 중앙시장에서 처음 행사진행 : 훈춘소년예술단 공연, 통일가요제, 전국청소년품물겨루기, 청소년댄스경연대회
 - 처음으로 품물난장 지역주민 입점(먹거리촌과 중앙시장 상인 향토음식점 운영 성황, 지역 특산물 업체, 의류판매점 입점). 외지상인 품물장터 임대해 주고 15개 부스만 지역주민 사용.
 - 전국산악인등반대회 (1천명 참가)
 - 전국적인 특화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 마련 평가

- 제42회 설악문화제 (2007년 10월 11~14일)
 - 속초 청초호유원지,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속초시내
 - 2007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축제장 인근에 함께 개최
 - 품물장터 50개를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분양 (특산물, 음식점, 잡화점, 공산품 등)
 - 지난해부터 변경된 설악산악제, 해양민속제, 실향민축제 등 3개 메인행사와 참여체험 위주 부대행사 총 70여개 행사 진행
 - 신설행사 : 거리카니발(거리페스티벌, 속초의 역사를 재현한 거리퍼포먼스, 문화난장 진행)
 - 슬로건 : 렛츠 설악 페스티벌 2007(Let's Seorak Festival 2007)
 - 설악산악제 : 8개의 제례행사, 전국산악인등반대회(설악동-계조암), 산악인추모제, 찾아가는국립공원
 - 해양민속제 : 흔들바위 굴리기, 청룡황룡힘겨루기, 전국바다낚시대회, 오징어할복경기, 도농농요시연 등
 - 실향민축제 : 전국갯배끌기대회, 팔도음식 시식과 6.25음식 회상전, 북청사자놀음, 통일가요제와 통일시화전, 훈춘어린이예술단 공연, 결혼이민자여성 자국음식 뽐내기.
 - 공연 및 전시, 체험 부대행사 진행

- 제43회 설악문화제 (2008년 10월 17~19일)
 - 제1회 젓갈축제와 함께 개최. 젓갈 체험행사와 시식회.
 - 속초 청초호유원지,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속초시내
 - 10월 한 달 대한민국온천대축제(10일~16일), 강원과학축전(24일~26일)이 함께 열려 '10월은 축제의 계절'이라고 홍보
 - 슬로건 : 공감(共感) 감동!(感動) 필 설악페스티벌(Feel Seorakfestival)
 - 설악산악제전, 해양민속제전, 실향민축제 3개 주제로 70여개 행사 진행
 - 동별 민속경기 대항 '시민한마당' 신설 개최 (울산바위 힘겨루기, 흔들바위 굴리기, 청룡황룡 겨루기, 전통떡메치기 대회, 오징어할복경기, 죽마타기 6종목)

- 전국산악인등반대회 : 설악산악연맹 주관 10월 19일 목우재정상-달마봉 정상-계조암-신흥사-소공원 코스로 진행.
- 육군 8군단 ‘영동 Army Festival’ 진행
- 2008년 9월 12일부터 11월2일까지 46일간 갯배 무료 체험장 운영.
- 2009년 3월 11일 결산총회에서 사무국을 문화원에서 독립시켜 별도 운영하기로 의결.
- 제44회 설악문화제 (2009년)
 -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행사 취소, 설악제례(설악산신제, 용왕제, 망향제, 송신제)만 10월 16일 거행 당초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대응한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 9월 9일 행사 취소 결정. 지역축제 개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행안부의 방침 변경으로 9월 13일 설악문화제위원회에서 축제 개최 결정. 그러나 9월 15일 속초시의회에서 예산편성 사업계획서 미제출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설악문화제 개최 취소.
- 제45회 설악문화제 (2010년 10월 3주간)
 - 축제 주행사장을 설악로데오거리(속초시내)로 이전하여 거리페스티벌 처음 시작
 - 10월 3주간 테마별로 행사 개최
 - 10월 2~3일 속초시민한마당 (청초호유원지)
설악대제(산신제례, 성황제, 용왕제를 비롯한 속초 축원 곳 한마당), 울산바위 힘겨루기, 왕장기대회, 오징어할복대회, 죽마타기대회, 왕장기대회, 떡메치기대회, 도문메나리와 북청사자놀이 공연, 주민 자치센터 문화예술발표회, 2010 과학 짝 잔치(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개최
 - 10월 9~10일 설악제 (설악산 일원)
산악인 영령 추모제, 전국 산악인 등반대회(달마봉코스), 산악인 엄홍길 초청강연 및 별 체험, 설악산 단풍콘서트, 소공원 행사장 건오징어 야채공예전시회, 설악산 사진전, 꽃누르미 전시회, 전국바다낚시대회 등 개최.
 - 10월 15~16일 설악로데오거리축제 (설악로데오거리 및 청초호유원지)
거리퍼레이드(2일간 4회, 속초시립풍물단의 키다리 길놀이, 결혼이민여성 전통의상, 고등학교 고적대, 캐릭터 인형, 중국 훈춘어린이예술단과 일본요노고시민속단 등), 문화예술교육발표회,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다 공연, 책 축제, 각종 체험행사 및 전시행사, 실향민 음식과 삼도음식, 6.25 음식 체험, 각종 만들기 체험 등 개최. 해오미속초21의 ‘차 없는 거리’ 환경시민축제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2010 책축제, 속초시립박물관 실향민 문화체험행사(청호동 아바이마을) 함께 개최.
 - 설악문화제 프레행사로 9월 24일, 25일 양일간 시내에서 거리공연행사
- 제46회 설악문화제 (2011년 10월 15~16일, 22~23일 2주간)
 - 산악페스티벌과 거리페스티벌을 나누어 2주간에 걸쳐 진행
 - 시민한마당 행사와 거리페스티벌 행사를 모두 속초 시내거리인 설악로데오거리에서 개최하여 지역 상경기 활성화 도모.
 - 거리페스티벌 기간 동안 신라예식장-서독약국 교통 통제.
 - 산악페스티벌 (10월 15~16일)

처음 시도되는 ‘제1회 공룡농선 하늘길 걷기’(15일 야영, 16일 산행), ‘설악단풍길 걷기’(16일), 설악 산산소길 생태탐방, 메이플 콘서트, 설악문화제 사진 콘테스트 등

- 거리페스티벌 (10월 22~23일)

전문공연단체와 지역전문예술단체, 8개동 주민이 참여하는 거리퍼레이드, 전국 바다낚시대회, 실향 민문화제, 과학 싹 잔치, 건강도시 선포 2주년 기념행사, 차 없는 거리 녹색환경축제, 각종 전시 및 체험행사, 속초시민한마당 (전통떡메치기대회, 오징어할복대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 및 전시회, 죽마타기대회, 왕장기대회, 속초도문농요 발표회 등), 반려동물 문화축제, 어선무료승선체험 등.

- 속초젓갈, 붉은대게축제 청호동 아바이마을에서 거리페스티벌 기간에 함께 개최.

• 2011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로 법인 등기 완료

• 제47회 설악문화제 (2012년 10월 5~7일, 13~14일 2주간)

- 설악문화제위원회 사단법인화 이후 첫 축제 진행

- 제례 : 산신제, 용왕제, 영신제

- 거리페스티벌 : 10월 5~7일 설악로데오거리와 속초해변에서 개최

- 거리퍼레이드(총 43개팀 3일간 6회 진행, 칠레, 멕시코, 폴란드, 핀란드, 대만, 브라질 등 25개국의 해외공연단과 지역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8개 동 주민자치센터 등 43개 팀 참여)

- 속초시대표음식 홍보관, 속초도문농요 공연, 어선 무료승선 체험, 오징어할복대회, 포토페스티벌, 애견 페스티벌, 시민 예술 문화 동아리 경연대회, 학교문화예술발표회, 속초굿한마당, 울산바위 힘겨루기, 단체 줄넘기 대회, 왕장기대회, 민속놀이체험마당, 제6회 전국바다낚시대회 등 개최.

- 산악페스티벌 : 10월 13~14일 설악산

공룡농산 하늘 길 걷기, 설악산 단풍길 걷기(달마봉코스), 설악산 음악축제, 설악 포토 페스티벌, 갈매 거리 시화전, 속초도문농요 및 북청사자놀이 발표회, 분재전시회 등

- 2012 강원도우수축제 선정.

• 2013년 4월 22일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로 명칭 변경

• 제48회 설악문화제 (2013년 10월 5~6일, 11~13일 2주간)

-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 축제

- 산악페스티벌 : 10월 5~6일, 설악산

설악산 공룡농선 하늘 길 걷기, 설악단풍길 걷기, 설악산 산소길 생태탐방,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설악산 숲길 힐링 체험, 설악의 야생화 꽃 사진 전시회 등

- 거리페스티벌 : 10월 11~13일 설악로데오거리 등 시내

거리퍼레이드(콜롬비아, 이집트, 가나 등 3개국 전문공연단체 초청, 28개 예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 속초시민한마당(오징어할복대회와 줄다리기대회 등), 속초전국바다낚시대회, 거리공연, 속초음식홍보관(냉면,아바이순대), 반려견 문화축제, 무료요트체험,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먹거리축제, 과학싹잔치(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시민건강대체험, 속초젓갈축제(대포농공단지) 등 연계행사 개최. 축제기간 중 엑스포광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진행.

- 2013 강원도우수축제 선정.

- 제49회 설악문화제 (2014년 10월 4~5일, 10~12일 2주간)
 - 산악페스티벌 : 10월 4~5일, 설악산
 - 속초 둘레길 걷기, 감성자극 콘서트,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설악산 숲길 힐링체험, 최낙민 설악산 사진전, 갈피 설악 숲속 시화전 개최
 - 거리페스티벌 : 10월 10~12일 설악로데오거리 등 시내
거리퍼레이드(훈춘공연단 및 지역단체팀 등 15개 팀 참가), 속초시민한마당(오징어할복대회와 줄다리기대회, 전통떡메치기 등), 거리공연, 무료요트체험,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먹거리축제, 과학썩잔치(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시민건강대체험, 각종 전시 및 체험행사 등 개최.
 - 국립공원 측의 달마봉 코스 불허로 설악문화제 차원에서의 등산대회가 취소되자, 그동안 등산대회를 주관해온 설악산악연맹은 이에 반발해 설악문화제와 별도로 “설악제 제모습찾기 등산대회 및 산악인 추모제를 개최.

- 제50회 설악문화제 (2015년 10월 3~4일, 8~10일 2주간)
 - 설악문화제 50회 기념 행사
 - 제례 : 권금성 칠선녀 성화 채화행사 재현, 산신제 등 제례 진행.
 - 산악페스티벌 : 10월 3~4일, 설악산
설악산악연맹 주최로 산악인추모제,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 등반(250명 참가), 설악산 단풍길 걷기(500명 참가) 진행. 유명산악인 사인회, 등반 장비 전시회, 소공원 작은 음악회, 숲속 시화전,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생태 숲 체험, 산악박물관 에베레스트 사진전, 어린이 대상 ‘에베레스트 전설을 만나다’ 진행 등
 - 거리페스티벌 : 10월 8~10일 설악로데오거리 등 시내
 - ‘걷고 뛰고 춤추어라’라는 슬로건으로 거리퍼레이드(28개 공연팀과 동아리, 사회단체, 8개동 퍼레이드 참가, 3일간 5회 진행), 속초시민한마당(오징어할복대회와 줄다리기대회, 전통떡메치기, 한궁대회, 시민문화예술 동아리경연대회 등), 거리공연, 무료요트체험,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먹거리축제, 과학썩잔치(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시민건강대체험, 농촌관광체험축제, 사회적기업 전용홍보 부스 운영, 각종 전시 및 체험행사, 훈춘시 요나고시 초청공연, 속초북청사자놀이 공연과 속초도문농요 발표회 등 개최.
 - 거리페스티벌 기간 중 ‘수산도시 속초! 영광재현 프로젝트 추억의 파시전’(추억의 다방과 DJ, 옛교실, 선물집, 공동펌프와 우물 재현), 창작공연 ‘청호동사람들’, 청소년축제한마당,

[참고문헌]

- 속초시지 (1991, 속초시)
- 속초시사 (2006, 속초시·속초문화원)
- 시정50년사 (2013, 속초시)
- 속초문화 1호~30호 (속초문화원발간)
- 신문기사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설악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 설악의 솜다리꽃 인생, 이기섭 (속초문화원, 2009년)
- 설악문화제 홈페이지

속초 민예총의 과거와 현재

박종헌(속초민예총 회원)

1.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창립

1987년 6월항쟁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된 민주화운동에 부응하여 1988년 11월 26일 고은·백낙청·이건용·임진택 등이 발기인대회를 열고 같은 해 12월 23일 민족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운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여 서울 YWCA 강당에서 설립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은 공동의장에 고은(시인), 조성국(무형문화재), 김윤수(미술평론가)를 선출하고, 사무총장에 신경림(시인)을 두었다. 따라서 민예총의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문학가를 중심으로 예술·영화·연극·음악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참여하였다. 이같은 과정을 살펴볼 때 1970~1980년대 내내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문예단체들이 하나의 조직 아래 결집한 우리 한국문화의 엄청난 도전이며 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민예총은 민중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0년부터 부문별 협의체 성격을 띤 연합회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1993년에

는 사단법인화를 추진하였고 1994년부터 조직이 각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초창기 주요 활동으로 월간으로《민족예술》과《민예총소식》을 간행하고, 문예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함께 ‘민족’이라는 강렬한 통일지향적 문화 정신으로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또한 기존의 관변 예술단체들이 가지고 있던 순수란 미명과 보수적 문화적 성향을 뒤 흔들어 놓게 되었다. 특히 민예총에서 중점사업으로 내세운 문화아카데미는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건축·춤 등 모든 예술장르를 망라한 전문강좌로 구성되어 대안적 문화예술의 실험적 모델이 되기도 했다.

민예총은 “민족예술을 지향하는 예술인들의 상호연대 및 공동실천을 통하여 민중의 삶에 기초한 민족문화예술을 건설함으로써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창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창립 목적은 기존의 예술인총연합회(예총)의 직접적 반발을 불러오고 불순한 단체로 모함을 받기도 했다.

민예총 창립 당시 회원은 839명에 불과했으나, 문민정부의 수립과 민주주의 성장에 따라 창립 10주년인 1998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회원수가 1만 명에 육박했으며, 가입 단체는 문학, 미술, 민족극, 사진 등을 포함한 9개 장르위원회로 확대되었고, 지회조직 역시 20여 개로 확대되는 등 명실상부한 진보적 문예운동 연합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속초지부(속초민예총)창립과배경

60년대와 70년대를 통과해오면서 겪은 굴욕적인 군사문화와 유신체제 등 억압적 정치상황은 80년대~90년대의 민주화 투쟁과 희생을 바탕으로 억압적 정치체제에 대한 반항과 동시에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지향적인 문화 수용에 대한 저항의식을 싹 틔웠으며, 전통문화에 눈을 돌려 자연스럽게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서울 중심의 문화권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확산을 가져왔으며 각 지방마다 민예총지부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민족예술을 지향하는 예술인들의 상호연대와 공동실천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통일 그리고 민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과 대중화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동참하는 지역 민예총이 시·도별로 속속 창립되는 가운데서도 유독 강원도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재된 강원도가 가지는 보수성 내지는 변방의식이 타 시·도의 문화 변혁과 정치적 진보의 물결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은연중 문화예술인의 정신을 윤택시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의 침체된 의식을 일깨운 것은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이었던 이상국 시인의 발의가 시초가 되었다.

지역의 문학동인회 예총 산하 <설악문우회>에서 갈라져 나와 <시마을>시동인 활동과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이상국 시인이 중심이 되어 1994년 조수현 연극인, 박종현 시인, 김창균 시인,

엄상빈 사진작가 등이 모여 강원도의 문화활동 전반에 자극제가 될 새로운 문화활동의 표방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함께하고, 준비위원장에 이상국시인을 추대하고, 사무국장에 김창균 시인을 두어 본격적인 창립준비를 했다. 발기인 대회를 거쳐 민예총의 설립 정신에 동의한 지역 예술인들이 1995년 1월24일 엄상빈 사진가를 초대 지부장으로 추대하며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속초지부를 탄생시켰다.

이같은 속초 민예총의 창립은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으며, 곧이어 두 달 후인 3월 춘천지부와 더불어 민예총 강원지회(초대 지회장: 이상국 시인)가 만들어졌다. 강원도에는 현재 9개(속초, 춘천, 원주, 동해, 강릉, 삼척, 태백, 정선, 영월)의 지부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고, 전국에는 63개의 지회, 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3. 속초 민예총 활동 개관

1995년 민예총 속초지부는 문학, 사진, 연극, 영화위원회의 4개위원회를 시작으로 현재 2013년엔 문학, 미술, 사진, 공예, 국악, 풍물굿, 민족극 7개의 협회를 갖춘 명실상부한 예술인 단체로 우뚝 서게 되었다.

창립 초기의 속초 민예총은 보수적인 지역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문화 활동 탓에 재정 확보나 회원 확보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지역문화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을 위해 각 위원회가 고유한 작품 활동과 시민과 공유하는 문화예술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민예총’이라는 이름이 시민들 속에 인식되었고, 속초예총과 함께 속초 지역의 문화 예술을 이끄는 쌍두마차로서의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문화예술의 지방 분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중앙집중화 현상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편향된 문화집중 현상은 예술 대중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90년대 들어 문화부가 신설되었지만 관주도의 문화정책은 지방문화의 약화라는 기형적 문화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각 시·도 지자체의 문화재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빈곤 속에서 예술인들의 활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관료기구로 전락한 문화재단은 문화행정이란 미명 아래 막강한 지원금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조적 활동을 지배하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강원도만의 문제만의 일은 아니었다.

속초문화의 발전을 위한다는 발상으로 속초문화관을 민간 위탁 운영을 시도하여 자유로운 발표공간을 없애려는 속초시의 의도에 대해 민예총이 적극 반대하였던 사실이나, 일부 보수적 문예단체에는 사무실과 지원금을 주고 민예총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는 차별적 행위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좁은 지역에 문예단체가 둘씩이나 뛰가 필요하냐면서 노골적으로 소위 빨갱이 단체라면서 속초 민예총의 출범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같은 민족문화예술에 대한 폄하와 비난이 사그러들게 하는 데는 주간지 <속초신문>이란 지역신문의 창간이라는 민주 언론지가 한 몫을 하였다.

“지역사회의 밑돌, 지방문화의 활성화, 생활정보의 전달, 주민을 위한 신문”이란 사시를 내걸고 1990년 5월 28일 창간한 주간 <속초신문>(초대 발행인 박종헌 시인/ 뒤에 ‘설악신문’으로 제호 변경)은 지역의 진보적 언론지를 표방하면서 중앙집권적 정치 사회 의식을 지방에 눈 돌리도록 하였다. 또한 민예총 초대 강원도지회장을 맡은 이상국 시인이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의 진보적 인사들이 모임 수 있는 사회의식의 기반이 되어 민예총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던 것이다.

지역사회의 편견과 질투 속에 출범한 속초민예총은 창립 당시 사무실을 회원 자비로 운영하면서 문학, 연극, 사진의 3개 분과에서 영화 분과를 추가하였고 지속적 성장을 하였다. 특히 문학위원회의 통일 문학제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청호동 시민이 강연자로 관객으로 참여하고, 통일지향의 문학적 사회학적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사진위원회에서는 엄상빈 사진가의 청호동을 주제로 한 사진 전시 등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한편 민예총 출범 이전부터 지역 연극 활성화에 기여한 극단 ‘파·람·불’ (단장: 조수현)은 사회 밑바탕 인생을 그린 <칠수와 만수> 등을 통해 민중의 삶과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였으며, 1991년에 작품 <한씨 연대기>로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1999년 속초민예총에 합류한 영화위원회(위원장: 염기명)는 다큐멘터리<갯배>을 촬영하면서 지역적 정서를 담고 통일의 염원을 객관적 시각에서 담아내면서 지방에서도 영화가 만들어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근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분과별 활동은 민예총의 창립목적에도 부합하고 지역의 정서에도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속초민예총 주요 사업은 위원회별 활동이 두드러졌던 시기와 각종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펼쳐던 시기 로 나뉠 수 있다. 지면의 한계로 과거행사보다는 최근 문화행사 중 중요한 행사만 기록해둔다.

◆ 예술제 (예술축전, 민족예술제)

속초민예총은 1년에 두 번 전 회원이 참가하는 예술축제를 개최한다.

봄에 실시하는 ‘예술축전’은 민예총 소속 협회들이 다양한 아이টে으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축제이다.

11월에 개최하는 ‘민족예술제’는 소속 회원들의 일년 활동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예술이다. 이 행사를 통해 속초민예총 회원들의 역량을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8회 통일문화제
우리 저 고개를 넘어

2004년 8월 15일 18:30 / 속초 백스포츠타입 광장

주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원지회
주관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강원문화재단 · 속초시

◆ 통일문화제

매년 8월 15일에 열리는 속초민예총의 대표되는 행사의 하나로 분단 고통과 통일의 갈망을 노래하는 행사다.

1996년 8월 15일 이상국, 박종헌 시인을 비롯한 민예총 문학위원회가 분단과 실향의 상징지인 청호동 백사장에서 문학과 시극강연, 시낭독 등을 열면서 제1회 통일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2003년 제6회 행사부터는 문화행사를 포함하여 전시 공연 등 내용을 다양화하여 ‘통일문화제’로 행사명을 바꾸며 2005년 현재 제9회를 맞고 있다.그동안 시극강연과 문학 강연, 시 낭송에 참여한 인사로는 백기완, 고은, 이호철, 신경림, 염무웅, 박

용렬과 속초출신의 고흥렬 시인 등 많은 문인들이 참여하였다. 2005년 제9회 행사에는 재중국 동포시인 2명을 초청하여 그들의 자작시로 시낭송을 하였으며, 새터민(탈북자) 공연단체의 초청공연, 기획전으로 북한의 조선화, 도자기 등을 53점 전시하는 ‘북한 미술전’을 개최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과 통일문화제의 의미를 더하였다.

2006~2009년까지의 통일문화제는 보다 대중적인 시도를 한다. ‘노찾사’ 공연과 ‘실향민 사투리 경진대회’ 등 시민의 참여 폭을 넓히면서 통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했다. 그러다 제15회 통일문화제부터 전문성 있는 시도를 한다. 지난 2011년 제14회 통일문화제는 강원도 최초로 통일문화포럼을 실시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두 기둥’이라는 주제로 홍세화(한겨레 편집위원)의 기조강연, 손기웅(통일연구원)의 발제(독일통일의 시사점과 남북한 문화통합)가 있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행사는 통일의 의미가 퇴색되는 시점에 맞춘 시의적절한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15회 행사 역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이상국 시인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를 개최한 것이다. 이상국 시인은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같은 시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아름다운 언어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시인이다. 이 행사를 통해 문화와 통일의 접점을 모색하고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감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같은 기조 아래 2013 년도에는 통일문화제를 통일문학제로 전환하여 인문학적 관점에서 통일을 접근하고자 한다. 2015년도에는 최동훈 회장의 소설 ‘사토쟁이’로 낭독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낭독극은 배우의 목소리로 소설을 낭독하는 공연. ‘사토쟁이’는 실향민의 삶을 토대로 쓴 작품으로 통일문화제에 걸맞은 공연이었다.

◆ 갯배문화제

갯배문화제는 속초시의 대표적인 관광문화자원인 갯배와 아바이마을의 실향민문화를 접목시킨 문화예술축제로, 속초민예총이 2014년 처음 개최했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으로 만든 최초의 축제여서 많은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다. 1회 갯배문화제는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갯배선착장 일원에서 개최했다. 주요 행사로는 금강대교 다리 밑에서 속초의 일상을 만날 수 있는 ‘빨래줄 전시회’를 비롯해 전자음을 배제한 ‘갯배 언플러그드 음악회’, 갯배의 옛 모습을 사진과 시로 만나는 ‘움직이는 갯배 전시회’, 실향민문화를 소재로 열리는 ‘갯배 아트마켓’ 등으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장경석 전 속초민예총 회장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실향민의 삶과 청호동의 옛 모습을 벽화로 되살리는 ‘갯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2회 갯배문화제는 아바이마을에 서린 실향민들의 애환,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거리전시회’와 다양한 향토문화공연으로 꾸며지는 ‘갯배음악회’,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거리전시회는 아바이마을의 옛 모습이 담긴 ‘속초의 옛 사진전’과 이상국 시인의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등 아바이마을과 갯배를 소재로 한 ‘갯배 시화전’이 열렸다.

메인이벤트라 할 수 있는 갯배음악회는 신천무용단의 퍼포먼스와 속초아리랑보존회의 속초아리랑이 한데 어우러지는 개막 공연 ‘아리랑’을 비롯해 버스킹 공연, 강원민족국악인대회, 신천무용단의 작품발표회 등으로 꾸며졌다. 민예총 공예협회는 관광객들이 소원을 적는 ‘갯배 소원의 벽’을 마련하고, 미술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청호동 주민의 삶을 벽화로 그리는 프로젝트(장경석 화가)를 진행했다.

◆ 속초 등대페스티벌

속초등대축제는 속초민예총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및 항로기술협회와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축제이다. 월 1회 마지막 주 토요일에 펼쳐진 이 행사는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속초등대를 해양문

화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며 속초의 중요한 문화이벤트로 자리잡았다. 특히, 단순 이벤트가 아닌 컨셉이 있는 문화공연을 펼치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공연을 배치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다.

◆ 해외교류사업

북방교역의 전초지로 속초시와 1994년 교류도시로써 관계가 돈독한 길림성 훈춘시를 대상지로 2001년 초상사진증정사업을 시작으로 재중국동포 청소년백일장과 사진세미나, 한류열풍에 힘입어 동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영화상영 등 그 행사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인상사진을 제작하여 1,000여명에게 증정하였고 90여명 이상의 백일장 입상자에게 상금과 상품을 전달하였으며 재중국 동포 학생들에게 민족의 언어와 민족애를 느끼게 하여 기성세대에게는 변질된 조국관과 모국관 정립을 위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한동안 끊겼던 훈춘시 교류사업은 2015년 다시 재개되었다. 사진협회가 9월에 한중 사진교류전을 펼쳐 예술교류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한 것이다.

◆ 재중국동포문인 시화 초청전 시집 발간 증정 행사

2004년부터 재중국 동포를 초청하여 시화하여 전시하고 시집을 발간 증정하는 행사로써 그 동안 연차적으로 『백두산에 가서는』과 『백두대간 겨울바람』 2권을 발간 증정하였다. 이는 오랜 민족간의 단절로 변해진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훈춘촬영가 협회 작품초대전 및 회원초청 행사

속초시의 최대 문화행사인 설악문화제와 때를 같이하여 연변지역의 생활과 풍경이 담긴 촬영가 협회 회원들의 작품과 회원을 초청하여 문화제와 속초문화를 체험하게함으로 귀국 후 자국의 언론 매체나 구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속초를 홍보하게 하고 있으며, 2005년 제3회를 맞고 있다. 특히, 초청자 중 1명은 한족을 포함하여 재중국 동포와 한국을 이해하는 계기의 행사를 했다.

5. 나가면서

오늘날 한국사회 불균형 발전의 문제나 지방의 종속화, 주변화 현상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문화발전기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중앙집권세력을 등에 업은 일부 정치적 세력가나 명망가, 정치인, 시·군 행정가의 애향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역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 사회의 구조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방 주민 스스로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며 예술 창조와 향유의 공간인 지방의 자율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하는 가치 지향적 태도가 지역주의의 본질이며 지방 문화 예술을 중앙의 문화 예술과 대등한 위치로 발전시키는 첩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지역 문화는 관청 주도의 행사에 결투리로 서거나 추상적 관념 속에서 순수 예술을 지향한다며 정치 사회적 변화에 무신경한 성향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 이같은 문화예술 행위는 예술을 빙자한 자기만족과 처세의 한 방법일 뿐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속

초 민예총의 초창기 활동은 그래도 아쉬움을 달래 줄 수 있는 문화적 행위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속초 민예총의 활동도 많이 변질되고 규격화되었으며 자기반성의 빈약함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미술, 공예, 국악, 음악 분과가 새로 생겨나 양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창조적 예술 활동도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의 예술단체가 가지는 활동과 지역적 위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예총의 살림살이도 과거보다 나아졌다. 고정된 사무실이 확보되고 사무국장이 상근하는 상황은 초기 민예총 활동으로 보았을 때는 천국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 볼 때 얘기는 달라진다.

행사를 위한 행사, 자기 창조의 예술 행위가 없는 모방 예술로 자기만족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치열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때다. 특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취지에 걸맞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 “민중의 삶에 기초한 민족문화예술을 건설함으로써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데올로기의 교조성에 충실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급진적 정치 운동에도 경계를 해야만 한다. 다만 인간적 삶의 조건과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참여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 지향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지역의 양대 문화예술 단체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며 문화지킴이의 할 도리일 것이다.



〈제1회 갯배문화재 공공미술〉

지방 문화의 참된 모습은 지방 특유의 문화적 특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통일문화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또한 고급문화의 사치성을 거부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대중화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의 현장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이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순수 지향의 고답적 예술적 태도이다. 진정한 순수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가 변해도 변화하지 않는 순수는 썩은 물에 지나지 않는다. 문화 권력에 빠져 단체를 만들고 행사 중심의 행사

로 자기 만족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자기반성의 태도가 결실을 얻으려면 회원 자신들의 통렬한 반성과 예술적 가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자신의 프로필 속에 안주하는 명함 속 민예총이 되지 않도록 민족예술인의 긍지와 작품 활동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화예술이란 우리 삶의 전체이고 시금석이며,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제도에 순응하며 안락함 삶의 추구는 문화 창조를 말살한다. 올바른 문화적 감수성으로 보통사람 모두가 진정한 민족예술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감이 속초 민예총의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2015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기획

- ◆ 시민문화예술학교/김은중
- ◆ 학교로 간 설악문화나눔 친구들/양인옥
- ◆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사업/이정무



시민문화예술학교

김은중(속초문화원 사무과장)

시민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은 속초문화원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민이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속초문화 고유의 가치개발’을 위해 개설되었다. 이에 따라 연극놀이와 클래식 음악여행, 한국 정원과 누정건축 읽기 등의 문화프로그램은 물론 상도문 마을 탐사, 실향민 문화 체험, 관외 문화체험 등 마을 중심의 인문학 관점 교육도 병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홀로 진행해본 시민문화예술학교. 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하기까지 사업계획서는 수십 번 고쳐졌고, 처음 모집부터 4시간 강의에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이라는 거리적 취약점에 사람들이 모일까 부터 걱정했던 것 같다. 다행히 첫 번째 수업인 뽕풀기 연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처



음 모이신분들이라 서로 알아보시라 폴로라이드로 사진판을 만들어 보았고, 몸풀기 연극 수업 후 속초 도문농요를 배우는 등 상도문 마을탐방 시간을 가졌다. 지역의 문화가치를 현장에서 보는 것은 색다른 시도였다. 하지만 하필 무더운 날씨에 마을탐방 거리는 생각보다 길어서 다들 살짝 힘들어하셨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

호응도 최고의 두 번째 수업. 속초와 함께한 작가들 및 클래식 음악여행 수업은 장마라 비오는 와중에 도 시민문화예술학교에 수강하러 오신 수강생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클래식 수업 때 춘천에서 와주신 안무궁화 선생님 반주에 맞추어 전체합창을 함께 하며 화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문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감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세 번째 실향문화로 꽃피다- 마을탐방 시간. 신형찬 선생님의 주도 아래 우리는 청호동 아바이 마을로 떠났다. 팀별로 조를 이뤄 여러 가지 미션들 아래 마을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하신 선생님들도 그냥 흘러 보냈던 마을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놀랐다는 표정이었다. 마을탐방과 속초시장을 방문하여 속초의 대표 먹거리인 냉면과 순대를 맛보았다. 음식에 담긴 시대의 정서와 우리네 이야기가 곁들여지자 맛이 한층 더 좋은 것 같았다.

네 번째 문화탐방. 타 지역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워보는 관외 문화탐방 시간을 가졌다. 이왕이면 근대문화를 지역발전의 가치로 삼고 있는 곳을 찾기 위해 탐색하던 중 인천 차이나타운 및 동화마을로 결정했다. 차이나타운은 근대 역사박물관을 조성하며 기존 먹거리가 더욱 빛이 났다. 인근 동화마을은 구도심을 공공미술로 회복한 사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었다. 차이나타운의 이색적인 모습은 현장에서 직접 보았기에 더욱 살갑게 다가왔다. 우리는 작은 곳에 숨어있는 문화 자원들을 문화해설사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다섯 번째 시간은 문화 일반의 교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강원대 차장섭 교수님의 강의는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의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아름다운 주변 풍경을 간직한 학무정 인근이 강의 장소였기에 한중일 3개국의 정원에 대한 태도와 우리문화의 가치적 위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강의내용을 준비 해주셨다.

지역의 가치를 몸소 느껴보기 위해 진행해본 이번 시민문화예술학교는 그 출발이 다른 여느 사업과는 달리 현장성을 겸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속초문화원이 도문농요전수관을 위탁받은 후 상도문 지역을 문화마을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기획이었다는 점도 새로웠다. 문화원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이뤄지던 사업이 현장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뤄질 때 좋은 가치가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내년 도는 하고 싶은 사업보다는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지역의 문화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고 느끼고 맛보며 체험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 자긍심을 시민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문화는 어렵거나 높지 않고 내 생활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소할지 몰라도 시대의 의미나 삶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소중한 문화자원이다. 지역의 문화적 싹을 지켜 나가는 것이 속초시민의 의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들에게 심어진 자긍심으로 우리 함께 문화를 호흡하고 새로운 문화활동가, 매개자, 기획자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학교로 간 설악문화 나눔친구들

양인옥(설악문화나눔친구들 회장)

설악문화나눔 ‘친구들’은 2012년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동화구연과 손유희, 각종 전래 놀이와 연극 놀이 등을 수련하였다. 수련과 동시에 4년 동안 아동센터, 어린이집, 초등 돌봄 교실을 돌면서 자원봉사를 하며 조심스레 아이들과의 교감을 나누는 방법을 익혔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플류음강사파견’을 통해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동화구연, 종이접기, 각종 공예, 손유희, 전통놀이, 민요, 사물놀이, 함께 놀아주기 등의 통해 1세대와 3세대가 같이 만나 할 수 있는 일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새로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되었다. 어린이들은 어르신들을 통해 따뜻한 정과 인성 함양을, 어르신들은 어린이 세대를 다시 체험하며 교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아이들과의 이런 4년여의 경험을 통해 ‘꿈꾸는 교육 복지 놀이터’ 사업을 함께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에게 전래이야기를 들려주며 전래놀이나 연극 놀이를 함께 하고 충분히 놀아주는 것이다. 본 프로



그림은 전래동화와 전래 놀이로 꾸며져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효과는 전래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핵가족 시대에 부족한 효, 도덕성, 예절 같은 인성을 배움과 동시에, 기계로 하는 게임이 아닌 신체를 움직여 할 수 있는 전래놀이를 어르신들과 함께 함으로써 협동, 질서, 배려 등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올해처음 속초문화원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합의하여 우선 3곳의 초등학교(소야초, 속초초, 교동초)를 선정하여, 어르신 3명씩 1조가 되어 각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젊은 선생님이 아닌 어르신들이 아이들과 무엇을 할지 무척이나 궁금해 하는 어린이들의 눈빛을 받으며, 여러 가지 전래 동화나 인물이야기 또는 그날 놀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화를 들려주며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양한 전래놀이나 체험활동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은 항상 바르게 앉아있어야 하는 교실 의자에서 벗어나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전래놀이를 통해 학습에서 벗어나 방과 후의 시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돌봄 교실 이후 각종 학원을 돌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행복감과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1세대와 3세대가 만나서 함께 놀면서 교감을 나누는 '꿈꾸는 교육 복지 놀이터'는 분명 아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정서와 감성을 흐르게 했을 것이며, 작은 추억으로 먼 훗날 다시 다음 세대로 전해질 놀이를 익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임을 확신한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길 기대해본다.



청소년들의 여름방학 문화예술 놀이마당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

이정무(속초문화원 사업과장)



속초문화원은 지역청소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시켜주기 위해 1990대 후반부터 청소년여름풍물학교, 청소년 여름방학교실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방학프로그램과 어린이방학문화프로그램 사업으로 ‘청소년별자리캠프’와 청소년여름방학 강좌를 다년간 진행. 2010년부터는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하며 ‘박물관 투어 캠프’, ‘놀이 배우는 속초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여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근래 학생대상 체험프로그램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본원 직원들은 타 기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 결과 ‘인문학’이라는 콘텐츠와 상대적 문화예술체험 혜택이 적은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학생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려 노력하였다. ‘인문학’을 콘텐츠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영화야 놀자’, 연극 등 문화체험을 통해 예절과 사회규범을 배우는 ‘생활예절과 오감체험’ 등의 문화강좌와 우리골목 곳곳을 돌아보며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작은예술가의 도시스케치’ 캠프를 진행하였다.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진행해 보자는 ‘청소년축제 기획캠프’, 함께 놀고 자며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연극작품 등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청소년예술체험캠프’ 등 캠프를 함께하였다.



올해는 지난 사업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인문학과 향유인원의 다양화를 목표로 3개 방학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였다. 2013년부터 진행하여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은 ‘영화야 놀자’ 프로그램은 올해도 초등 1~3학년 29명과 함께 하였다. 총 8회차 프로그램으로 기존 영상인문학 프로그램과 컨셉은 같지만, 선정할 영화와 문화체험부분을 변화를 주어 진행하였다. 초등 4~6학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밤이

되는 인문학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4명의 지역 예술가들이 음악, 미술, 문학, 전통문화 등의 다양한 장르를 21명의 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8회차 강의를 하였다. '청소년인문학아카데미캠프'는 중·고등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강의와 강의 내용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사 7명과 24명의 학생들이 속초도문농요전수관과 상도문마을 일대에서 함께하였다.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템에 대한 고민, 나타나는 에로사항, 문제 해결안을 모색하며 지역 활동가들과 매해 여름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방학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다양한 청소년대상 교육예술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모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고민이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나타날지 기대되고, 이런 시도가 지역청소년문화예술 생태계 다양화의 작은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문화현장

◆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모색 세미나



公共美術은 성립 가능한가?

장경석(속초민예총 고문)

1. 서론-문제제기

2.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1) 역사의 문제
- 2) 전통의 문제
- 3) 철학의 문제

3. 무엇을 위한 미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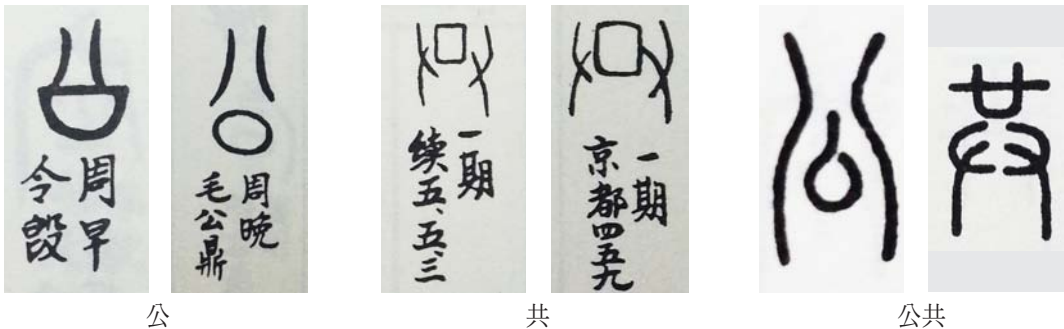
- 1) 미학의 문제
- 2) 예술철학의 문제

4. 결론-공공성과 미술의 부합을 위한 조건

1. 서론-문제제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는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많다. 근대 이후 왜곡된 서구 자본주의의 유입과, 그에 따른 발전사관에 의한 문화와 용어의 수입이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공공미술’이라는 말을 음미해보자. 공공문학(?) 공공음악(?) 공공공연(연극·영화·무용 등)(?)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공공성과 예술을 가져다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은 예술가의 창조적 역량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이것은 주관에서 객관으로의 전이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객관을 뜻하는 공공성과 바로 결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미술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미술’은 ‘공공(公共)’과 ‘미술(美術)’의 합성어이다. 공공은 다시 공과 공의 합성어이며, 미술은 다시 美와 術의 합성어이다. 공공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나 단체의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속하거나 관계되는 것’으로,¹⁾ 공(사회나 단체의 성격)과 공(구성원 개인의 성격)이 합쳐진 것이다. 공은 八과 口의 합성으로 이루어졌으며, 八은 ‘통로’의 상형이고 口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은 제사를 지내는 광장의 뜻이다.²⁾ 그리고 공은 금문(金文)의 상형문자에서 ‘양손으로 큰 물건을 바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을 함께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을 봉건적 의미가 아닌 현재의 민주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개인의 자발적 의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³⁾ 이로써 공공은 ‘단체와 개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술을 글자 그대로 보면, ‘美적 수단’, ‘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美’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장식’, ‘환경미화’로서의 미술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미술의 예술적 효용가치를 포기한 채 기능에만 의존하는 모양이라서 단기간에 싫증나고 흥물로 전락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공공에서 단체를 대변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은 공무원 혹은 행정가라고 할 수 있고, 개인은 주민에 해당된다. ‘공공미술’이 성립하려면 이들 행정가와 주민, 예술가 3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이 글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한다.

1) 국어국문학회, 『국어사전』, 民衆書館, 2002
 2)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6.
 3) 같은 사진.

2.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공공성(公共性)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무(公務)라는 타이틀로 행해질 때, 그것이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얻으면 민주주의요, 그렇지 않으면 독재가 된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모두가 민주사회는 아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파시즘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라는 것을 알지만, 민주주의와 파시즘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진 독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국가 간의 서열의식, 민족주의, 경제성장주의, 정부주도주의, 발전사관 등은 파시즘의 확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파시즘은 히틀러 집권의 독일에서 극단적으로 표출되었지만,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정부의 지능화된 파시즘은 모습을 바꿔가면서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줄다리기에 주도권을 정부가 장악한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언론과 예술을 주도하고, 역사와 교육을 재편하려고 한다.

민주주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정부를 방관하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정부와 행정이 개인과 대립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때, 민주적 의미의 공공성은 빛을 발휘할 수 있다.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역사와 전통, 철학의 문제를 짚어보기로 하자.

1) 역사의 문제

국가체제나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역사와 전통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신채호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적으로 전개되고 공간적으로 펼쳐지는 정신적(心的) 활동상태에 관한 기록이다. 무엇을 ‘아’라 하고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깊이 파고들 것 없이 쉽게 말하면, 주관적 입장에 선 쪽이 ‘아’이고 그 이외는 ‘비아’다.”⁴⁾ 예컨대 우리는 한국을 ‘아’라고 하지만 일본인은 일본을 ‘아’라고 한다. 자본가는 자본가를 ‘아’라 하고 무산계급을 ‘비아’라 한다. 무산계급은 무산계급을 ‘아’라 하고 자본가를 ‘비아’라 한다. 신채호는 ‘아’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아’와 ‘비아’가 서로 투쟁관계에 있으면서도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한 투쟁은 물리적인 충돌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포괄하는 것이다.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땅에서 삼국통일⁵⁾과 조선의 건국, 일제 강점기 등 국체가 바뀔 때마다 분서갱유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도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상은 다음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 세종은 특히 역사서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인 태조와 아버지인 태종은 호랑이 재상(虎頭宰相) 최영의 복벌군 속에서 반란을 일으켜 사대주의 가치를 들고 역성혁명의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었다. 그는 그런 발자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몽골의 압박을 받기 전에 존재했던, 단군조선의 실제 기록에 근거하여 역사를 기록하지 못했다. 대신, 몽골의 압박을 받은 이후에 나온, 외국에 아첨하는 문서와 위조된 역사에 근거해 역사를 짓고 구차하게 왕업을 마쳤다. 그는 고려시대 실록이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을 규장각에 은밀히 보관했는데 이것은 임진왜란으로 모조리 불타버리고 말았다.⁶⁾

4) 신채호, 김종성 옮김, 『조선상고사』, (주)위즈덤하우스, 2014, 21쪽.

5) 엄밀히 말하면 신라의 간계로 고구려사백제사의 말살, 그리고 대부분의 영토를 당나라에 빼앗기고 일부분을 얻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삼국통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6) 신채호, 같은 책, 39쪽.

우리는 고조선사, 삼국사, 발해사(?), 고려사, 조선사를 우리의 역사라고 하지만, 조선사 중에서도 왕조 사만 일부 알고 있을 뿐, 그 이전의 역사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현재의 개념으로 볼 때, 통일신라 중심의 국정교과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날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조선시대의 역사서에 대해, 대개 정치사 관련 기록이고 문화사는 별로 없는 것이 첫 번째 유감이고, 대개 일개 왕조의 흥망성쇠로 일관하는 것이 두 번째 유감이라고 했다. 그리고 공자의 《춘추》를 본받아 군주와 중국을 높이고, 민족과 나라를 깎아내린 것이 세 번째 유감이고, 외세에 아부하려는 의도가 많아서 결국 단군시대의 수도까지 감추고 말았다는 점이 네 번째 유감이라고 했다.⁷⁾

이런 구조는 어느덧 우리에게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왕조의 잘잘못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간혹 있지만 개인이 고대사를 짓지도 읽지도 못하게 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리고 과거를 계승하지 않고 항상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역사학에 활용할 자료가 빈약해졌다. 조선시대 사람은 고려시대 삶의 맛을 모르고, 고려나 고구려·백제·신라 사람들은 삼한시대 이전 삶의 맛을 모른다. 역사의 단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제 다시금 정부 주도하에 근현대사를 쇄신하지 못하게 묻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렇게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현실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재삼 생각해 볼 일이다.

2) 전통의 문제

지금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전통을 만드는 일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했던 정부가 주도한 것이다. 전통은 특히 국민국가 형성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개인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차이들을 극복하고 ‘상상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만들어진 전통에서 핵심적인 것은 기념행위인데, 그것이 없다면 일정하지도 않고 일시적인 집단적 기억을 안정화시키려는 계산된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통들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통상 낡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낡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전통들(traditions)’은 실상 그 기원을 따져 보면 극히 최근의 것일 따름이며, 종종 발명된 것이다.……

‘만들어진 전통’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통상 공인된 규칙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례나 상징적 성격을 갖는 일련의 관행들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것들은 특정한 가치와 행위규준을 반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과거와의 연속성을 내포한다. 기실 그런 관행들은 가능하다면 언제나 역사적으로 기념하기에 알맞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확립하려고 든다.…… 만들어진 전통의 특수성은 대체로 과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내세우려 든다는 데에 있다. 요컨대 전통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응인데, 여기서 역설적이게도 예전 상황들에 준거하는 형식을 따거나, 아니면 거의 강제적인 반복을 통해 제 나름의 과거를 구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을 이른바 ‘전통적’ 사회들을 지배하는 ‘관습(custom)’과 명백히 구별해야만 한다. 발명된 것까지 포함하는 ‘전통들’의 목표와 특징은 공히 그 불변성에 있다. 전통들이 준거하는 과거는, 실재하는 것이든 발명된 것이든 늘 반복되어 고착된(보통 공식화된) 관행들을 수반하게 마련이다.⁸⁾

7) 같은 책, 45~46쪽.

8)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19~21쪽.

‘전통(傳統)’의 뜻은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系統)을 이루며 전(傳)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인데,⁹⁾ 전통이 계통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흠스봄이 말한 “전통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지금 눈앞에 벌어진 현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은 ‘현실’을 상실하고 과거의 유물을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통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예술을 들 수 있다. 예술에서 전통을 가치론적으로 판단할 때, 그 생명력이 애초에 ‘현실성’과 ‘현재성’에 있었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었다.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술의 임무요 전통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전통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과거시대의 유물을 ‘보존(계승이 아닌 전승)’하는데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는가 하면, 현실도피적인 관념주의 예술로 치우쳐 전개되고 있다. 미술의 역사만 하더라도, ‘미술’이란 말 자체가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면서 조선시대까지 따로 정리된 미술사 기록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미술사 전통을 세우려다 보니, 중국의 예술론이라는 실을 가지고 한국의 유물이라는 구슬을 꿰어 넣고는 이것이 한국미술의 전통이라고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다. 물론, 예술이면 다 같은 예술이지 한국예술과 중국예술이 따로 있느냐면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중국화’와 ‘일본화’의 쫄무니를 쫓아가는 ‘한국화’라는 명칭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술에서는 그나마 ‘전통’을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고전무용이나 국악, 민요 등이 ‘보존’의 굴레를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의 문제에서 국가 정부는 권위를 지속시킬 명분이 약해졌다. 정부가 그 명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권위를 내세워서 될 일이 아니고,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3) 철학의 문제

기원전 5세기의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은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인간은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간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이 말은 공적 영역이 시민의 참여로 활성화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공적 영역은 인간적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고 사적 영역은 그것이 결여된 곳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¹⁰⁾ 여기서 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성은 그 자체로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형태도 갖지 않는다. 공무원들과 그들의 특별한 권력에 의해서 공공성은 국가가 된다. 정부 없이는 국가도 없으며, 또한 공공성이 없이는 정부도 국가도 없다. 공무원의 권력은 공무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전용될 수 있으며, 그것과 별도로 감성의 둔화와 행동의 거만함 그리고 계급적 이익과 편견은 관직에 의해서 강화된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타락하거나 불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본래적 국가는 본래적 위엄과 고귀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성은 정부를 통해서 국가로 조직화되므로 국가는 그 공무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띤다.¹¹⁾ 공무원 정부를 초월한 국가의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의 실체라는 말이다.

국가가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계몽’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봉건시대의 일이다. 근대의 ‘계몽’이 봉건시대의 그것과 의미가 달라진 것은 칸트에게서 비롯되었다.

9) 전광진 편저,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 LBH교육출판사, 2007.

10) 조승래,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27쪽.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미성년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 이 미성년의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을 경우이다. 그러므로 “과감히 알려고 하라!(Sapere aude)”,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하는 것이 계몽의 표어이다.¹²⁾

지금 한국사회의 구조 속에서 개인의 모습은, 천성이 되다시피 한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까지도 언론과 예술, 교육을 통제하여 국민에게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계몽을 위해서는 자유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성의 공적인 사용만이 계몽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계몽은 개인으로서 자아의 인식을 전제하는 것으로, 근대화를 상징하는 화두로 이해된다. 개인주의는 다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내가 국민이고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책임의식이다. 가정의 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꾸려나가듯, 국가의 일을 모든 체 넘어가지 않는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계몽인 것이다.

계몽의 임무는 ‘이성의 정치권력’을 다중화하고 사회적 장 전반에 그것을 산포시키며,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의 공간에 흡수시키는 것이라고 푸코는 말한다. 1970년대의 계보학적 작업에서 푸코는 현대이성과 제도, 현대적 형태의 주체를 지배의 원천 혹은 구성물이라고 비판하였다. 현대이론들이 지식과 진리는 중립적·객관적·보편적이며 또 진보와 해방의 수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푸코는 그것들이 권력과 지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라고 분석했다.¹³⁾ 니체를 따라서 푸코는 하나의 철학적 체계 내에서도 혹은 하나의 중심적 요지(要地)로부터 모든 현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철학적 허세를 거부한다. 그리하여 어떠한 단일할 이해방법도 그 자체로는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담론과 제도, 권력양식의 다원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로 다른 수준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¹⁴⁾

공공성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전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논의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한다.¹⁵⁾ 공(公)을 내세워 공(共)을 억누르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관행이 되어 있고 국민도 그런 분위기에 만성이 되어 있는 듯하지만, 그것은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1974년부터 추진된 새마을 운동인데, 이것은 지금도 지역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스펙터클한 광경들은 뭔가가 나아지고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켰지만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개선일 뿐이었고 차이와 다양성을 배제해 민주적인 공공성 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구조는 공(公)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동시에, 시민의 차이와 다양성을 없애 공(共)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¹⁶⁾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사회적 연대는 약화되었고 부동산 투기와 수도권 집값 폭등, 아파트 단지화로 인한 공간적·사회적 분리도 심각해졌다. 경제발전 에 경도된 정부의 정책은 민주주의와 분리되어 심각하게 공공성을 훼손하였다. 현대성을 나타내는 모더

11) 존 듀이, 정창호·이유선 역, 『공공성과 그 문제들』, 한국문화사, 2014, 67~68쪽.

12)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2009,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중.

13) 스티븐 베스트·더글라스 켈러, 정일준 역, 『탈현대의 사회이론』, 현대미학사, 1995, 58쪽.

14) 같은 책, 60쪽.

15) 하승우, 『공공성』, 책세상, 2014, 57쪽.

16) 같은 책, 86쪽.

니즘의 이론들이 ‘권력화와 서열화’의 모습을 띠는데, 민주주의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를 비판하고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3. 무엇을 위한 미술인가?

미술이 단순히 기술적 수준을 넘어서 예술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기술과 예술의 경계가 무엇이나고 하면 대개는 할 말을 찾지 못한다. 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 보통 미학을 떠올리지만,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미학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데?’라는 의문을 남기는 상황에 봉착한다. 그것은 미학이 현실생활과는 동떨어진 곳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미학은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되어 있고 일반인에게는 예술을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예술, 현실성 없는 예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물론,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술을 신앙으로 전도하지 않는 한에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예술을 믿으라고 설득할 도리가 없다. 더군다나 ‘공공미술’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술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진정 중요한 예술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짚어보기로 하자.

1) 미학의 문제

‘미(美)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는 학문이 미학이다. 피타고라스에게 미는 객관적 법칙이었고 소크라테스에게는 객관적 목적이었으며 플라톤에게는 객관적 이데아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를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고, 이후에도 그 기초(基調)는 유지되었다.¹⁷⁾ 하지만, 미를 숫자로 표시하거나 도덕적 가치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수학과 윤리학이지 미학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런 객관 미학은 이미 ‘쓸모와 목적’을 말한 소크라테스에게서, 미가 사물의 속성에서 인간과 사물의 관계로 변화하려는 조짐이 있었다.

미학이 객관론에서 주관론으로 바뀐 것은 칸트에 의해서였다. 바움가르텐(1714~1762)은 오늘날 ‘미학(Aesthetics)’이라고 부르는 철학적 분과 학문을 탄생시켰고, ‘미학’이란 용어도 만들어냈다. 그러나 칸트는 바움가르텐이 취미 판단을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일종의 인식 판단이라고 한 견해에 반대한다. 그는 취미 판단이 인식 판단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전적으로 다른 유형의 판단으로 간주한다.¹⁸⁾ 바움가르텐은 취미의 규칙들, 즉 무엇이 아름답다고 간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으며, 또한 미학이 일종의 학문(Wissenschaft)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칸트의 미학은 쾌와 불쾌의 감정하고만 관련된 것이지, 인식의 한 형태로서의 감각이나 지각하고는 관계가 없다.¹⁹⁾ 쾌적함 혹은 불쾌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느낌들은 결코 외부 사물의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

17) 易中天, 胥少卿 역, 『이중텐 미학강의』, 김영사, 2009, 69쪽.

18) 크리스티안 헬무트 벤첸, 박배형 역, 『칸트 미학』, 그린비출판사, 2012, 31쪽.

든 사람들 각각의 고유한 감정에 따라 생겨난다.

칸트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성론 미학을 비판하는 경험론 미학을 말한다. 경험론 미학은 아름다움을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기분 좋은 느낌 혹은 감정으로 바꿔놓으면서, 동시에 대상에 대한 이 주관적 판단을 어떻게 객관적인 것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그 이후 미학의 중요한 논쟁거리로 부각시켰다.²⁰⁾

칸트의 미학은 확실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미학을 우리의 눈앞에 가져다놓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테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시나 그림을 보았다고 하자. 이 때에 능력 있는 비평가가 나타나서 그 작품이 모든 규칙을 합당하게 따른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취미판단이 변하지는 않는다.²¹⁾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주눅 들거나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칸트의 공적이라고 할 만하다.

취미판단이 이렇게 주관적이라면 학문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미학을 말하는 것은, 취미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쾌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에 관한 것일 때 우리는 타인과 취미를 공유하길 바란다. 취미판단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도 내가 느끼는 만족을 느낀다고 간주한다. 칸트는 감상적 취미를 반성적 취미와 구별하는데, 전자는 매우 개인적인 자신의 특징을 감수하지만 후자는 보편타당성을 열망한다. 엄밀한 의미로 취미판단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 의해 경험되는 것이므로 주관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으로 타당하다. 여기서의 주관성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의견이 일치해야만 한다. 미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꽃은 자유롭게 쾌를 주며, 비록 나에게 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꽃에 관하여 어떤 내적 객관적 목적성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사실 나는 꽃이 아름답기 위해 어떠한지 말할 수 없다.”²²⁾

칸트가 이렇게 미학을 실제적인 문제로 바꿔놓기는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면 그것이 예술인가?”라는 문제 말이다. 이런 문제가 남는 이유는, 칸트가 심미의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 ‘무목적의 합목적성’, ‘무관심의 관조’이기 때문이다. 대상에 주관의 목적(이해관계)이 개입되면 미적 판단을 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배제되었을 때 미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강 건너 불구경은 나와 상관없는 광경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고, 바닷가에서 안개 낀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의 공포와는 무관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공포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나의 만족은 도덕적인 관심이나 선(善)에서의 만족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도대체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만하며, ‘무관심성: 가치’의 관계가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인상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은 예술이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하게 만든다. 따라서 삶의 예술, 현실의 예술과는 거리가 있는 관념의 세계에 예술의 틀을 설정하는 한계를 보인다. 여전히 예술은 전문가의 소관이지, 일반인이 피부로 느낄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는 생활(生活)이 바쁜 사람들에게 그저 예쁘게 꾸며준다는 말 밖에는 예술이니, 공공미술이니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19) 같은 책, 33쪽.

20) 임마누엘 칸트, 이재준 역,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 책세상, 2005, 118쪽.

21) 디터 타이헤르트, 조상식 역, 『쉽게 읽는 칸트 판단력 비판』, 이학사, 2003, 116쪽.

22) 시릴 모라나-에릭 우델, 한의정 역, 『예술철학-플라톤에서 들뢰즈까지』, 미술문화, 2013, 138쪽.

2) 예술철학의 문제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는 학문이 예술철학이다. “예술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발전에 걸친 ‘미적인 것 이외의’ 여러 요소, 즉 윤리적·종교적·심리적·사회적 가치를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하니, ‘일반예술학 (allgemeine Kunstwissenschaft)’이라 칭해야 한다.”²³⁾는 유티츠의 말처럼, 예술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작가의 의식적 배경을 파악할 때 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개별예술학이 각 예술의 양식과 기법을 다룬다고 하면, 일반예술학은 모든 예술을 관통하는 방법적 사유를 내용으로 한다.

한 발 더 들어가서 예술 자체의 문제를 다룬 셸링은 미학이 예술을 심리·감각주의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을 ‘예술 없는 예술 이론들’이라고 비판하고, 예술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철학을 제창하였다.²⁴⁾ 그는 칸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에 대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따라 암기하고, 그것을 강연과 책에서 미학이라고 제시하면서도 그것을 엄밀한 형식을 갖춘 학문으로 구축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했다. 예술철학은 셸링으로부터 비로소 창조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철학이 이념들을 그 자체로서 관조하는 대신 예술은 이념들을 실재로 관조한다”고 하였다.

미학이 주로 이상적인 ‘미’의 개념을 추구한다면, 예술철학은 실제적인 ‘예술창작’의 개념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실재(das Reale)이며 객관적인 것(das Objektive)이고, 철학은 이상(das Ideale)이며 주관적인 것(das Subjektive)이다. 예술철학의 과제는 이상 속에서, 예술 안에 있는 실재를 표현하는 것이다.²⁵⁾ 예술은 철학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특수자로서 무한자를 자신 안에 실제로 표현해야만 한다.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예술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무한자의 표현으로서 예술은 철학과 같은 높이에 서는 것이기도 하다.²⁶⁾

하이데거는 예술철학 자체의 존재방식에 대한 물음을 던짐으로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그는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철학을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 응답하는 것”²⁷⁾이라고 하면서, 플라톤의 “마침내 철학의 시작은 놀라움밖에는 없다”는 말을 “놀라움밖에는 철학을 지배하고 있는 근원이 없다”고 새롭게 표현하였다.²⁸⁾ ‘놀라움’은 진리²⁹⁾를 깨닫는 경험이다.

하이데거의 인식은 이렇게 근원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접근하는데, 예술철학도 예술작품의 근원에 대한 물음, 곧 예술작품의 본질의 유래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한다. 예술창작의 본질을 규정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기술과 예술의 경계, 그리고 은폐된³⁰⁾ ‘존재’의 드러남”이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예술가적인 산출과 수공업적인 산출 사이의 구별, 그리고 비은폐성이 자신의 열린 장의 존재자 속에 스스로를 맞추어 넣는 방식”이라고 한다. 전자에 대해 산출함의 두 가지 방식이 제공하는 가장 가

23) 조요한, 『예술철학』, 미술문화, 2003, 28쪽.

24)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 『예술철학』,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8쪽.

25) 같은 책, 28쪽.

26) 같은 책, 36쪽.

27) 하이데거·아스퍼스 외, 최동희·김병우 외 역, 『철학이란 무엇인가/철학적 신앙 외』, 삼성출판사, 1990, 25쪽.

28) 같은 책, 27쪽.

29)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존재’라고 표현한다. 존재자가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 존재는 존재자들의 근원이다. 이를테면, 들판에 솟아 있는 사물이 ‘나무’라는 답을 얻었다면,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는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여기서의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이다.

30)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존재’라고 표현한다. 존재자가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 존재는 존재자들의 근원이다. 이를테면, 들판에 솟아 있는 사물이 ‘나무’라는 답을 얻었다면,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는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여기서의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이다.

까운 인상에서부터 보면, 도공의 활동, 조각가의 활동, 도색공의 활동 그리고 화가의 활동에서는 똑같은 수공업적 행동관계들이 나타난다. 예술작품의 창작 역시 그 자체 수공업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예술가적인 산출과 수공업적인 산출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가적인 산출과 수공업적인 산출 사이의 유사성은 또한 그리스어의 테크네(τέχνη)라는 낱말에서 입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낱말은 의미적으로 수공업뿐만 아니라 예술까지도 포괄한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예술창작이 수공업적인 산출과 더불어 기술적인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자명한 듯한 인상에 반대한다. 그리스적인 존재이해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에 따르면, 테크네란 일차적으로 수공업도 아니요 예술도 아니며 어떠한 실천적인 수행도 아닌 “앎의 한 방식”을 의미한다. 예술이 수공업과 더불어 테크네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까닭은, 예술가는 수공업자와 더불어 탈은폐하는 산출함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수공업적(기술적) 산출과 예술적 산출을 구별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즉 분명 제작하면서 밖으로 솟아나오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도구가 비은폐성의 발생 속에서 산출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발생은 도구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예술작품을 창작하면서 밖으로 솟아나오게 함의 특기할 만한 점은, 산출된 것 속에서 비은폐성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위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은폐된 진리를 제대로 데려올 경우, 산출된 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존재한다.”

예술적인 산출과 수공업적인 산출 사이의 구별, 그리고 비은폐성이 자신의 열린 장의 존재자 속에 스스로를 맞추어 넣는 방식³¹⁾ 이라고 한다. 전자에 대해 산출함의 두 가지 방식이 제공하는 가장 가까운 인상에서부터 보면, 도공의 활동, 조각가의 활동, 도색공의 활동 그리고 화가의 활동에서는 똑같은 수공업적 행동관계들이 나타난다. 예술작품의 창작 역시 그 자체 수공업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예술가적인 산출과 수공업적인 산출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가적인 산출과 수공업적인 산출 사이의 유사성은 또한 그리스어의 테크네(τέχνη)라는 낱말에서 입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낱말은 의미적으로 수공업뿐만 아니라 예술까지도 포괄한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예술창작이 수공업적인 산출과 더불어 기술적인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자명한 듯한 인상에 반대한다. 그리스적인 존재이해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에 따르면, 테크네란 일차적으로 수공업도 아니요 예술도 아니며 어떠한 실천적인 수행도 아닌 “앎의 한 방식”을 의미한다. 예술이 수공업과 더불어 테크네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까닭은, 예술가는 수공업자와 더불어 탈은폐하는 산출함을 공유하기 때문이다.³²⁾

수공업적(기술적) 산출과 예술적 산출을 구별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즉 분명 제작하면서 밖으로 솟아나오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도구가 비은폐성의 발생 속에서 산출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발생은 도구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예술작품을 창작하면서 밖으로 솟아나오게 함의 특기할 만한 점은, 산출된 것 속에서 비은폐성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³³⁾ 위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은폐된 진리를 제대로 데려올 경우, 산출된 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존재한다.”

31) 조요한, 『예술철학』, 미술문화, 2003, 28쪽.

32)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 『예술철학』,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8쪽.

33) 같은 책, 28쪽.

4. 결론-공공성과 미술의 부합을 위한 조건

이상으로 주마간산식이지만, 공공성의 실체와 미술의 본질문제를 짚어보았다. 미술작품은 예술가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공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모순일 수 있고, 공공성을 전제로 한 미술작업을 진행하는 것 또한 예술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앞의 예술철학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술작품에 담아낸 진리가 만인의 공감을 얻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의 반응은 제각각일 수 있고, 특정 예술가를 조물주처럼 무조건적으로 신봉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어떤 사안에 대해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에서 말했던 다원성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공공성의 의미와 본질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즉, 공공미술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가에게 전권을 부여하거나, 실행과정을 예술가 일방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공공미술’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없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것이면 공공미술이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밀어붙인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장소성을 제외한 시간성³⁴⁾이나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공공미술이라고 했을 때의 불편함은, 그것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

하버마스는 공공성의 이상적 모습을, 합의를 형성해가기 위한 토의의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토의는 ‘보다 나은 논거’(이유 제시하기)가 가지는 힘 이외의 모든 권력의 작용이 무효가 되는, 의사소통의 반성 형태이다.³⁵⁾ 행정가나 예술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획득하기 위해 타자와의 현실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성의 토대기반은 주민(관객)³⁶⁾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주민이 미술에 관심이 없는 경우(미계몽 상태),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거니 내버려두는 상황이다. 아렌트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지배로부터 공공적 공간을 구해내려고 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사회가 모든 발전단계에서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그 대신에 사회는 수 많은 다양한 규칙들을 부과함으로써 각 구성원으로부터 일정한 행동을 기대한다. 이것들 모두는 구성원을 ‘정상화’(normalize)시켜 행동하도록 하는 경향성을 가지며 자발적인 행위나 탁월한 업적을 배제하는 경향을 가진다. 『인간의 조건』, p.93³⁷⁾

아렌트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규범에 따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순종적인 삶의 양식에 길들여지고 만다는 점을 간파한다. 이럴 경우, 주민을 공론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미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리겠다는 의도를 비추어서는 주민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 우리가 하려는 미술이 생활(生活)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의 다원화를 꾀함으로써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말하기 방식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상대적 관점으로 대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에 바빠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

34) 공공미술로서의 시간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과물이 싫증이 나가거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혹은 새롭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5)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옮김, 『민주적 공공성-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이음, 2009, 54쪽.

36)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르면 관객을 주민보다는 그곳을 찾는 관광객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1차관객인 주민이 소외된다면 2차관객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호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작품과 관광객을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주민이며, 작품에 대한 주민의 애착과 자부심이 전제되었을 때 작품의 효과는 배가되기 때문이다.

37) 같은 책, 71쪽.

피지 못할 수 있다. 대화의 주제를 미술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술’로 맺으려는 태도 역시 주의해야 한다. 말을 더듬거나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며, 달변가가 대화를 주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적인 공론(公論)이 제대로 구성되기 어렵다. 공개적인 장에서 말해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냉정한 발언과 논리적인 말에만 무게를 실어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논리가 부족하고 산만하게 보이는 표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차분하게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설득과 토의는 방식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그것을 모호하게 사용하곤 한다. 합리적인 토론을 강조하면서도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이 말을 꺼내면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아 말을 막고 의견에 대한 비판을 사람에게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리고 토론이 합의를 전제로 할 때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배제된다. 따라서 갈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토론의 의미는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다.

예술로서의 미술이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공공미술은 그 진리를 공공의 성격을 내포한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는 것이다. 결국, ‘공공미술’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가의 역량으로 작품을 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하겠다.

[참고문헌]

-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6.
 高明 編, 『古文字類編』, 東文選, 1990.
 국어국문학회, 『국어사전』, 民衆書館, 2002.
 디터 타이헤르트, 조상식 역, 『쉽게 읽는 칸트 판단력 비판』, 이학사, 2003.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옮김, 『민주적 공공성-하버마스과 아렌트를 넘어서』, 이음, 2009.
 스티븐 베스트·더글라스 켈너, 정일준 역, 『탈현대의 사회이론』, 현대미학사, 1995.
 시릴 모라나·에릭 우탱, 한의정 역, 『예술철학-플라톤에서 들뢰즈까지』, 미술문화, 2013.
 신채호, 김종성 옮김, 『조선상고사』, (주)위즈덤하우스, 2014.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易中天, 곽수경 역, 『이중텐 미학강의』, 김영사, 2009.
 임마누엘 칸트, 이재준 역,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 책세상, 2005.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2009.
 전광진 편저,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 LBH교육출판사, 2007.
 조승래,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조요한, 『예술철학』, 미술문화, 2003.
 존 듀이, 정창호·이유선 역, 『공공성과 그 문제들』, 한국문화사, 2014.
 크리스티안 헬무트 벤첼, 박배형 역, 『칸트 미학』, 그린비출판사, 2012.
 프리드리히 셸링, 김혜숙 옮김, 『예술철학』,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F.-W. 폰 헤르만, 이기상·강태성 옮김, 『하이데거의 예술철학』, 문예출판사, 1997.
 하승우, 『공공성』, 책세상, 2014.
 하이데거·야스퍼스 외, 최동희·김병우 외 역, 『철학이란 무엇인가/철학적 신앙 외』, 삼성출판사, 1990.

마을 없는 ‘벽화’, 주민 없는 ‘예술’을 극복하는 벽화마을 조성

벽화 마을이 뜨고 있다. 지난 10년간 마을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지역의 관광지로 성공한 벽화마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속초도 2014년 강원도 마을공공 디자인 무지개마을 사업대상지에 선정돼 새마을길(9길) 담장을 벽화로 단장했다. 속초민예총은 ‘갯배문화제’를 통해 실향의 삶을 그린 벽화 1점을 갯배머리에 선보였다. 2015년에는 해오미21이 이마트와 함께 청호동 일원에 ‘추억’과 ‘동심’을 주제로 벽화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속초의 마을미술은 다른 지역이 지자체 주도로 마을 재생의 관점에서 일관된 기획을 갖고 있다면, 속초는 아직 뚜렷한 지향점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인천시 중구 송월동의 동화마을. 맥아도 장군 동상이 오랜 세월 기립해 있는 자유공원 인근의 마을이다. 소위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개항 이후 인천의 역사와 상처를 품고 있다. 일본과 중국, 근대와 현대가 뒤섞인 이 공간을 중구청은 ‘동화마을’이라는 벽화마을로 만들었다. 피터팬과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 익숙한 동화 캐릭터가 민가 담벼락을 따라 조성된 것이다. 현재 이곳은 많은 젊은이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는 공간이 되었고, 사회적 기업도 생기며 지자체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은 동화마을을 사랑하지 않는다. 지역의 차별성, 지속가능성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관주도의 이벤트 한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인천 송월동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주민들의 이야



기가 모두 묻혀 버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신대 정윤수 교수는 서울시의 시민토크콘서트에서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 삶의 이야기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관광지로서의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에 현혹된 ‘가짜 기억’과 거기서 파생된 ‘가짜낭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처럼 보여주기식 공간의 대표 관광지로 속초의 ‘아바이마을’을 지적하기도 했다. 드라마 <가을동화> 촬영지로 부각시키며 구경거리의 공간으로만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지자체가 벽화마을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빠른 시간에 주거환경 개선효과와 주목받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과 예술이 만나니 지역을 알리는 효자가 되었다는 몇몇 지자체의 성공신화를 뿌리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벽화마을은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공공미술사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대중을 위한 미술’을 뜻하는 공공미술은 1967년 영국의 미술행정가 존월렛이 처음 사용했다. 그는 저서 <도시 속의 미술>에서 대중을 위한 미술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미술의 민주화,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한국은 ‘건축물미술장식제도’가 변경되면서 2006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아트 인 시티’ 사업은 전국의 문화 소외·낙후 지역 32곳의 생활 환경을 공공미술을 통해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주민이 예술가들과 함께 지역을 바꾸는 첫 번째 시도였던 이 사업으로 서울의 이화동 벽화마을이 탄생했다. 이 해에 통영에서는 민간 기관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벽화사업이 시작되기도 했다. 지금의 벽화마을 열풍을 이끈 통영 동피랑 마을이다. 이후 부산 감천동, 서울 삼청동 등 대박이 난 지자체가 언론에 홍보되면서 지금까지 민·관에 의해 조성된 벽화마을만 공식적으로 100여 곳이 넘는다고 한다.

이제 십여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공공미술(벽화마을)은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벽화’ 치중의 공공미술이 첫 번째다. 정서적 빈곤해소와 마을 환경개선의 방법을 다른 지역사례에서 쉽게 찾으려는 관 주도 사업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존관리가 어려운 페인팅 벽화보다 도자타일 벽화를 시도하는 곳이 많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브랜드 없이 하향평준화 된다는 점이다. 마을과 무관한 유명한 캐릭터를 그리거나 비슷한 이미지의 그림이 범람하고 있다. 마을의 정체성이나 차별성은 물론 예술성마저 없는 마을벽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가 미비할 뿐이다. 주민 삶의 불편도 심심찮게 제기된다. 외부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사생활 노출은 물론 구경거리로 전락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마을벽화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 주도를 탈피하여 민간에서 먼저 벽화를 마을재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벽화마을이나 공공미술도 그 접근방법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 중심 키워드는 ‘지속가능성’, ‘마을’, ‘주민’이다.

마을, 주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벽화마을의 관광효과는 부산감천문화마을이나 통영 동피랑 마을의 신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을재생의 도구에서 시작한 벽화마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브랜드가 되고 있으니 지자체의 관심은 당연하다.

하지만, 성공의 예는 적고 그 부작용이나 아쉬운 점은 이제 막 시작되는 벽화마을이 많다. 부산의 경

우를 살펴보자. 부산감천마을은 항구도시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다. 이곳은 단순한 벽화마을이 아니라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벽화를 비롯한 도자와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예술가가 상주하는 일종의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마을 축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다. 마을의 정체성과 주민의 협력,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마을도 있다. 부산 안창마을이다. 이곳은 부산시 동구 범일동과 부산진구 범천동에 걸쳐 자리한 산골마을이다. 깊숙하고 구석진 마을이라는 의미의 ‘안창’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 마을이다. 이곳에 공공미술의 개념으로 마을벽화 사업이 펼쳐졌다. 부산의 여느 달동네처럼 울망졸망한 골목길과 자연의 정감, 서민층의 정서가 어우러진 벽화마을이었다. 점차 소문이 나면서 외지 관광객이 찾아왔고, SNS를 통해 벽화마을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이 문제였다. 관리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칠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 흉물이 되어간다는 비판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벽화마을 조성 초창기의 관 주도성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 주민들 역시 마을벽화의 순기능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편이다. 하지만 주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실적주의라는 관 주도 사업의 한계는 명확하다. 사업계획 안에 장소 물색, 주민조직과의 만남, 작품 제작, 설치 등의 사업계획이 1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역의 전통이나 주민과의 충분한 교감없이 근시안적 아이디어 위주의 벽화마을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벽화마을의 시초라고 하는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은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벽화의 관리는 물론 골목길 빈터에 화단과 텃밭, 쉼터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고려했다. 또한, 마을의 오래된 주벽을 수리하여 마을 박물관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점도 의미 있다. 마을역사와 생활도구들을 전시하는 마을 박물관은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벽화 외에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 주민의 삶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 행궁동 벽화마을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이 마을에서 자란 이윤숙 대표와 김정집 관장이 부모님의 집을 리노베이션하여 ‘대안공간 눈’을 만들었다. 전시장과 찻집, 도서관을 만들어 개방했고, 작가들에서 골목 벽화를 맡겼다. 작가가 동네에 입주하고, 주민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자 행궁동은 예술마을이 되었다. 주민의 편의성과 작가의 창의성이 만나 주민주도의 예술마을이 된 것이다. 주민과 작가가 함께 만들고, 지자체의 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하는 벽화마을. 속초의 벽화마을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벽화가 아닌 공공미술, 마을만들기의 관점 필요

지난 2006년 동피랑 마을, 2008년 청주 수암골마을, 2009년 부산 감천마을 등 벽화마을의 성공신화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가 마을벽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중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의 정체성 확립이나 거주지에

대한 애정은 덤이다. 여기에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와 마을의 활기가 더해지면 바랄 것이 없다.

속초 역시 지난해부터 마을벽화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예전에는 시내 곳곳의 빈 담벼락을 페인팅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역성을 감안한 접근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새롭다고 할 수 있다.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는 이마트와 함께 ‘문화예술 도시·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벽화를 시도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민이 문화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이다. 올해는 청호동 일대의 골목 세 곳에 벽화를 그렸다. 파스텔조의 벽면 위에 6,7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코믹한 그림과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렸다. 벽화마을 조성사업 개전식에 참가한 주민은 “낡은 골목이 밝고 환한 느낌의 아름다운 골목으로 변신해서 고맙다”며 오랜만의 마을 활기를 즐기는 모습이였다. 아쉽다는 말도 나왔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정체성이 담긴 개성”의 실종을 안타까워했다.



마을에 벽화를 조성할 때 주민의 참여와 관심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예술가의 감성과 지역의 정체성이 만날 수 있다면 마을만들기는 다른 수확도 얻을 수 있다. 최근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목호 논골담길 마을벽화가 그렇다. 마을 주민이 담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참신한 벽화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청호동 아바이마을은 속초에서 가장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고 있는 곳이다. 실향의 애환, 북청사자, 6,70년대 정서, 오징어 순대 등의 콘텐츠와 주민조직을 연결할 수 있는 문화기획이 필요하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한화리조트와 함께 ‘설악골 삶 터 이야기’라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장중심, 과정중심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과함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찾으며 마을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벽화 역시 이런 관점에서 시작한다. 사업을 총괄 진행하고 있는 노승엽 지역조직화 팀장은 “벽화작업은 현재 페인팅만 하고 있는데 향후 속초 예총 등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내용을 채워갈 예정”이라며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를 강조했다. 벽화뿐만 아니라 공터를 활용한 마을텃밭, 쉼터 등 종합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적 관리를 위한 주민조직도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마을만들기 시도이지만 처음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마을만들기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의 교류와 기획, 주민조직의 역량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을 벽화는 낙후지역 마을재생이라는 목표와 함께 주민을 위한 예술적 감성, 지역의 문화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을이나 주민을 대상화하는 유희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지역의 활동가와 예술가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간조직의 역할도 중요하다. 속초형 마을벽화는 이제 시작이다.



속초시립박물관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속초시립박물관이 ‘겨울방학 어린이 문화학교’를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초등 3~6학년으로, 6일부터 16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문화학교는 박물관 유물을 공부한 뒤 퀴즈도 풀고 세계 각국의 설 풍습에 대해 알아보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금속공예가 문정현 씨 속초서 첫 작품전

속초 출신 금속공예가 문정현(45) 씨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속초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금속조형전을 연다. 문 씨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10여 차례의 작품전을 열었으며, 속초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씨는 이번 전시회에 규모가 있는 설치조형작품을 비롯해 아가지기한 생활공예 작품 등 10여 점을 선보인다.

김인섭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해수부장관 표창

김인섭(46)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이 속초등대를 널리 알린 공로로 1월 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시무식에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속초민예총 문학협회 회원인 김 사무국장은 <설악신문>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속초등대 칼럼’과 속초 출신 고희열 시인의 시집 <등대와

‘2015 속초문화예술 해적이’는 설악신문의 문화면을 요약하여 지난 1년간 속초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속초문화 365’와 함께 지역문화예술계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뽕>을 해석한 글을 게재하는 등 속초등대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렸다.

속초문화원 “문화자원봉사자 찾습니다”

속초문화원이 문화예술계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한다. 속초문화원은 2014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육 관련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과 연결시켜주기 위해 개설한 웹사이트 ‘문화체육자원봉사’(csv.culture.go.kr)의 운영 및 관리 기관으로 지정됐다. 문화원은 해당 사이트를 수시로 방문, 속초지역에서 문화부문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 바이올린’ 한소영 원장 첫 독주회

속초에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소영(34) 씨가 1월 17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첫 독주회를 연다. 협주하는 한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아영·강선영·배은지 씨가, 첼리스트 이경아 씨가 함께 한다. 피아노 반주자로 김수경 씨가 참여한다.

속초관광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속초시립박물관이 2월 28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제14회 속초관광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 작품전시회’를 연다. 속초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속초를 찾을 것에 대비, 속초의 특색 있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박물관에 작품전시회를 재차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속초축제위원회 2기 이사진 구성

(사)속초축제위원회는 1월 15일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12명의 2기 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투표를 통해 2기 이사로 광철신 한일건설 대표, 김재기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김진태 속초신협 이사장, 박무웅 속초문화원장, 박영철 농어촌기반공사지식센터장, 박혜철 청호동주민자치위원장, 백영철 속초축제위원회 이사장, 장용근 속초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정봉재 속초예총 회장, 조명수 속초시생활체육회장, 조진관 경동대 교수, 허우린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회장을 선출했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준공식 개최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준공식이 1월 16일 현지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김종희 속초시부시장, 오순석 속초도문농요보존회장, 박무웅 속초문화원장, 문화계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속초도문농요의 전수활동 활성화와 체계적인 전승·보존 기반 마련을 위해 속초도문농요전수관 건립을 추진했다.

속초교육문화관 문화활동강좌 수강생 모집

속초교육문화관이 '2015년 문화 활동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2015년 문화활동 강좌'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는 단기강좌와 11월까지 운영되는 장기강좌로 진행된다.

속초문화원 청소년 '향토사동아리' 지언

속초문화원은 초·중·고생들이 '향토사동아리'를 결성하면, 문화관광해설사를 학교에 파견해 향토사 수업을 지원한다. 교육은 우리지역 문화재 알기, 신홍사에서 만나는 불교문화, 인문학으로 만나는 속초 8경, 속초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물사이길에 있는 우리 문화, 속초 문화 미스터리, 문화탐방 등을 학생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교구재를 활용, 강의와 체험, 토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리원마을 '속초아리랑' 음반 제작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마을 일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토속 민요 '속초아리랑'이 음반으로 제작된다. 시에 따르면 속초아리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을 위해 현재 속초아

리랑보존회(회장 김부영)가 음반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음반 제작에 필요한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정봉재 속초예총 회장 재선

정봉재(54) 속초예총 회장이 제11대 회장에 재선됐다. 속초예총은 1월 30일 문화사랑방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열고, 11대 회장에 단독 출마한 정봉재 현 회장의 재선을 확정했다. 임기는 오는 2019년 정기총회까지 4년 간이다.



속초 음악영재들

속초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음악 영재들이 선보이는 '영 아티스트 연주회'가 2월 8일 오후 5시 설악문화센터 2층 카페소리에서 열린다. 설악문화센터는 "이번 공연은 음악을 전공하는 어린 영재들이 무대에서의 공연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뚜렷한 목표의식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가족과 떠나기 좋은 박물관

국립산악박물관이 한국관광공사의 2월의 테마 '가족과 떠나기 좋은 전국 박물관·미술관 여행지 8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매월 주제별로 '이달의 가볼만한 곳'을 선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이달의 가볼만한 곳'은 기자, 여행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속초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참여단체 모집

속초시가 '201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문화예술단체를 2월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올해는 연극(연극, 인형극, 마당극, 뮤지컬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음악(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등), 국악(전통 타악 합주, 관현악, 실내악, 풍물놀이 등), 등 4개 부문에서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김중현 속초예총 수석부지회장 재임

김중현 (사)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장이 한국예총 속초지회(지회장 정봉재) 수석부지회장에 재임됐다. 예총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김 수석부지회장이 재임됐고, 신오일 연극협회 속초지부 고문과 김명길 연예예술인협회 회원이 부지회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속초시립박물관 설날 민속행사 품짐

속초시립박물관은 2월 19일 설날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민족 명절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민속체험행사를 마련한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설날 당일만 치러지는 짧은 행사지만, 전통문화와 풍속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이 2월 24일부터 향토문화학교 23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문화학교는 고전무용(15명), 노래교실(50명), 민요교실(20명), 서예교실(25명), 장구교실(15명), 사물중급(장구 1년 수료생 20명), 한지공예(20명) 등 7개 강좌가 마련됐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설악문화센터 '영미가곡' 공연

설악문화센터가 '세계 예술가곡 시리즈' 두 번째 공연으로 '영미가곡'을 무대에 올린다. 청울아트컴퍼니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설악문화센터 2층 카페소리에서 '세익스피어 시에 의한 영미 가곡' 공연을 연다.

속초문화원 개원 50주년사업

속초문화원이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속초 구현'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김인섭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은 "개원 50주년을 맞은 올해 문화원은 지역 문화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기능을 한 단계 강화하고, 속초의 문화를 재조명하는 또 다른 반세기의 시작을 맞는다"며 "속초시민 전체가 향토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원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속초예총 회장 이·취임식

속초예총 회장 이·취임식이 2월 24일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이반 이임회장, 정봉재 취임회장, 이병선 속초

시장, 김진기 속초시의장, 김시성 강원도의회, 예총 고문 단 및 임원, 회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중숙 화가 서울 인사동서 '속초다' 전시

속초 화가 김중숙 씨가 2월 25일부터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5층에서 개인전 '속초다'를 열고 있다. 화가는 고등어, 꼴뚜기, 가자미, 말린도루묵, 명태, 열갱이 등 바다 물고기와 교동, 청호동, 영랑동, 장사항 등 속초를 그렸다. 박인식 씨는 그의 그림을 "꾸덕꾸덕하게 말린 생선 같고, 쿼쿼하게 삭힌 가자미 식해 맛"이라고 표현했다.



지역 청소년들 실향민문화 배운다

속초시립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시립박물관협회 주관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시립박물관은 22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3월부터 12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향토문화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속초 정월대보름 도내 최대 달집태우기

제33회 속초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가 3월 5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청초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엑스포운동장)에서 펼쳐진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올해 정월대보름 행사는 '달집태우기'와 '지신밟기'와 함께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꾸며진다.

중앙로 108번길서 '사진을 찾아라'

J108 아트 로드 프로젝트 두 번째 미션 '사진을 찾아라'가 4월 5~6일 이틀간 속초시 중앙로 108번길 일대에서 진행된다. 행사 당일 오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는 박관영 사진작가의 사진을 보고, 촬영장소를 찾아 인증샷을 찍어 오면 작가의 사진이 담긴 예쁜 액자를 선물로 준다.

속초문화원 "통소 배우러 오세요"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매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열고 있는 '통소' 강좌를 3월 17일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9일부터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속초문화원은 "

통소는 북청사자놀음을 통해서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전통악기"라며 "시민들이 통소를 배워 향후 연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강좌를 마련했다"고 했다.

박동국 속초미협 명예회장 강연작가 초대전

박동국 속초미협 명예회장의 열여섯 번째 개인전이 3월 5일 개막, 이달 30일까지 대명델피노 골프&리조트설악더 갤러리D에서 열린다. 박동국 명예회장의 수채화 '송죽의 겨울', '수(守)', '울산바위' 등 30여 점이 전시됐다. 이어 4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고주리 속초미협 회장의 꽃 이야기, 숲 시리즈를 비롯한 섬유공예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위스콘신대학합창단 설악문화센터 공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합창단이 선보이는 감동의 무대가 속초에서 펼쳐진다. 설악문화센터는 3월 21일 오후 7시 카페소리 공연장에서 '위스콘신대학교 리버풀 합창단'의 '합창의 향연'을 연다.

사진작가 임채욱 설악산 작품전

국립산악박물관(관장 임승웅)이 3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1층 기획전실에서 사진작가 임채욱 씨의 작품전 '설악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연다. 임 작가는 서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사진작가로, 그림과 사진의 경계선을 오묘하게 넘나드는 사진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RUN갯마당 올해도 공연장 상주단체 선정

RUN갯마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 연말까지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을 갖는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전문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장 가동률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RUN갯마당 공연은 속초시(속초문화회관)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 강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무료 사진 증급반 수강생 26일까지 모집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지부장 김용환)가 3월 26일까지 무료 사진 증급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작가협회는 사진동호인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사진교육을 이수한 사진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폴니움 시낭송회' 올해 첫 정기 시낭송회

'폴니움 시낭송회'(회장 정미숙)는 3월 28일 오후 6시 속초시 영랑동 소재 그리운보리밥 2층에서 올해 첫 정기 시낭송회를 연다. 폴니움은 올해부터 작은 규모의 공연장에서 분기별(연 4회)로 공연을 열기로 했다.

속초시립박물관 공모사업으로 교육 다양화

속초시립박물관이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있다. 시립박물관은 2월 14일 지역 초·중생을 대상으로 실향민문화를 체험하는 향토문화교육 프로그램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이 선정된데 이어, 최근 성인들이 속초의 역사와 문화 등을 배우는 '속초 문화아카데미' 사업이 국립민속박물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속초YMCA 시민과 함께 봄맞이 음악회

속초YMCA가 3월 27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음악회'를 연다. 이날 음악회에는 1980년대 활동했던 가수 '건아들'과 '함중아와 양키스'의 멤버 일부가 찬조 출연하며, 소프라노 김하나, JM아카데미도 무대에 올라 공연을 갖는다.



고주리 미협 속초지부장 개인전

고주리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이 4월 1일부터 26일까지 델피노 골프&리조트 이번 전시회는 더 갤러리 D의 '자연을 그리다, 강원도를 담다' 두 번째 시리즈로, 20여 점이 선보인다

펑키재즈 '이한진 밴드' 속초 공연

설악문화센터가 4월 10일 오후 7시 2층 카페소리에서 이한진 밴드의 '브라스와 재즈가 만난 신나는 펑키공연'을 연다.

속초문화원 청소년 대상 향토사교육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향토사교육을 진행한다. 문화원은 4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위스타트 속초마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만화, 문학 등을 활용해 속초시의 지명 유래, 상징, 인물, 음식 등에 대한 향토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봄 사랑, 설렘, 그리움 그 아련함

설악문화센터가 따뜻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음악공연에 주민들을 초대한다. 설악문화센터는 4월 17일 오후 7시30분 2층 카페소리에서 한국가곡, 오페라아리아, 아일랜드 민요 등을 들려주는 음악회 ‘봄 사랑, 설렘, 그리움 그 아련함’을 연다.

물소리시낭송회 초기부터 활동 허정원 씨

속초시 노학동에서 황태전문점 ‘두메산골’을 운영하는 허정원씨가 첫 시집을 펴냈다. 최근 출간된 허 씨의 처녀시집 <늦여름에 오신 손님>(황금알)은 설악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을 노래한 시들로 구성, ‘울산암을 흐르는 강’, ‘겨울 영랑호’, ‘당신의 마음 때문에’ 등 83편이 실렸다.

강원연극제 속초 3개 극단 참가

도내 연극인들의 축제 ‘제32회 강원연극제’가 4월 4일 강릉에서 개막, 14일까지 ‘단오문화관’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열리는 가운데 속초지역에서 3개 극단이 참가한다. 속초는 극단 ‘청봉’이 12일 단오문화관에서, ‘소울싸어터’는 13일 작은공연장 단, ‘파.람.불’이 14일 단오문화관에서 각각 공연한다.

속초문화원 어르신문화 공모사업 선정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사업’과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사업’ 등 2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사업은 지역 노인들이 문화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원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실향민문화 공연단(돈돌라리요)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속초시립합창단 시청서 음악회

속초시립합창단(지휘자 송은희)이 4월 17일 속초시청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음악화-세상을 바라봄, 당신은 봄봄봄’을 연다. 이날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시청 로비 및 주차장 일원에서 스탠딩콘서트 형식으로 열리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립합창단의 혼성합창과 ‘원 기타 듀엣’의 클래식 기타 연주로 꾸며진다.

창립 20돌, 속초민예총 2015 예술축전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이

‘2015 예술축전’을 개최한다. 속초민예총은 4월 18~19일 ‘음악이 흐르는 거리 예술장터’, 26일 ‘봄밤 시낭송 대회’ 등 2개 테마로 예술축전을 마련했다

극단 ‘파·람·불’ 전국연극제 간다

극단 ‘파.람.불’(대표 석경환)이 제32회 강원연극제에서 ‘전명출 평전’(백하룡 작, 변유정 연출)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파.람.불’은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연극제에 도 대표로 출전한다.

설악산 사계 담은 사진집 펴내

임흥빈 속초시의회사무과장이 최근 설악산의 사계를 담은 사진집 <설악 언제나 그대 품속을 그리며>(북메이드, 192쪽)를 펴냈다. 임 과장은 설악산의 웅장함과 비경을 널리 알리고, 우리에게 설악이란 무엇인지, 나아가 대한민국에 있어 설악산의 의미가 되새겨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야기중창단’ 두 번째 정기공연

속초에서 활동하는 음악동호회 ‘이야기중창단’(단장 박정섭)의 두 번째 정기공연이 4월 24일 설악문화센터 카페소리에서 열렸다.



RUN갯마당 학교문화콘서트

(유)RUN갯마당(대표 최종현)이 5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문화콘서트’를 연다. RUN갯마당은 최근 강원도교육청 공모사업 ‘찾아가는 학교문화콘서트-바람(望) 찬(撰) 교실’에 선정됐다

1·3세대 전통놀이로 소통

속초문화원 어르신 문화 나눔 봉사단 ‘설악문화나눔친구들’이 5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돌봄 교실 학생들을 찾아간다. 이 프로그램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행복 나눔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 할머니들이 초등학교를 찾아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 전통놀이를 전수하

게 된다. 봉사단 소속 노인 15명이 속초지역 5개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중숙 화가 '속초다' 속초 전시회

2월말부터 한달간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던 김중숙 화가의 '속초다' 전시회가 작가의 고향인 속초에서 열리고 있다. 속초 미묘화랑(관장 김주용)은 이전 오픈 기념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김중숙 화가 초대전을 마련했다.

속초문화원 장릉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용)이 설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 2010년~2012년 공모한 '장릉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속초시립박물관 전시실에서 각각 열린다.

제26회 속초종합예술제 13일 개막

제26회 속초종합예술제가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펼쳐진다.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은 '모두가 함께 하는 속초예술'이란 테마 아래 8개 협회(문인·미술·연극·음악·국악·사진작가·무용·연예예술인)가 참여하는 전시, 공연, 경연 등 13개의 종합예술제 행사를 개최한다.

속초민예총, 어버이날 독거노인지원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은 4월 25일 개최한 2015 예술축전 공예·미술무료체험행사에서 시민들이 후원한 19만 8,000원과 속초등대 이철수 소장이 기증한 이불 5채를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 5가구에 전달했다. 속초민예총 정은희 사무국장은 "1년에 한번이라도 예술활동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립산악박물관 마운틴시네마

국립산악박물관이 매주 주말과 휴일에 산악영화 및 산악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상영하는 '마운틴 시네마'를 운영하는 가운데 5월에도 9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그리운보리밥 '차라리 보릿고개' 행사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그리운보리밥'(대표 이진여)이 5월 16일 낮 12시 SNS 친구들과 함께 하는 '차라리 보릿고개' 행사를 연다. 이와 함께 수제품과 중고물품, 먹거리 등을

교환하고 사고파는 자유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설악문화센터 '재즈로 듣는 영화음악'

설악문화센터가 5월 15일 오후 7시30분 2층 카페소리에서 '재즈로 듣는 영화음악'(Jazz in Film)을 연다. 이날 무대에는 기타리스트 김정배, 재즈 보컬리스트 조정희, 피아니스트 이의광 씨가 출연해 영화음악을 들려준다.

제26회 속초종합예술제-사진작가협회 회원전

속초예총의 제26회 속초종합예술제 행사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지부장 김용환)의 열 번째 정기 회원전이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환경감수성 사진전,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 조명하다'를 부제로, 설악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담은 사진들이 선보인다.

청년 색소폰 앙상블 에스윗 공연

5월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콘서트로 청년 색소폰 앙상블 S.with(에스윗)이 속초를 찾아온다. 5월 속초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27일 오후 7시30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무료 공연으로, 초등학교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이은자 설악문우회장 첫 수필집 펴내

이은자(74) 설악문우회장이 첫 수필집 <동행>(글나루, 395쪽)을 펴냈다. 1973년 설악문우회 입회해 글과 인연을 맺은 지 42년 만이다. 이은자 회장은 "책 묶을 엄두조차 못 내던 내가 속초고 7회 박무용, 박태호 동창의 후원을 받아 결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책을 묶느라 수고를 보태준 모든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설악문화센터 '박혜경 뮤직테라피'

설악문화센터가 5월 29일 오후 7시30분 2층 카페소리에서 '박혜경 뮤직테라피'를 연다. '뮤직테라피'는 음악치료를 일컫는 말로, 이날 공연은 '세상을 바꾸는 나, 나를 바꾸는 표현 예술 치료'를 주제로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으로 진행된다.

제26회 속초종합예술제-극단 파·람·불 '전명출 평전' 공연

속초예총의 '제26회 종합예술제' 행사로 극단 파·람·불의

연극 '전명출 평전'이 주민들을 찾아간다. '전명출 평전'(백하룡 작, 변유정 연출)은 지난달 막을 내린 제32회 강원연극제 대상 수상작으로, 주인공 전명출의 인생을 통해 대한민국 격동의 현대사를 보여준다. 공연은 5월 31일 오후 5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2015 바다사랑 속초 전국사진촬영대회

지난 2월 속초에서 열린 '2015 바다사랑 속초 전국사진촬영대회'에서 속초 이춘자 씨의 '청초호의 환타지오'가 영예 금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지부장 김용환)는 최근 심사를 마치고, 5월 22일 문화회관에서 시상식과 함께 28일까지 수상작 전시회를 열었다.



속초문화회관 연극 '메피스토' 영상 상영

속초문화회관이 예술의 전당의 영상화사업에 선정, 6월 19일 연극 '메피스토' 공연 영상을 상영한다. 속초시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이 전국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2015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SAC on Screen'에 속초문화회관이 선정됐다.

속초시 문화공연으로 '직장 화합'

속초시가 올해 상반기 직장화합을 위한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시는 6월 4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직원 및 가족을 초대해 '반 고흐 음악회'를 연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직장화합행사를 등산과 체육 행사로 열었으나, 이번에는 직원과 가족이 함께 '그림과 음악'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소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제26회 속초종합예술제-2015 설악청소년무용제

속초예총의 제26회 종합예술제가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행사로 지역 청소년들과 러시아 청소년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 '2015 설악청소년무용제-러시아청소년민속예술단 합동공연'이 6월 14일 오후 4시 속초문화회관 대강에서 열린다.

연극 '메피스토' 스크린으로 만난다

속초시는 6월 19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극 '메피스토' 공연 녹화영상을 상영한다. 연극 '메피스토'는 독일의 대 문호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를 독창적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속초하면 갯배잡니.' 제2회 갯배문화제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이 6월 20일 청호동 갯배 선착장 일원에서 '제2회 갯배문화제'(부제 '속초하면 갯배잡니~')를 개최한다. 갯배문화제는 속초시의 대표적인 관광 문화자원인 갯배와 아바이마을의 실향민문화를 접목시킨 문화예술축제로, 속초민예총이 지난해 처음 열었다.

설악문화제 청소년축제기획단 이을 설명회

제50회 설악문화제 세부 행사로 열리는 청소년축제 '거리가 무대'의 기획에 참여할 지역 청소년들을 25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실행공동체 '랑'은 6월 27일 오전 10시 엑스포 주제관 세미나실에서 2015 청소년축제기획단 '이을 스쿨' 설명회를 열고, 20명 정원의 청소년축제기획단을 꾸릴 예정이다.

일본군위안부 다룬 '못다 핀 꽃' 공연

RUN갯마당(대표 최중현)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작품을 선보인다. RUN갯마당은 '문화가 있는 날'인 6월 24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올해 첫 창작 작품 '못다 핀 꽃'을 공연한다.

'메르스' 영향 문화행사 줄줄이 연기·취소

속초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등의 여파로 예정됐던 문화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속초시와 문화예술단체들에 따르면 6월 13일 속초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속초예총의 '제26회 설악청소년가요댄스 경연 본심'이 7월 18일 청초호유원지 분수광장으로 연기됐고, 19일 문화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연극 '메피스토' 상영도 10월 15일로 늦춰 개최기로 했다.

속초시립박물관 피난살이 체험행사

속초시립박물관이 6.25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6월 25일 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에서 '피난살이 체험행사'를 연다. 피난살이체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체험 및 공연 관람 등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까지는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설악문화센터 드럼 수강생 모집

설악문화센터가 드럼 5기 무료 수강생을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 드럼 5기 강좌는 6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매주 일요일 9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드러머 루디 보츠가 강의한다.

설악윈드오케스트라 '청소년 음악회'

속초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설악윈드오케스트라(악장 함상균)가 6월 27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연다. '설악윈드오케스트라'는 현직 음악교사 및 음악 강사를 비롯해 학창시절 관악 부원, 악기 수강생 등 40여 명으로 구성, 매주 화요일 문화회관 지하대피소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속초민예총 "6월 등대축제로 오세요"

속초민예총이 6월 27일 오후 2시 속초등대 해양문화공간에서 6월 등대축제 '프로포즈 페스티벌 속초, 사랑에 빠지다'를 연다. 등대축제는 민예총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기술협회가 속초등대를 명소화 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4~10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고 있다

'2015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준비 돌입

속초시가 8월 7~10일 4일간 청초호유원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2015년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로 12년째인 이번 행사는 (주)G1강원민방 주관으로 청초호유원지 내 이벤트 행사장(메인무대)과 속초해변, 속초관광수산시장 등에서 다양한 테마로 진행된다.

속초문화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속초시립박물관에서 7월 28일~3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 '보고 듣고 표현하자'는 중학생 2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7~9월 사용 못해

속초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9월까지 문화회관 대강당 무대시설의 정비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이 기간 동안 대강당을 사용할 수 없다. 시에 따르면 문화회관은 지난 2013년 12월 무대 안전정밀진단에서 기계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문화원 '도문농요전수관' 위탁 운영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을 위탁 운영한다. 시는 6월 25일 시장실에서 속초문화원과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속초문화원은 속초도문농요보존회와 함께 전수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60년대 사진 기증 미국인 바이런 디킨슨 씨 속초 방문

2013년 속초시에 1960년대 사진 221장을 기증했던 미국인 바이런 디킨슨(71) 씨가 당시 사용했던 카메라 등 개인 소장품을 기증하기 위해 다시 시를 찾았다. 디킨슨 씨가 2013년 기증한 221장의 사진은 속초시 승격 당시의 모습이 뚜렷하게 담겨있다.

극단 파·람·불 제33회 전국연극제 '대상'

속초 극단 파·람·불(대표 석경환)이 24년 만에 또 다시 전국연극제 대상을 수상했다. 극단 파·람·불은 지난 1991년 '한씨연대기' 수상에 이어 전국연극제 2회 수상의 극단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뉴미디어쇼 '더 블루' 환상의 세계로

공연계의 미다스 손 박칼린 감독이 연출하는 미디어 쇼 '더 블루'가 속초에서 펼쳐진다. (주)미디어엔메세는 7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37일간 신세계 영랑호리조트에서 '더 블루'를 연다.

고 윤홍렬 속초예총 초대회장 유고집 발간

지난해 7월 3일 타계한 고 윤홍렬 속초예총 초대회장의 유고집이 발간됐다. <갈피>를 발행하는 '설악문우회'(회장 이은자)는 7월 11일 오전 11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람관에서 '고 윤홍렬 회장 1주기 추모 및 유고작품집 헌정식'을 연다.

속초 출신 '클래식 아티스트' 공연

설악문화센터가 7월 24일 오후 7시30분 2층 카페소리에서 속초 출신 음대생, 대학원생들이 선보이는 '속초의 클래식 아티스트'를 연다. 이날 공연에는 피아노 최진경·

김현아·최희·최소연 씨를 비롯해 소프라노 이주애·김지윤 씨, 바이올린 정희은 씨, 플룻 권예나 씨 등 8명이 무대에 오른다.

“문화 따라, 발길 따라” 참가가족 모집

속초시립박물관이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여는 여름방학 가족 프로그램 ‘동네방네 문화 따라, 발길 따라’ 참가 가족을 25일까지 모집한다. 한편, 속초시립박물관은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금·토요일마다 야간 개장(오후 6시~9시30분)에 들어간다. 야간 개장 기간 동안 속초사자놀음과 시립품물단 및 RUN갯마당 품물공연이 진행되며 전시실도 개방된다.

첫 시집으로 속초에 안부전해오

속초중학교 제27회 졸업생 한상권(53) 씨가 첫 시집 <단디>(시인동네)를 펴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한 씨는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속초로 이사와 중앙초교를 졸업하고, 속초중을 마친 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1993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했으며, 현재 대구 심인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속초시립박물관 근충전 21일 오픈

속초시립박물관이 올 여름방학에도 ‘근충전-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연다. 이와 함께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근충들의 표본도 전시,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내 유명 DJ 속초해변 찾는다

국내 유명 DJ들이 속초해변을 찾는다. 속초시에 따르면 대한민국음악대향연(8월 7~10일)의 사전 불 업 행사로, 7월 26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속초해변 특설무대에서 ‘DJ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윤홍렬 문화예술장학회 발족

‘고 윤홍렬 속초예총 초대회장 1주기 추모 및 유고작품집 헌정식’이 7월 11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 1층 청람관에서 문인협회 속초지부(지부장 김종현)와 설악문우회(회장 이은자) 주최로 열렸다.



제1회 훈춘 청소년 문예대회 개최

한국예총 속초지회(지회장 정봉재)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6일간 중국 훈춘시에서 제1회 훈춘 청소년 문예대회를 개최한다. 속초예총은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개최해온 훈춘국제가요제를 중단하고, 올해부터 문화예술교류사업으로 훈춘의 조선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예대회를 열기로 했다.

RUN갯마당 서울시청서 ‘뭇다 핀 꽃’ 공연

(유)RUN갯마당(대표 최종현)이 8월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촛불문화제’에서 ‘뭇다 핀 꽃’을 공연한다. ‘뭇다 핀 꽃’은 RUN갯마당이 공연장(속초문화회관)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창작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 중군 ‘위안부’를 다루고 있다.

중앙동 어판장을 기억하다

사라진 중앙동 어판장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은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청호동 속초시수협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공동 3층에서 수협 신축 사옥 이전을 기념하는 전태극·박경심 2인 초대 사진전을 연다. 전태극·박경심 씨는 “순간이 모이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모이면 역사가 된다. 속초의 한 세월을 감당했던 중앙동 어판장, 그 세월의 마디를 기억하고자 한다”고 했다.

속초문화원, 시민문화예술학교 운영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은 ‘문화로 벼를 만날 수 있는 배움터-시민문화예술학교’ 참가자를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18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9월 17일까지 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속초문화원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연극놀이, 클래식 음악여행, 한국정원과 누정건축 익기, 상도문마를 탐사, 실향민 문화체험, 관외 문화체험 등으로 진행되며, 마을 중심의 인문학 관련 교육도 마련된다.

설악권 연구 음악인·예고생들 무대

설악문화센터가 설악권을 연구로 활동 중인 음악인과 예고생들이 꾸미는 무대를 마련한다. 설악문화센터는 8월 21일 오후 7시30분 ‘속초, 우리들의 공연’(속초의 대중음악 아티스트)과 22일 오후 6시 ‘2015 3rd 클래식 영 아티스트 공연’을 2층 카페소리에서 연다.

속초사진작가협회 김성학씨 ‘울산바위 반영’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김성학(사진)씨가 작품 ‘울산바위 반영’으로 제19회 강원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 가장 이상 9명 가운데 4명이 속초사진작가협회 회원이어서, 속초관광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설악문화재단 2015 문화예술장학생 모집

(재)설악문화재단이 음악, 미술, 문학 등 문화예술부문에 소질이 있는 지역 청소년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에 8월 30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대상은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과 잠재능력이 돋보이는 속초·고성·양양지역 중·고생으로, 장학생은 분야와 인원 구분 없이 선정한다.

9월 등대축제는 ‘가시버시 사랑’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이 9월 12일 오후 3시 속초등대 해양문화공간에서 9월 등대축제 ‘Love in 속초등대 프리포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9월 등대축제는 ‘가시버시 사랑’을 테마로 국악밴드 ‘락(R.O.K) 드림’, 속초아리랑보존회, 민예총 국악협회, 속초시립합창단 등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도중 즉석 프리포즈 타임도 마련된다.



장롱 속 옛 사진 찾습니다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네 번째 장롱 속 사진을 공모한다. 속초문화원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공모 사진은 근현대(1900~1989) 인물사진(가족·이웃)을 비롯해 집안 행사사진(돌·환갑·생일잔치 등), 문화유적, 골목길, 건조물 등 속초시의 변천 및 발전상을 살필 수 있는 옛 사진이다. 문화원은 사진 속 이야기를 담아 공모사진 전시회를 열고 사진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제2의 갯배를 찾습니다’ 수강생 모집

<설악신문>은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 ‘제2의 갯배를 찾습니다-속초마을 문화로 돌아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예술창작자, 문화매개자, 일반시민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해 속초지역의 길과 공간, 생활문화 등

을 문화적 관점으로 재해석해 지역문화콘텐츠로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역 향토사학자, 문화기획자의 강의 및 현장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설악문화예술단 창단 1주년 기념 공연

설악문화예술단(예술총감독 김기선)이 9월 10일 저녁 속초시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창단 1주년 기념공연을 열었다. 이날 공연은 장윤정 콘서트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전문공연팀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주부 백일장 산문 김선영·시 전명희 씨 장원

속초시와 속초관광수산시장상인회가 8월 29일 개최한 ‘제8회 전통시장 글짓기·그림그리기 및 주부 백일장’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글짓기는 초등 1~2년부문 엄가은(교동초), 3~4년 김주혁(청대초), 5~6년 김도연(교동초) 학생이, 그림그리기는 어린이집 부문 박예은(낙산어린이집), 초등 1~2년 김가현(교동초), 3~4년 하음(속초초), 5~6년 권경림(교동초)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부 백일장은 산문 부문 김선영, 시 부문 전명희 씨가 각각 장원에 올랐다.

속초문화원 시민문화예술학교 수료식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은 9월 17일 개원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마련한 ‘문화로 벼를 만날 수 있는 배움터-시민문화예술학교’ 수료식을 열었다. 8월 18일부터 화요일마다 5주 과정으로 운영된 시민문화예술학교는 30여명이 참가, 연극놀이, 클래식 음악여행, 한국 정원과 누정건축 읽기, 상도문마을 탐사, 실험인 문화체험, 관외 문화체험 등을 진행했다.

‘설악 강원도 어린이 연극축제’ 참가 학교 모집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지부장 남상진)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두드림소극장에서 ‘2015 설악 강원도 어린이 연극축제’를 개최한다. 연극제에 참가할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연극단의 참가 접수를 10월 10일까지 받는다.



도립국악관현악단·시립풍물단 합동공연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의 제22회 정기공연 '타'가 10월 6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공연은 제50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해 속초시립풍물단과의 합동공연으로 열리며, 정기훈 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등 50여 명의 연희자들이 무대에 올라 국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설악문화제 산악페스티벌 마쳐

제50회 설악문화제 산악페스티벌이 10월 3~4일 설악산 일원에서 열렸다. 산악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마련된 '설악산 최고봉(대청봉) 오르기 대회'를 비롯해 '설악단풍길 걷기' 등 산행행사와 '갈매 2018회 설악 숲속 시화전', '숲해설가와 함께 하는 생태 숲 체험', '등산장비 전시회' 등이 열렸다.

서울예술가곡연구회 속초 초청공연

서울예술가곡연구회가 10월 8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초청공연 '가을의 노래, 나의 노래'를 연다. 서울예술가곡연구회는 서울대 음대(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지에서 수학한 중견 성악가들의 모임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가곡과 오라토리오, 성가곡 등 다양한 곡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연극 '메피스토' 스크린으로 만난다

속초시는 10월 15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극 '메피스토' 공연 녹화영상을 상영한다. 연극 '메피스토'는 독일의 대 문호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를 독창적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대포항서 매주 문화공연·이벤트 진행

대포항 친수호안과 문화공원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열린다. 속초시는 9월 26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2015 LOVE IN 속초'를 개최한다. 'LOVE IN 속초'는 전통국악, 제3세계 음악, 7080 가요, 마술, 전문공연단 콘서트 등 문화공연인 콘서트 '대포해 사랑해'와 친수호안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해주는 '스마트폰 촬영 및 인화'가 진행된다.

강원M오페라단 '카르멘' 공연

낭만의 가을밤을 수놓을 오페라 공연이 속초를 찾아온다. 강원M오페라단은 10월 17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

강당에서 오페라 '카르멘'을 공연한다. 강원M오페라단은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사단법인 공연단체로, 속초 출신 오페라 전문 연출가 손문숙(속초 여고 15회) 씨가 이끌고 있다

속초하면 갯배잡니~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이 주최하는 '제2회 갯배문화제'가 10월 17일 청호동 갯배 선착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갯배문화제는 속초시의 대표 관광문화자원인 갯배와 아바이마을의 실향민문화를 접목시킨 문화예술축제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올해 갯배문화제는 아바이마을에 서린 실향민들의 애환,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거리전시회'와 다양한 향토문화공연으로 꾸며지는 '갯배음악회',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조선시대 유학자들 산 그림·자료 전시

국립산악박물관이 10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획 전시 '산에 들다'를 연다. 기획전시 '산에 들다'는 16~18세기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산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산악문화 문화재(서화첩, 기록지 등)를 통해서 알아보는 전시회로, 시대마다 달라지는 산행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여덟 번째 시집 '죽비소리' 펴내

일련(이지연) 설악산 무심선원 원장스님이 여덟 번째 시집 <죽비소리>를 펴냈다. 일련 스님은 "산을 보는 것, 길을 걷는 것,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살아가며 깨달아가는 하나하나가 모두 시의 소재가 됐다. 노승의 작은 시에 큰 힘을 실어준 문인들이 고마울 따름이다"고 했다.

세계적 첼리스트·국내 유망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첼리스트와 국내 피아노 유망주가 선보이는 앙상블이 펼쳐진다. 설악문화센터는 10월 23일 오후 7시 2층 카페소리에서 '첼리스트 마르치오 가르네이로와 피아니스트 최원선의 듀오 콘서트'를 연다.

평창비엔날레 '포스트 박수근' 속초 전시

'2015 평창비엔날레' 특별전으로 마련된 '포스트 박수근' 전시가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속초문화회관 1·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포스트 박수근'은 박수근 화백의 서거 50주기를 맞아 그의 예술정신을 잇는 현대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다.

도문농요보존회·설악초 함께해요

속초문화원은 10월 14일부터 ‘도문밥상 마당이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18일까지 5회에 걸쳐 열리는 ‘도문밥상 마당이 토크’는 속초도문농요보존회 회원들이 같은 마을에 있는 설악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속초도문농요, 떡만들기, 짚신공예 등 마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마을문화자원’이라는 공통 소재를 통해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RUN갯마당 ‘축제’에 초대합니다

(유)RUN갯마당(대표 최종현)이 10월 21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축제’를 공연한다. RUN갯마당의 ‘축제’는 강릉, 원주에서 진행된 ‘우리가락 우리마당’과 화천에서 열린 ‘강원도 상주단체 페스티벌’에서 선보였던 작품이다.

속초시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맞아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속초시는 10월 28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기획사 컬처비즈의 ‘기악 앙상블’을 공연한다.

속초서우회 스무 번째 정기 작품전

속초서우회(회장 박학성)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스무 번째 정기 회원 작품전을 연다. 속초서우회는 박학성 전 속초시의회 의장 등 지역 원로들로 구성됐으며, 회원 대대수가 10년 이상 경력의 서예가들이다.

신윤복 그림 ‘춤’으로 선보인다

조선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의 작품을 춤으로 해석한 공연이 열린다. 양속희무용단(대표 양속희,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장)은 10월 31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무용으로 만나는 혜원 신윤복 풍속화-월하정인’을 공연한다.

속초시립풍물단 창단 10돌 기념공연

속초시립풍물단이 속초시립박물관 개관 및 풍물단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펼친다. 시립풍물단은 10월 30일 오후 7시20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 번째 정기연주회 ‘혼(魂)을 울리는 소리의 향연-질주(疾走)’를 공연한다.

‘속초민예총, 혼춘을 다시보다’ 워크숍

속초민예총 사진협회(회장 박민호)는 10월 29일 오후 6시30분 문화사랑방에서 워크숍 ‘속초민예총, 혼춘을 다시보다’를 연다. 이번 워크숍은 속초민예총이 지난달 진행한 ‘제11회 한중 사진교류전’을 평가하고 양 도시의 예술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속초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속초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이재균, 이하 아우름센터)는 11월 1일 오후 2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속초 전국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영랑윈드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영랑초등학교 관악부 ‘영랑윈드오케스트라’가 11월 6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일곱 번째 정기 연주회로 주민들과 만난다. 현재 49명의 재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연주회 무대에는 홍상기, 정권수, 최유연 등의 강사들도 함께 오른다.

‘설악바다 일요화가회’ 정기 전시회

유화 동호회 ‘설악바다 일요화가회’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속초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아홉 번째 정기 전시회를 연다. ‘설악바다 일요화가회’는 2007년 속초교육도서관 유화강좌 이동수 지도강사와 수강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돼, 매년 정기 작품전을 열고 있다.

‘속초문화’ 시민연구 발아요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매년 발행하는 문화지 ‘속초문화’에 수록할 시민 원고를 11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접수 부문은 칼럼(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 논문(속초 문화재, 관광, 민속, 축제 등과 관련), 문학(시, 수필, 단편소설, 여행기 등 개인 창작 글), 기획(속초 관련 기획 취재문, 연재글, 인터뷰 등), 사료(설화, 민요 등 향토자료 소개), 기타 지방 문화 등과 관련된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원고는 A4용지 기준으로 칼럼 1~2장, 논문 10장 내외, 기타 2~4장이다.

탈북예술인 '평양백두한라예술단' 공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가 11월 12일 오후 2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통일안보 강연회 및 평양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을 개최한다.

한국가곡·러시아가곡 함께 감상

설악문화센터가 '세계 예술가곡 시리즈' 세 번째로 '한국'과 '러시아의 가곡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마련했다. 설악문화센터는 11월 13일 오후 7시 2층 카페소리에서 '한국가곡과 러시아가곡' 공연을 연다.

속초민예총 소설 '낭독극' 공연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이 11월 7일 오후 7시 공간소극장(대추나무한의원 지하)에서 '제18회 통일문화제'를 '낭독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연으로 선보인다. '낭독극'은 배우의 목소리로 소설을 낭독해 문학과 감동이 깊이 있게 전달되며, 관객들로 하여금 폭넓은 상상력을 이끌어내 최근 대학로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내 어린날 교과서 속 시를 찾아서

제153회 물소리시낭송회(대표 이선국)가 11월 14일 오후 3시 설악문화센터 1층 '북카페'에서 열린다. '내 어린날 교과서, 그 추억의 시를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시낭송회는 회원 시낭송과 함께 물소리시낭송회 독자들이 회원 시와 교과서 속 시를 낭송하고, '교과서 속 내 어린날의 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설악수채화' 여덟 번째 작품전

수채화 동호회 설악수채화(회장 박귀례)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여덟 번째 정기 작품전을 연다. 올해 전시회에는 박귀례 회장을 비롯해 15명의 회원이 3점씩 45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속초민예총 '공공미술' 모색 세미나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은 11월 13일 오후 7시 문화사랑방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미술 제안서 제작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공공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공공미술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RUN갯마당 '뭇다 핀 꽃' 앙코르 공연

RUN갯마당(대표 최종현)이 11월 14일 오후 7시 속초문

화회관 대강당에서 '뭇다 핀 꽃' 앙코르 공연을 연다. '뭇다 핀 꽃'은 RUN갯마당이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창작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 종군 위안부를 다루고 있다. 공연은 '낮선 곳에서의 아침', '올가미', '꿈에서', '한(恨)', '끝에서', '위로(에필로그)' 여섯 마당으로 구성됐다.

극단 파·람·불 '전명출 평전' 앙코르 공연

속초 극단 파·람·불(대표 석경환)이 올해 전국연극제 대상 수상작 '전명출 평전'(백하룡 작, 변유정 연출)의 앙코르(무료) 공연을 11월 24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다. '전명출 평전'은 한국현대사의 궤적을 온몸으로 살아온 한 사내의 인생역정에 관한 이야기다.

신명나는 전통 춤판 '곤들의 꿈' 공연

(사)강원민예총 풍물굿협회가 11월 18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신명나는 춤판을 벌인다. 이날 오후 7시에 열리는 '곤들의 꿈'은 풍물팀 더기(the ki), 춘천민예총 춤협회, 속초사자놀이보존회, 백형민(전 국립무용단 주역무용수) Branch² Dance Company 대표가 무대에 올라, 전통 춤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한다.

속초시립합창단 제19회 정기공연

속초시립합창단(지휘 송은희)의 열아홉 번째 정기 공연이 11월 21일 오후 7시30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마술사와 함께 하는 Music&Magic'이란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혼성합창(2회)과 남성중창, 여성중창, 마술 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임수철 작곡가 '기타 창작곡 발표회'

임수철 작곡가의 '기타 창작곡 발표회'가 11월 22일 오후 5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원영백기타학원이 주최하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임 작곡가의 '속초悲曲(비곡)', '회상(回想)', '잡념지곡(雜念之曲)', '속초야상곡(夜想曲)', '속초메나리 기타소나타', '당신을 위해서라면' 등 11곡이 선보인다.

제1회 강원도 어린이연극제 23일 개막

도내 초등학교들이 참가하는 '제1회 강원도 어린이 연극제'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속초 두드림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지부장 남상진)가 주관하는 이번 연극제는 '애들아, 꿈과 상상의 나라를 펼쳐자!'를 주제로 속초 3개교와 강릉, 정선, 철원,

흥천, 인제, 평창 각 1개교 등 도내 9개 초등학교에서 참가한다.

속초시립박물관 개관 10돌...“문화 전초기지”

속초시립박물관이 개관 열 돌을 맞았다. 지난 2005년 11월 4일 문을 연 속초시립박물관은 그간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향토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향토문화학교 수강생 전시·발표회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문화학교 23기 수강생들이 작품발표회를 연다. 문화원은 11월 27일 오전 10시30분 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서예 및 한지공예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막하고, 이어 11시부터는 소강당에서 장구와 노래교실 수강생들의 발표회를 연다. 제23기 향토문화학교는 고전무용, 노래, 민요, 서예, 한지공예, 장구, 사물놀이 중급 등 7개 강좌에 171명이 수강했다.

RUN갯마당, 찾아가는 학교문화콘서트

(유)RUN갯마당(대표 최중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5회에 걸쳐 강원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학교문화콘서트 ‘흥미진진, 응원콘서트’를 진행한다. RUN갯마당은 지난 2013년부터 도내 중·고교 70여 곳에서 찾아가는 학교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설악문화센터 ‘동물원·고 김광석 명곡’ 감상

설악문화센터는 11월 27일 오후 7시 2층 카페소리에서 ‘만추(晩秋)콘서트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로 주민들을 만난다. 이날 콘서트에는 그룹 동물원의 멤버 박기영, 소보로(소프트 보이스&로맨스) 등이 무대에 올라, 1980~90년대를 풍미했던 동물원과 고 김광석의 명곡들을 들려준다.

대포초교국악관현악단 두 번째 정기연주회

대포초등학교(교장 한재석) 국악관현악단이 11월 30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두 번째 정기연주회 ‘꿈꿔樂(요) 우리, 꿈지樂(락) 국악’을 연다. 대포초교국악관현악단은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소금, 피리, 타악 등 8개 부문 56명의 재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속초예총 사진작가협회 수강생 전시회

속초예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는 11월 28일부

터 12월 4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사진 중급반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연다. 사진작가협회는 지난해부터 평생교육기관 등지에서 사진 기초반을 수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급 사진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설악윈드오케스트라 5회 정기연주회

설악윈드오케스트라(악장 함삼균, 지휘 임정호)가 11월 28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서울 아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추계예술대 손예만(속초교 56회) 씨가 플루트 솔로 연주를 선보인다.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23기 수료식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문화학교 23기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가 11월 25일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 향토문화학교는 고전무용, 노래, 민요, 서예, 한지공예, 장구, 사물놀이(중급), 통소 등 8개 강좌에 171명이 수강, 이 중 98명이 수료했다. 심옥경·강용희·조광녀·황명옥·김경선·고무순·임봉희·장상기 씨는 우수 수강생으로 선정돼 상장을 받았다.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가곡의 밤

설악문화센터가 유럽 3개국 가곡을 감상하는 공연을 마련한다. 설악문화센터는 12월 4일 오후 7시 2층 카페소리에서 ‘2015 세계 예술가곡 시리즈’ 네 번째 공연 ‘해설이 있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가곡의 밤’을 연다.

속초·고성서 광복 70주년 평화예술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예술제 ‘통일바람·시작’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DMZ접경지역 고성군과 실향민의 도시 속초에서 펼쳐진다. 광복7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예술제에는 한예중 교수, 재학생, 졸업생을 비롯해 지역예술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가해 앙상블, 연극, 풍물, 아동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제1회 강원도 어린이 연극축제 ‘성료’

철원 청양초등학교와 강릉 주문진초등학교가 ‘제1회 강

원도 어린이 연극축제'에서 대청봉상을 수상했다. 속초에 총 연극협회가 주관한 이번 연극제는 '애들아, 꿈과 상상의 나라를 펼쳐자!'를 주제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속초 두드림소극장에서 진행됐다. 속초지역 3개교와 강릉, 정선, 철원, 홍천, 인제, 평창 각 1개교 등 도내 9개 초등 학교가 참가했다.

설악문우회 동인지 '갈매' 45호 발간

설악문우회(회장 이은자)의 동인지 <갈매> 제45호가 발간됐다. <갈매> 45호는 박명자 회원의 'A정신병동'을 비롯해 김춘만 '아픈은 눈이 되리', 채재순 '늦가을 조문', 김종현 '가위바위보', 권정남 '법고를 두드리다' 등 회원 22명의 시 166편이 수록됐다.

이춘복 씨 '순국 5열사 묘 이장 참관' 금상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연 장릉사진공모전에서 이춘복 씨의 '순국 5열사 묘 이장 참관'이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 9월 14일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제4회 장릉사진공모전'에는 17명이 102점을 출품했다. 속초문화원은 심사를 통해 영랑호 일원에 안장됐던 5용사 묘를 유원지 개발로 보광사 인근 언덕으로 이장하는 참배식(1961년)을 찍은 '순국 5열사 묘 이장 참관'을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이웃도 도와요

속초예총 미술협회의 자선미술전시회 '사랑 나눔'이 12월 5일 개전, 11일까지 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미술협회의 자선미술전시회는 별도의 '30만원 전'을 통해 작품 판매 수익금 일부를 모범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올해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등 30명의 회원이 출품했다

속초민예총 창립 20돌, 민족예술제

스무 돌을 맞은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의 민족예술제 '다시,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12월 12일 참사랑요양원과 공간소극장에서 개최된다. 민예총은 "남성대 여성의 대립적 관점이 아닌, 아버지로 대표되는 부성의 회복이 우리시대에 절실히 요구된다. '다시,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다시, 어머니의 이름으로'도 가능하며, 우리 모두의 새로운 이정표를 찾아보는 질문이다"고 설명했다.

제1회 이북5도 실향민 문화축제 연다

속초시가 '실향민 문화축제'를 열기로 했다. 시는 12월 1

일 브리핑을 통해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6월 24~25일 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에서 '제1회 이북5도 실향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7회 속초시문화상 수상자 선정 결과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속초모범운전자회 회장 **서용철**

◆ 심사결과

현재 속초지역 교통안전 모범운전자로서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인정받으면서 봉사활동 실적으로 각종 봉사상을 수상하고 있음.

교육학술 부문



경동대학교 교수 **최철재**

◆ 심사결과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에 재직하면서 후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IT분야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적극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 정책발전을 위하여 재능기부 등을 실시하고 있음.

체육 부문



설악중학교 야구감독 **권동철**

◆ 심사결과

속초야구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하여 야구 불모지인 속초 야구를 전국 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 최초의 감독이며, 우수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엘리트 학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프로선수로 진출시켰음.

2015년 속초문화원 임·직원 명단

순번	직위	성명	주소	비고
1	원장	박무웅	속초시 도문동 200	돌감자장학회장
2	부원장	최현식	양양군 서면 고인돌길 200-49 양양고인돌오토캠핑장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3	부원장	김계남	속초시 금호동 이편한아파트 104-604	아시아항공여행사대표
4	이사	고재양	속초시 교동 780-60 15/3-	전)교사
5	이사	곽철신	속초시 교동 럭키2차APT 103-1205	영북지구 총청향우회대표
6	이사	구영모	속초시 대포동 934-5 대포농공단지내 파이프랜드	(주)파이프랜드대표
7	이사	권영석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15-7 파로와민박	순오텐트대표
8	이사	김계양	속초시 대포동 470-3	속초대포하우스대표
9	이사	김상복	속초시 조양동 삼성쉐르빌 104동 901호	속초연탄은행대표
10	이사	김순옥	속초시 장사동 577-38 남북Hits	남북Hits대표
11	이사	김태성	속초시 교동 767-257 프레지던트인텔빌라트 102호	전)청초동장
12	이사	문광철	속초시 조양동 1292-1 동명아파트 나동 205호	속초시초등학교 총동창회연합회장
13	이사	박정기	속초시 조양동 230 연회동	연회동대표
14	부원장	박정은	속초시 금호동 484-7 동제약국	동제약국
15	이사	양재호	속초시 교동 627-32	전)교육행정공무원
16	이사	어재석	속초시 증양동 468-67	전)속초시의회과장
17	이사	윤광훈	속초시 교동 1021-4 디자인미디어	이정종합광고대표
18	이사	윤숙자	속초시 교동 627-42 설악유치원	전)설악유치원원장
19	이사	윤장원	속초시 교동 794-2(미시령로 3275)	장원주유소대표
20	이사	이영순	속초시 금호동 484-25 속초나이키대리점	나이키속초점대표
21	이사	이춘실	속초시 노학동 설악럭키1차APT 2-606	전)속초시기획감사실장
22	이사	이태자	속초시 교동 830-2 남부새마을금고	남부새마을금고전무
23	이사	임동환	속초시 대포동932-8 대포농공단지내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두산유리시스템창호대표

순번	직위	성명	주소	비고
24	이사	장용근	속초시 대포동 947-14	금강기획에이피주 대표이사
25	이사	정봉재	속초시 교동 동부아파트 102-803	전) 속초예총 부회장
26	이사	최용석	속초시 조양동 성호아파트 202-105	보배이에스씨 대표이사
27	이사	탁동식	속초시 교동 하우스토리 104-801	설악여자중학교 교장
28	이사	함봉식	속초시 교동 럭키설악타운 1-1108	주세림 대표
29	신임이사	이옥인	속초시 번영로 67번길 10-5	민주평통지문위원
30	신임이사	박해창	속초시 노학동 관광로 156번지	설악스케치산체점 대표
31	감사	이상호	속초시 미시령로 3359번길 15, 교동 동부 102-702	속초시장정책보좌관
32	감사	허우린	속초시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장
33	사무국	김인섭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311동 506호	사무국장
34	사무국	이정무	속초시 교동 동부아파트 102-401	사업과장
35	사무국	김은중	속초시 교동 대명늘푸른 104동 103호	사무과장
36	사무국	김덕후	속초시 만천 5길 27-2	사무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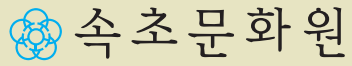
문화의 온기가 전해지는 속초문화원

문화를 통해 세상과 만납니다

속초문화원 주요사업

- 향토문화 연구 및 활동 기능 강화
 -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전승
 - 향토사연구소 활발한 활동 및 기능 확대
- 사회 교육사업
 - 실질적인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교육 기회 마련
 -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속초의 뿌리 교육정착
-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문화DB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의 디지털화 변환
 -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DB 연계 구축
- 속초시의 종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위상 정립
 - 속초시 각종 행사에 속초 전통문화 공연 계획
 -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한 실버문화종합기관 구축
- 속초의 문화 재조명
 - 속초시사 홈페이지 체계적 관리
 - 속초사자놀이 전승 및 보존
 - 속초 도문농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체계적 전승
 - 실향민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존 및 전승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570-5)
Tel. 033) 632-1231, 639-2439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